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F

JUN 17 1983.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한국일보 토론토

The Korea Times Toronto Edition

DAILY

No.1161~1162 1983년 6월17일(금) & 18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533-2361. Friday & Saturday, June 17 & 18, 1983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후보신청마감일은 8월31일

민족상 후보자를 찾습니다

한인사회 지위향상에 공이 큰 인사 표창

83년도 제 3회 「한인민족상」 수상후보자 마감일이 8월 31일로 확정됐다.

이질문화권에서 한국문화를 보존하고, 한인사회의 지위향상을 위해 희생·봉사에 공이 큰 인사를 표창하기 위해 토론토한국일보사가 제정한 「한인민족상」은 금년으로 3회를 맞는다.

「한인민족상」위원회(위원장 구상회 박사) 사무국은 13일 40여 캐나다 전역 주요한인단체에 「후보모집요항」과 후보추천서 용지를 우송했다.

모집요항에 따르면 금년도 시상부문은 (1)학예술상과 (2)공로상 등 2개 부문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학·예술상은 캐나다내에서 학술·과학분야, 또는 문학·예술분야에서 뛰어난 공로자나 특기자, 공로상은 한인 또는 캐나다사회 발전에 공로가 큰 인사가 그 대상자로 되어있다.

지금까지 예술·학술·공로·봉사의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했으나 지난 2월11일에 있은 한인민족상위원회 정기총회에서 부상의 증액과 상의 질을 위해 금년부터 2개 부문으로 축소했으며, 지역별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후보자가 전국적으로 많이 추천되도록 결의 했다.

추천방법은 전국의 각 단체가 소정양식에 의해 해당자 1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으며, 개인적으로 추천할 경우는 추천인 10명 이상을 요한다.

한인민족상위원회 이석현 사무국장은 16일, 수상자 발표일자는 9월20일로 확정되었으나 시상식 일시와 장소는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한인민족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제1회(81년도)

▲예술상 : 박재훈(음악가)-토론토

▲예술상 : 김용순(무용가)-토론토

▲공로상 : 전택균(전 토론토한인회장)-토론토

▲봉사상 : 장근수(학자)-키치너

★제2회(82년도)

▲학술상 : 권오율(학자)-르자이너

▲예술상 : 김영숙(무용가)-에드몬톤

▲공로상 : 박재선(체육인)-토론토

▲봉사상 : 김원겸(학자)-위니펙

〈버터플라이 캐나다 국제 탁구대회〉

이창훈선수 준결승 진출

예선에서 서독선수 3-0격파

버터플라이 캐나다국제탁구대회 첫날 예선경기에서 한국의 이창훈선수가 강적인 서독의 엥글버트·허길선수를 3-0으로 격파, 준결승전에 올랐다.

15일 오후 토론토시내 메시홀(Massey Hall)에서 개막된 이 대회는 한국을 비롯한 중공, 서독, 캐나다, 미국등의 강호 선수가 참가, 열전을 벌렸다.

이날 허길선수와 접전한 이창훈선수는 토론토에 오기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전미오픈탁구대회에서 허진선수에게 3-2로 패한 경험이 있다. 허길선수는 이 대회에서 남자부 2위를 차지했다.

1세트부터 침착히 맞선 이선수는 강서브를 통해 기선을 잡아 세트스코어 21-19, 21-6, 21-18을 기록했다.

중앙무대 위에 탁구대를 설치, 진행된 이날밤 경기는 모두 9개조로 예선을 벌렸다.

한편 이날 예선전에서 최의섬선수는 캐나다의 호라시오·핀테아선수와 대전, 3-2로 분패했으며 세계랭킹 3위인 중공의 시에사이케 선수와 역전을 벌였던 정성수선수 역시 최선을 다했으나 3-0으로 패배, 탈락했다.

중공의 시에선수가 비장의 스카이서브(볼을 공중으로 띄웠다가 떨어질때 보내는 서브)의 묘기를 속출, 관중들의 박수를 받았으며, 이를 잘 수비해내는 정선수의 방어에 또한 박수를 보냈다.

이 경기를 관전한 선수단 임원과 코치는 정선수가 예상보다 잘 싸웠으며 비록 스코아는 졌으나 세계강호에게 접근전과 시소게임을 벌려 앞으로 타도할 가능성을 보였다고 격찬했다.

이날 경기장에는 한국선수단을 응원하기 위해 2층관람석에서 100여명의 교포가 열렬한 응원을 보냈다.

◆ 이창훈 선수

게임이 끝난 후 한국선수들은 한결같이 무대위에 설치된 경기장의 시합은 처음이며 바닥이 미끄러워 게임당 2-3번씩 넘어지는 이번 역시 처음이라고 밝히고 추억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6일 오후에는 여자부 예선경기인 백순애선수와 캐나다의 탄매치선수가, 이진숙선수와 캐나다의 마리안도온코스선수가 대전을 벌이며, 준결승에 진출한 이창훈 선수가 캐나다의 호라시오 핀테아선수와 대전한다.

소수민족대표 초대

검찰총장 인권옹호의날맞아

14일 온타리오주 인권옹호의 날(Human Rights Day)을 맞아 로이·맥머트리 검찰총장(법무장관 겸)은 소수민족대표자들과 언론인들을 온타리오플레이스로 초대, 리셉션을 가졌다. 맥머트리총장은 내각의 인종문제담당 소각료회의 의장이다. 이날 게스트·스피커(연설자)는 우발레(Dr. B. Ubale) 온타리오주 인권옹호위원회 국장이었다.

올들어 대학생 116명 입건

반정부데모 128건

〈서울-UPI〉 한국정부는 14일 금년들어 반정부데모와 관련해 총1백16명의 대학생이 체포되어 형사입건됐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올해들어 발생한 반정부데모건수가 모두 1백28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회소식통들은 금년에 체포된 학생수는 4백명 정도라고 밝혔다.

오늘의 예금금리(6/10~7/19)			
한인신용조합			
기 간	신용조합	오뚜기정기예금	시중은행
30일~90일	7.75%		7.00%
120일	8.00%		7.25%
180일	8.25%	8.75%	7.50%
365일	8.75%	8.75%	8.00%

※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Tel : 533-9387~8

언론자유 강력요구

민한당, 정치해금도

〈서울-UPI〉 한국의 야당은 14일 대정부질의를 통해 언론자유, 정치해금 그리고 정치발전의 활성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제1야당인 민한당부총재인 신상우의원은 『민주주의실천요구는 과거나 현재에 있어서 상존하는 객관적사실』이라면서 『정부는 정치해금을 실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국민당의 임덕규의원은 김영삼씨의 단식투쟁이 언론에서 보도되지 못한것은 언론부재라고 지적했다.

또한 임의원은 이같은 언론자유의 부재는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시키는 요인이 된다면서 『국민들의 입과 귀 그리고 눈을 막는 정치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한국의 自由보전 분명한 美입장을

金大中씨, 美紙기고

LA헤랄드·이그재미너지는 지난11일자 일요판에서 김대중씨 기고문을 게재, 미국은 한국에서의 자유보전을 위해 입장표명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맥머트리 검찰총장이 14일 마련한 리셉션에 참석한 한인대표들. 좌로부터 구상회 박사(한인민족상 위원장), 장순채 한인회장, 맥머트리 검찰총장, 이상훈 총영사, 유재신 박사(토론토대학교 교수).

캐나다한국외환은행
KOREA EXCHANGE BANK OF CANADA
•본 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블루어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RSP
사업보험, 상점보험
497-3800,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현 영 일
공인회계사무소
444 9341
YOUNG I. HYUN, C.A.
Chartered Accountant

강학수종합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622-5147

은하 보석
란콤 시세이도 화장품
로렉스시계
오메가시계 45%~50%
귀국선물
결혼·약혼예물 할인판매
620A BLOOR ST. W.
☎ 534-9977·7791

가장 빠르고 편리하게!

노력과 땀으로 이뤄논 결실을 어떻게 하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증식시킬수 있을까?

●정기예금및 적금 ●대출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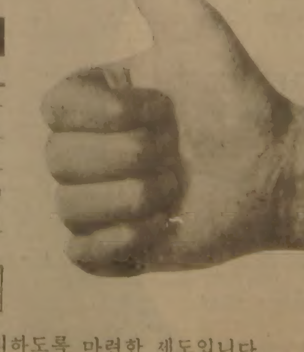
카네이션 정기적금 월부금표

정기적금의 월부금과 지급액 (단위 : CAN$)

기 간	계약액	월부금	납입총액	지급보충금	특별금리	지급총액
6개월	500	81.44	488.64	11.36	6.07	506.07
	1,000	162.88	977.28	22.72	12.14	1,012.14
1 년	500	39.68	476.16	23.84	10.99	510.99
	1,000	79.36	952.32	47.68	21.98	1,021.98
1년반	500	25.84	465.12	34.88	14.84	514.84
	1,000	51.68	930.24	69.76	29.68	1,029.68
2 년	500	18.92	454.08	45.92	17.93	517.93
	1,000	17.84	908.16	91.84	35.86	1,035.86

● 500불 이상은 500불을 기준으로한 배수

높은이자율 13.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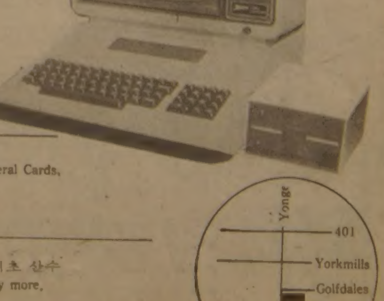


카네이션 적금은 "푼돈으로목돈 마련"에 편리하도록 마련한 제도입니다.

카나다 韓一銀行 토론토지점
HANIL BANK CANADA
• Toronto Main Branch
P.O.Box 262
6960, 1 Canadian Place
Toronto M5X 1C9
(416) 865-0456
• Vancouver Head Office
2674 Four Bental Centre
1055 Dunsmuir St. Vancouver.
(604) 681-2266

OPENING SPECIAL
컴퓨터

현대 자녀분들의 교육이나 사회진출을 위한 컴퓨터교육의 중요성을 여러분 모두 아실 것입니다. 가장 인기있는 컴퓨터의 하나인 Apple II + Basic System($2,500)과 성능면에서 손색이 없는 Unitron Computer System과 자녀 학습용 Softwares를 구비하여 Demonstration을 하고 있으니 한번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Package 1 : $1,020
-Unitron Computer(48K)
-Fourth Dimension Disk Drive
-Disk Control Card
-R.F. Modulator
-Power & Monitor Cables

취급품목
ZENITH 12" MONITOR Special $136!!
Diskettes, Diskette Storage Boxes, Printers, Joy Sticks, Peripheral Cards, Components, Books, and magazines, etc.

교육용 SOFTWARES (유치원 아동부터 Grade13 학생)
유치원-Grade7 : 영어 기초 단어, 스펠링, 읽기 및 기초 산수
Grade7 & Up : Algebra, Mathematics, Words Race and many more.

Yonge
401
Yorkmills
Golfdales
Lawrence

HIGH-TECH ELECTRONICS
3371 Yonge St. Toronto M4N 2M6
이성형 TEL : 484-9903(B), 226-2618(R)

결승진출의 꿈 깨져

한국청소년, 준결승에서 브라질에 분패

멕시코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청소년 축구대회에 출전한 한국청소년팀이 세계 4강에 진출, 온 국민의 흥분과 기대 가운데 15일밤 9시30분(토론토시간)에 열린 브라질과의 대전에서 선전했으나 2-1로 아깝게 패해 우승의 꿈이 깨어졌다

이날 몬트레이구장에서 열린 준결승전은 전반 14분만에 브라질수비진의 볼을 맞고 튀어나온 볼을 김종부선수가 골로 연결시켜 선취점을 올렸으나 전반 26분 브라질의 달리브·올리데이라선수에게 1점을 허용, 동점을 이루고 전반을 끝냈다.

후반에서 양팀은 맹공을 벌렸으나 네델란드의 주심 잔카이저씨의 편파로 한국의 주전 김종부, 노민우선수등이 경고장을 받아 게임이 약간 부진, 후반종료 10분을 남기고 기습을 당해 역전패했다.

한국팀은 18일밤 8시30분에 다발라하라 구장에서 3-4위전에서 폴랜드와 대전하게 됐다.

몬트레이시에서 우승후보로 지목된 우르과이를 격파하고 준결승에 진출, 새로운 신화를 기록한 한국팀의 준결승 진출은 멕시코 뿐만 아니라 남미등 세계강호팀을 놀라게 했으며 신연호선수와 노민우선수는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국축구팀이 세계대회의 본선에서 4강에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준결승 소식을 접한 한국은 흥분과 기대 가운데 열광했으며 한국시간 16일 오전8시 브라질과의 대전 TV중계방송을 보기 위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는 한산한 지경이었으며 주요열차,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뜸했다.

일부 개인회사들은 출근시간을 게임이 끝난 오후1시로 연장하는등 관심을 보였다.

전대통령도 브라질과 대전을 앞둔 선수입원들에게 축하의 전문을 보내고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고 비록 브라질과의 대전에서 진다해도 실망할 것이 없다고 위로했다.

한편 한국축구계는 청소년축구의 상승세로 용기를 얻고 있으며 대부분 세계대회 예선에 탈락했던 경험에 비추어 앞으로의 전력에 대해 희망을 기대하고 있다.

트루도수상 베푼 만찬

찰스황태자 부부

(핼리팩스) 캐나다 방문 2일째를 맞은 찰스황태자와 다이애나 황태자비는 15일밤 노바 스코시아주 핼리팩스에서 피에르·트루도수상이 베푼 공식만찬에 참석했다.

진주와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왕관을 머리에 쓴 흰 드레스 차림의 다이애나공주, 검은 색 정장차림의 찰스황태자, 흰 턱시도차림의 트루도수상이 파티장인 노바·스코시안 호텔에 리무진편으로 도착하자 수천명의 핼리팩스 시민들이 탄성을 연발했다.

700여명이 모인 만찬회장에서 트루도수상은 연설을 통해 "특히 캐나다를 처음 방문하는 공주에 환영사를 보낸다"고 말하고, 자주 캐나다를 방문, 캐나다 사람들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찰스황태자는 답사에서 트루도수상의 따뜻한 환영사에 감사한다고 말하고 이보다 앞서 예정된 애나폴리스·로열의 세계최초의 조류발전소 건립식장에 참석치 못했음을 사과했다. 황태자부부는 헬리콥터편으로 애나폴리스에 가려했으나 일기불순으로 출발을 취소했었다.

고국폴란드 방문

교황 4년만에

〈바티칸시티-AP〉 교황 요한·바오로2세가 16일 4년만에 두번째로 고국 폴랜드를 재방문한다.

그러나 요한·바오로2세는 이번의 방문중 4년전 보다 더욱 어려움에 처한 고국을 보게 될것으로 예상되고있다.

4년전인 1979년 6월10일부터 9일간 폴랜드를 첫방문했던 요한·바오로2세는 고국인들에게 정신적인 자유를 상실하지 말도록 용기를 고취했었으나 이번 재방문시에는 계엄령이후 상처받은 고국인들에 불안감을 안기게 될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영웅으로 교황을 추앙하는 폴랜드인들이 교황을 환영하는동안 자유노조소생의 꿈이 분쇄된데 격분, 소동을 일으킬경우 교황의 신변보호가 문제될것으로 우려되고있다.

한편 폴랜드공산정부는 교황의 고국재방문이 계엄령선포이후 악화된 정부의 이미지를 개선시키고 폴랜드에 대한 서방국가들의 경제제재를 해제시키는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하고있다.

의석사임 확정

맥케이의원

(오타와) 노바스코시아주의 관록있는 보수당의원 엘머·멕케이씨가 브라이언·멀로니 당수에 의석 확보의 길을 터주기 위해 15일 사임했다.

멕케이씨의 사임 소식을 들은 멀로니 당수는 그의 사임이 "대단히 너그러운 처사"라고 말하고 "멕케이의원을 설득, 보좌관 및 자문으로서 내 옆에서 함께 일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당수에는 선출됐으나 의석이 없는 멀로니 당수는 노바·스코시아 중앙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무사히 당선될 것으로 보이며, 자유당은 후보를 내세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민동정

◆김정진(화가)=지난 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토론토에서 개인전을 열고 있다.(901 Lawrence Ave. W. Tor. Columbus Center). 유화 12점, 누드 11점, 수채화 20점.

15일의 리셉션에는 화가 김인호씨 등 친지들이 모여 축하했다.

--정 정--

6월9일(목)자 본지2면에 보도된 해병전우회 기사중 연례야유회의 일자가 6월18일(토)이 아닌 7월9일(토)임과 임원명단중 총무에 정용수씨가 아니고 정영수씨임으로 정정합니다.

〈한백성 칼럼·동녘바람 서녘바람〉

고 향

어느 책의 저자가 자기소개란에서 우리시대 우리민족의 일원으로서 자기고향에서 사는 사람이 과연 몇명이나 되겠는가고 자문하고 있는 것을 읽은 일이 있다.

고향! 나에게는 사실 고향이란 명백하지 못하다. 나의 출생지는 나의 소년시절에 있어서는 공백지대 였다. 나는 소년시절을 객지에서 보냈던 것이다. 객지에서 다닌 국민학교시절의 추억은 있지만 그곳은 나의 뿌리는 아니었다. 어디까지나 신참자로서 토박이 아닌 저만큼 거리감있는 위치에 항상 놓여있었다. 중학교는 또 다른 곳에서 다녔다.

이때는 또 다른 특수환경에서 군국주의 하에서의 젊음도 미래도 막힌 회색시대의 기록이다.

카키색 유니폼에 고된 근로봉사와 억양높고 단조로운 군가 속에서 해가 뜨고 해가 졌으며, 허기와 갈증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이때도 여전히 고향이란 것에 대한 분명한 의식은 없었다. 그것은 출생지, 국민학교 시절에 살던 곳, 중학교 시절에 살던 곳이 서로 다르기는 해도, 지리적으로 그다지 먼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고향분위기권에 속하는 지대라고 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고 이제와서 생각해 본다.

8.15 해방은 나에게 고향을 의식화시켰다. 나는 월남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북내기, 3·8따라지의 범주에 속하게 된 것이다. 어쩔수 없이 그리운 고장이 마음 속에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고향의 발견이다. 추억의 땅이 환상의 나래를 타고 내려온다. 분명하지 않던 그 어느 개울과 과수원과 골목길이 생생하게 재구성되어 꿈에 자주 나타난다. 그때부터 나의 고향은 내 마음에서 떠난 적이 없다.

고향은 나의 신앙으로 되었다.

이민생활 속에서 이제 다시 고향은 공간의 한 점으로 부터 장으로 확대되어 감을 본다. 고국이 나의 고향이 되어버렸다.

사투리만 그리운 것이 아니고 우리말만 들어도 고향사람을 만나는 기쁨으로 가슴이 설레인다. 반가와 말을 건네지 않고는 섭섭해 견딜 수가 없다.

이론적으로는 애국심이란 원낙 사람이 타고난 것이 아니고 후천적인 것이다. 인류사에서 국가의 형성은 훨씬 후기에 속하는 일이다. 애국심은 애향심이 그 근원이다. 즉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연유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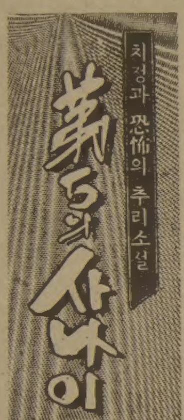
그런데, 우리 이민1세들은 그래도 고향이 있지만 이곳에서 태어난 우리들의 2세들은 이것이 없다. 고향을 상실한 세대다. 그들에게는 애향심을 바탕으로 하는 한국인으로서의 애국심은 없을 것이다. 모르긴 하지만 이들이 과연 부모의 고향을 자기의 고향으로 여기고 그리워할 것인지….

이 봄도 내 뜰에는 개나리가 샛노랗게 피었다. 내 고향에 무수히 피던 개나리다. 지금 고향의 봄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노오란 개나리 속에서 뛰어놀던 어린날을 생각한다.

상실한 나의 2세들을 보면서 나는 그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죄인의 심정이 된다.

金聖鍾作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제5의 사나이

<256>

누가 惡魔인가 ⑰

"일주일내 체포못할까": 대머리는 울상

노기어린 목소리로 장관이 되물었다. 대머리는 손등으로 이마의 땀을 닦았다.

『죄, 죄송합니다. 전력을 기울였읍니다만 놈이 워낙 대단하고 교활한 놈이라서 그만 놓치고 말았읍니다.』

『으음… 그게 말이 되나요? 독안에 든 쥐를 놓치다니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오. 상대가 아무리 대단한 인물이라해도 상대는 단 한 명아니요. 수십명이 그 사람 하나 잡지 못했단 말이요? 그렇다면 자격이 없는거 아니요?』

『죄송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체포하겠읍니다.』

그는 전화통에다 대고 수없이 머리를 조아렸다. 장관은 얼른 전화를 끊지 않았다.

『지금 전세계 수사기관이 주목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해요. 만일 그사람을 놓치면 이유야 여하튼 무능하다는 비난을 면할수 없을거요.』

『잘 알고 있읍니다. 명심하겠읍니다.』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지만 이번 일은 잡았다가 놓아준거나마찬가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네…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잡을 수 있나요?』

『지금 모두 사표를 받아놓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만일 체포하지 못하면…』

『내 말은 언제까지 체포할수 있느냐고 물었소.』

『이…일주일만 시간 여유를 주시면 반드시 체포하고야 말겠읍니다.』

『알았소. 더이상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시오.』

전화가 뚝 끊어졌다.

대머리는 얼굴에 흥건히 젖어있는 땀을 손등으로 문지르면서 후유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미칠 노릇이군.』

그는 냉수를 벌컥 벌컥 들이켜고 나서 멍해 흐린 눈으로 마형사를 바라 보았다.

『장관이 일주일 여유를 줬어. 일주일 내로 잡으라는거야.』

『이쪽에서 일주일내에 잡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읍니까.』

『사흘 이내에 잡으라고 할것같이 그렇게 말했지.』

마인은 웃음이 터져나오려는 것을 겨우 눌러 참았다.

『일주일 이내에 체포 할수없을까?』

대머리는 울상이 되어 물었다.

마인은 머리를설레설레흔들었다.

『그건 어렵습니다. 그자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해놓고 잡는다는게 통하지 않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체포하겠다는 전 말이 때도 일주일 이내에 잡는다는건말이 안됩니다.』

『하지만 장관의 지시야. 일주일 이내에 놈을 잡아야해. 그렇지않으면 난 정말 사표를써야해. 마형사가 이번에도 개가를 올려줘야겠어.』

『해보는데까지 해보겠읍니다만 장담할 수는 없읍니다.』

대머리는 마인을지그시쏘아보다가

『놈에게 가장 빨리 접근할 수 있는 실마리가 없을까?』

하고 물었다.

마인은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말했다.

『현재로서는 그자의 어머니밖에 없읍니다. 그자가 어쩌면 자기어머니에게 접근을 시도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거야!』

대머리는 탁자를 치면서 벌떡 일어섰다.

朴 男 그림

통관량 초과반입억제

한국세관 휴대품규제 대폭강화

한국정부는 해외여행 자유화조치로 국민의 해외여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에따른 여행자들의 휴대품 과다반입문제가 말썽이 되자 6월1일자로 여행자의 휴대품등 통관사무처리규정중 휴대품통관 규제를 크게 강화했다.

과세를 하더라도 통관허용량을 제한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비데오 테이프의 경우 녹화되지 않은 것은 3개, 녹화된 것은 5개 이상 반입할 수 없게 된다.

도입 허용량을 초과한 본국인 여행자의 물품은 반송을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시계, 음향기및 카메라의 면세 도입량 1개, 과세 반입량 1개로 모두 2개를 합법 반입할 수 있으나, 각 품목이 2개가 넘는 경우의 통관여부는 세관당국이 심사, 결정한다.

이 검사에서 과다 반입자로 결정이 나면 외무부및 소속단체장에게 통보, 앞으로의 해외여행을 규제토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담배 10갑, 향수 1병(2온스), 주류 1병과 여행중 사용하던 양복, 와이셔츠, 화장품등 신변용일용품, 출국시 소지한 물품으로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을 제외된다.

13일 토론토총영사관에 따르면, 정부는 특정물품의 면세통과및 과세통관허용한도를 발표, 일반여행자가 30킬로그램이상의 휴대품을 반입했거나, 전기밥솥, 음향기기, 자동차 부품등 여행자 용품으로 볼 수 없는 상품을 휴대하였을 경우 공항에서 통관을 하지 않고 인접세관으로 이관하여 정밀검사를 한다는 것.

이날 총영사관이 발표한 특정물품의 면세통관 과세통관한도 및 통관불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표 참조)

총영사관이 발표한 면세·과세통관 허용한도

품 명	면세통관 허용한도	과세통관 허용한도
의약품	5종(국내도매가격이 합계 10만원 이하의것)	5종(국내 도매가격이 합계 50만원 이하의것)
운동용구	1개 또는 1조(국내 도매가격이 10만원 이하의것)	2개 또는 2조(1개당 또는 1조당 국내 도매가격이 10만원 이상의것)
시계	1개(국내도매가격이 5만원 이하의것)	1개(국내 도매가격이 10만원 이상의것)
음향기기	1대(국내도매가격이 10만원 이하의것) 카세트라디오는 제외	카세트라디오 1대 기타 음향기기 1대 또는 1조(1대당 또는 1조당 국내도매가격이 20만원 이상인것)
카메라	1대(국내도매가격이 10만원 이하의것)	1대(국내도매가격이 20만원 이상의것)
화장품		20점(국내도매가격이 합계 20만원 이하의것)
학용품	5종(국내도매가격의 합계 10만원 이하의것)	
비데오 테이프	녹화되지 않은것 2개	녹화되지 않은걸 3개 녹화된것 5개

거짓말 탐지기 사용말라

온주, 관계법안상정

온타리오정부는 기업들이 종업원의 근무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토록 하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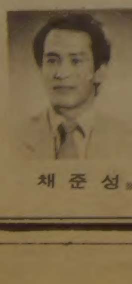
캐나다에서 거짓말탐지기 사용금지법안이 상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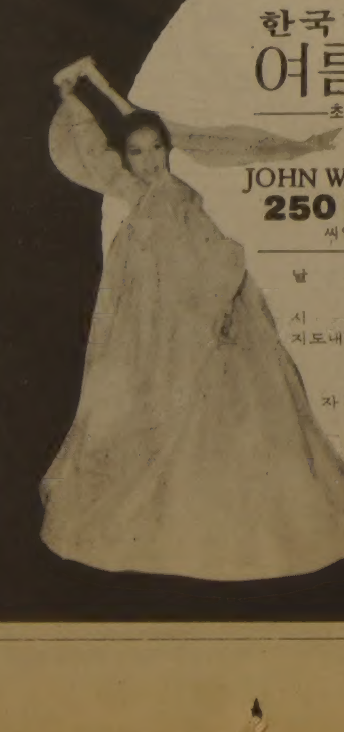
노동성의 러셀·럼지 장관은 14일 "거짓말탐지기는 과학적으로도 부정확하고 신빙성이 없으며 사생활을 침해하고 직장에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이유로 이 법안을 상정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수개월간 온타리오주 노동부에는 거짓말탐지기 때문에 해고되거나 취직이 안된 사람들의 불평이 약70여건이나 접수됐다.

미국에서는 이미 일부 주가 거짓말탐지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964-6834(B)
226-0375(R)
상업건물및 주택개발
설계, 시공, 기술상담
General Contractor
Daewha Developments Limited
대화개발주
643 Yonge St (3rd fl) Toronto Ont M4Y 1Z9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상담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전 화 : (B)(416) 497-8900
(R)(416) 633-7892 (David Chae)
* 주택·대지·상가·사업체·투자처·아파트
* 이민이나 고소득층을 위한, 투자알선.
*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인 소개
*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안내.
— 경 력 —

◆마니토바주립대학 졸업
◆슈퍼마켓 운영(위니펙)
◆무역회사 경영(뱅쿠버)
◆부동산업 종사(다년간)
※현재 온타리오부동산 브로커
채 준 성

1983학년도
김미영
한국민속무용연구소
여름학교 안내
초등반·중등반·고등반·부인반

여름학교 장소
JOHN WANLESS PUBLIC SCHOOL
250 BROOKDALE AVE
씨알한국인학교 여름학교
날 자 :7월4일-8월12일 까지 6주간 매주 월요일-금요일
시 간 :오전 9:30분 부터-3시30분까지
지도내용 :기본동작 I,II,III, 화관무, 아리랑환상곡, 부채춤, 살풀이, 장고기법 등등. (오고무는 연구반 5명에 한함)
자 격 :초·중등반……씨알학교 학생에 한함. (9:30-11:30)
고등반·부인반……기초반·중급반·연구반으로 나뉨.(12:30-3:30)
신청접수 :7월4일 오전 9시 부터 학교에서
문의전화 762-8999

확장이전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일(금) 저희 도장을 3,000 sq.ft의 넓은 장소로 이전해서 교민들과 자녀들에게 좀더 열심히 봉사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1차 왕림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임송학 올림
"튼튼한 몸에 건전한 정신"
임송학태권도장
1937 Weston Rd.
(로렌스×웨스트)
◉247-7577 (피자집 2층)

〈보수당 전당대회 참관기〉

「멀로니시대」 개막

이태은(오타와지국장)

◆ 오타와 시빅센터에서 열린 연방보수당 전당대회장. 전국에서 모여온 대의원과 선거운동원 등 15,000여명이 북새통을 이뤘다.

복합문화정책에 언급않은 멀로니
의회에서 지도력은 미지수

오타와 중심부 남북을 가로질러 유유히 흐르는 「리도」운하를 끼고, 탱스다운 팍 중앙에 자리잡은 시빅센타에서 열렸던 보수당 전당대회의 열기는 「조·클락」의 피켓이 땅에서 딩굴고 짓밟혀도 5일간의 열기는 좀체로 더위와 함께 가실 줄을 모른다.

그 여파는 현집권당인 자유당 내까지 깊숙히 파급될 것같고 맨먼저 멀로니의 출신지인 퀘벡루네 래벡 주수상이 이끄는 퀘벡당이 부르짖는 퀘벡독립이나 분리주의 제창에 일단은 쐐기를 박아준 셈이 되었다.

보수당으로서는 어림잡아도 500만불을 들여서 새로운 당수를 만들어냈다고 표현하면 가장 적절한 표현일 것같다. 오타와 시빅 실내체육관은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흡사 전쟁터라 해도 좋고 전국파티장이라 해도 되고, 서울 실내체육관에서 벌어진 전국도시대항 응원시합이라 말해도 별로 틀린 말은 아니다.

총등록된 대의원수만 해도 3,006명, 알트넷(대의원유고시 대리투표자) 2,251명, 뉴스미디어도 2,000명이 넘고 VIP 102명에다 에이젠트(선거운동원), 경비원, 스탭까지 합하면 무려 15,000여명이 5일간 온통 법석을 떨었다.

애당초 클락은 잘못된 계산으로 승산 없는 게임을 해서 처음부터 위험한 도박을 시도했다가 자승자박을 한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 지난 연초의 위니펙전당대회에서 받은 66%선의 당수신임도는 만족치는 못해도, 시간을 두고 만회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평이 있었다.

결국 클락은 이번대회 1회전부터 3회전까지 다 이겨 놓고 4회전에서 역전패를 당한 꼴이 되었고, 민주주의나라에서 한표 한표가 그 얼마나 귀중하고 가치가 있는가를 보게 되었다.

미천한 접시닦기 Job 이라도 유경험자를 찾는 의회정치국 캐나다에서 단한번도 최일선 국회의원 무대경험이 없는 멀로니가 당수가 되었다는 사실이 놀랍다.

상하의원이나 당내간부도 거치지 않고, 다만 변호사 출신으로 먼저 비지네스를 성공시켜 놓고, 성큼 보수당리더로 뛰어올라, 이다음 총선에서 승리하면 「수상관저」로 이사갈 수 있는 지름길을 차지하게 되었다.

의회는 당분간 「닐슨」이 그대로 별 변동없이 유지해 나가겠지만, 현재로선 절름발이 당수로서 의회발언권이 전혀 없는 「멀로니」로선 우선 급선무가 MP자리를 획득하는 것이다.

퀘벡주에선 발붙일 곳이 없는 그는 PC 표밭인 서쪽을 택하던가 아니면 어느 주에서 의석 1개를 양보받아내야만 한다. 자유당 내에서도 그가 빨리 의회에 진출할 길을 열어주고 또 의회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당수의 예우로 보아서 그가 출마하는 곳에 도전자를 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그의 MP 취득은 늦어도 6개월이내로, 또는 시간문제 인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클락은 왜 1,000여표 이상의 고정대의원을 확보해 놓고도 최후접전에서 불과 152표 밖에 안되는 당선라인을 뚫지 못했을까 하는것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클락이 위니펙 전당대회 후로 가능한 한 빨리 곧 또다시 전당대회를 열겠다고 자신만만하게 소리칠 때만 해도, 당내 여론은 감히 누가 그와 대결하겠느냐고 여론이 분분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정도 달라지고 정세도 시시각각으로 변하는게 정치인것 같다.

닉슨처럼 「워터게이트」사건도 없었고 또 개인적으로 큰 실수한번도 한적이 없는 그도 「팔리어먼트 프레스 갤러리」에 점찍혀 좀체로 회복을 못하다가 자연 미디어의 기사흐름에 따라 ABC무브먼트가 일어났다. 즉 (A : Anybody, B : But, C : Clark) 속칭 ABC 은어로 번지기 시작하자, 당내에서는 Stop Joe가 연발되고, 차기선거를 의식, 겨냥한 MP들은 안티클락을 탄생시켰다.

클락으로서는 자신을 가지고 선거를 통해서 당내통일과 단결을 도모하고 재신임을 받아 미디어로 부터 신뢰를 얻어 이중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오판했다. 예상외로 당수후보자가 10명이나 뛰어들었고, 막바지엔 8명의 후보로 압축되었지만, 한마디로 7:1이라는 외롭고 힘겨운 고된 싸움을 자청하여 자멸하게 되었다.

클락의 정치생활 중 스스로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않는, 도전적인 그가 5년후 또는 10년후 통런으로 다시 롤백을 하게될 수 있을지 지금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그때는 또다른 상황으로 바뀌져, 윌리암 데이비스나 로히드 등보다 더 강력한 「다크호스」가 출현할지도 모를 일이다.

아뭏든 클락의 쓰라린 패배는 당내의 보이지 않는 파벌과 사정, 개인의 인기변동등 의 요인과 함께, 직접적으로 미디어들이 반클락에 부채질을 한 것만은 부정할 수 없다.

수요일(8일)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유세는 청년당원을 포섭대상으로 호텔, 식당, 버스터미날, 기차역 픽업, 오타와 지도배투서비스등 선심공세로 시작했다.

목요일(9일) 하루종일 대회장 주변건물에서 각 후보자들이 선거유세를 벌렸다.

금요일(10일) 오후이후 정식정견발표가 시작되었는데 추첨에 의해 멀로니, 윌슨, 크로스비, 프링크톤, 클락, 갬블, 크롬비, 프레져 등으로 순서가 정해졌다.

토요일(11일) 아침부터 각주별 카커스와 함께 아침식사가 곁들여지고 정오부터 선거가 시작되자, 실내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술렁대기 시작했다. 제1차 개표결과가 발표되자 서로 자파후보가 이겼다고 함성을 지르고 만족해 했다.

2차투표에서 클락이 이긴다, 또는 멀로니다, 크로스비다, 도무지 종잡을 수 없이 유언비어가 나돌고 크롬비가 조에게 합세했다던가, 크로스비가 옛정을 생각해서 각료재무부장관 시절에 진 빚을 갚기 위해 틀림없이 클락을 밀게 된다, 아니다 멀로니는 수상될 자격이 없다는등 대의원끼리 주고 받는 뉴스는 서로 자기후보가 틀림 없이 이긴다는 식이다.

2차 투표에서 6표를 더 잃은 클락참모는 표는 떨어졌어도 퍼센트가 올랐다며 클락이 기뻐하는걸 보면 틀림없이 모종의 딜이 사전에 있어서 이길 확율이 있다고 주장했다.

개표가 발표될 때마다 밴드와 여가수 「재키」의 노래에 따라 서로 춤을 추어대다가 음악이 끝나면 또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음악이 시작되면 VIP석 주수상도 춤을 추어대고, 클락과 멀로니도 태연하고 박수치며 춤추고 응원했다.

3차투표 결과가 나오고 「크로스비」인터뷰때 제1성으로 "나는 우선 불어공부 부터 해야겠다"고 말하고 사퇴.

선거전과 투표개표는 엄정 공정하고 미디어 접근도 불허했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세번이나 검표를 했다고 한다. 다시 계산해서 매투표와 개표결과가 발표될 때 까지는 거의 2시간반정도 소요된 셈이다.

폐회전에 PC 선전필름으로 방영도 하고, 낙선된 전후보가 단상에 올라와 새당수를 축하하고 회비가 교차되는 휘날레를 장식했다.

소수민족그룹에 아주 무관심한 새로운 보수당의 출범과 함께 앞으로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나 복합문화정책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막 새로운 보수당, 새로운 캐나다를 부르짖는 「멀로니」의 선풍이 캐나다 정계와 의회에 새로운 돌풍을 몰고 올것은 분명하다.

다만, 광산촌에서 자란 「아이리쉬」출신 배경을 등에 업은 「멀로니」가 과연 동서부지역을 단합시켜 순탄대로를 걸어갈것 같지만은 않다.

벌써부터 의회에선 새당수의 연출을 잔뜩 벼르고 있어 두고두고 볼만한 구경거리가 될 것 같다.

클락의 눈물맺힌 고별사와 함께 시빅센터의 함성도 사라지고 「멀로니」의 시대와 함께, 앞으로 여야의 정치기상도를 점치기엔 너무 이른 것 같다.

한국과 캐나다 관계의 교량이 되는 신문
~토론토 한국일보~

THE KOREA TIMES is a Canadian daily in Korean language serving the Korean Canadians, Established 1974, Lawrence Kim publisher, Woon Y. Kim editor, Kwang Song ad. manager. Subscription $110/yr. $10/mo.(구독료 선금. 연 $110, 월 $1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요한화랑·기독교회관
성경 찬송가 성화 종교서적
초상화
☎: 532-7909
549 BLOOR ST.

건축 설계
DON LEE DESIGN
설계, 허가 시공, 감리
상업건물, 주택 RESTAURANT 스토어 디자인
B)362-1414
R)361-1653
이동규
인터리어 디자인

바르고 빠른 한국일보
533-2361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TV판매
678 BLOOR ST. WEST
☎ 532-0210 손병헌

호남향우회 야유회

향우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래와 같이 야유회를 갖게 되었사오니 향우 여러분께서는 모두 참석하셔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장 소 : 모닝싸이드 팍
◇일 시 : 7월 9일 토요일 오전 11시
(우천시는 연기, 차후 연락드림)
※음료수와 갈비는 준비되어 있으며 어린이를 위한 많은 경품이 마련되어 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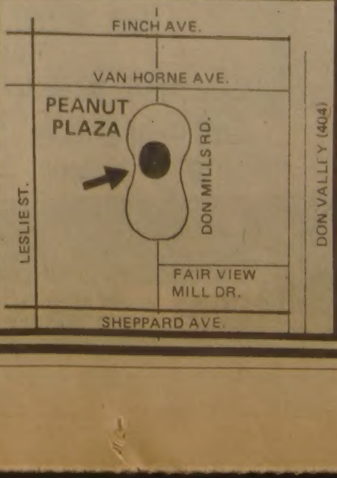
◇연락처 : 마보훈 677-1888, 김인병 431-0493, 김광철 923-8737

호남향우회
임원일동

〈한국인이 경영하는 최대의 토론토 명소〉

金川桜

□양식, 중화요리 (광동식, 사천식, 북경식)
□아늑한 연회실 완비 (80석)별실) □주류일체.
□아래층 흥겨운 쇼 매일공연 (160 석)
□스포츠중계 큰 TV 화면 (SATTE LITE)
□1,000 대 무료주차장
□각종모임 (동창회, 계, 약혼식 등) 특별우대.
□10% 특별할인 (20명 이상 단체)



Valley Village

영업시간 월—토 아침 8시—새벽 1시
일요일 및 국경일 휴업

3030 DON MILLS RD. WILLOWDALE, ONT.
PEANUT PLAZA
491-4058

외부자극에 身體가 마멸되는 심리적질병

편안한 마음가짐이 제일중요

專門醫들이 말하는 치료방법을 알아본다

스트레스

현대인의 고질병 스트레스는 극복할 수 있는가?

스트레스를 느끼면 느낄 수록 의사들은 편안한 마음을 가지라고 조언한다.

네브라스카대학의 스트레스 전문가 로버트·엘리오트 박사는 스트레스를 이기는 방법에는 세가지 규칙이 있다면서 이를 철저히 지키라고 당부한다.

▲규칙 1.사소한 일은 대수롭게 여기지 말라.

▲규칙 2.모든 일은 다 사소한 일이다.

▲규칙 3.싸울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으면 매사를 흘려보내라.

인간은 동굴속에 살때부터 스트레스를 느껴왔다.

동굴을 나가면 뜨거운 태양이 있었고 흰 잇빨을 내보이며 으르렁거리는 야수가 있어 스트레스를 느꼈다.

이런 스트레스를 인간은 요즘도 느끼고 있다.

아파트를 나서면 질주하는 차량이 있고 직장에 나가면 상관의 감독을 받아야 하고 재미없는 서류정리를 해야만 하는 스트레스를 느낀다.

깊은 명상에도 빠져봐라
모든 생각과 감정 없애고
간단한 귀절에 집중하고
자신을 알고 차분히 대처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쌓이면 고혈압등 각종 질병도 유발된다. 전문가들은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 사소한 일을 대수롭게 여기지 말라고 권유하고 있다.

가장큰 뇌세포자극은「배우자의죽음」
심장병·암·폐질환등 각종질병도 유발

이러한 스트레스는 지난 30년간 미국인의 보건과 후생문제에 심각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미가정의 협회는 환자중 3분의 2가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병으로 의사를 찾는다고 지적한다.

직장에서는 스트레스로 인해 결근이 잦아 생산성이 떨어지고 스트레스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비용은 연간 평균 5백억달러에서 7백50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더구나 이 스트레스는 심장병, 암, 폐질환, 자동차사고, 간질환 자살등 미국 6대 사망유도질환을 유발하며 최근들어 혈관경화, 당뇨, 허피스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지적되었다.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규정되고 있지 않으나 전문가들은 『외부자극에 의해 신체가 마멸되는 심리적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루이빌 대학의 죨·엘케스박사는 『오늘날은 과거와 달리 우리들의 생활방식 자체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트레스로 인한 편두통환자가 바이오·피드백 방법으로 치료 받고있다.

이러한 생활방식은 과로에서 실직이나 가정불화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매우 다양하다.

우선 대뇌의 화학메시지가 신경원을 타고 시상하부에 전달되어 CRF라는 물질을 생산한다.

이 물질의 일부가 뇌하수체로 보내져 여기서 ACTH라는 홀몬으로 바뀌어진다.

이 홀몬의 혈관을 타고 아드레날 선으로 가 혈당량을 높이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화학물질인 코티솔을 생산한다.

CRF의 다른 일부는 뇌간과 척추를 타고 아드레날 선을 자극, 아드레날린을 생산한다.

이 아드레날린이 근육과 두뇌에 연료작용을 하며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고 맥박을 빠르게 한다.

이와같은 두개의 화학반응이 다시 뇌하수체에 영향 반복작용함으로써 인간의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

스트레스를 느끼게 하는 자극도 다양하다.

성인 5천명을 대상으로 작성된 「홈즈-라히」척도에 따르면 가장 스트레스를 느끼게 하는 자극은 배우자의 죽음이다.

배우자의 죽음을 1백점으로 간주한다면 이혼은 73점 별거는 65점 징역은 63점 가까운 친척의 죽음은 63점 결혼은 50점 임신은 40점 주택구입은 31점 크리스머스는 21점 순으로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느끼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전문가들은 외부자극에 반응하는 양식에 따라 사람을 타입A와 타입B로 나누고 있다.

타입A는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일을 하려고 안달하고 사소한 일에 흥분하며 시간과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투쟁적 반응을 보이나 타입B는 그와 대조적이다.

미국심장협회와 전국 심장폐혈관연구소는 타입B보다 타입A인 사람들이 특히 심장질환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 주의를 환기했다.

스트레스를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외부환경에, 자신을 알고 차분하게 대처해가거나 강심장을 가지고 대처해 가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자신을 알고 환경에 대처해가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중에서도 오늘날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진 방법은 선험적 명상(Transcendental Meditation)과 바이오피드백(Biofeedback)이다.

TM은 초자연적 명상을 통해 근육을 이완하고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자기성찰법.

TM방법은 우선 자신의 자세를 편안하게 갖고 눈을 감으며 간단한 단어나 귀절 또는 소리에 주의를 집중하고 그외 모든 생각과 감정을 일체 배제하고 깊은 명상에 빠지는 4가지 절차를 밟는다.

이런 명상은 한번에 10~20분씩 하루에 1~2회 계속한다.

이 방법은 지난 1968년 심장병 전문가인 벤슨박사가 스트레스와 관련된 심장병환자 치료에 처음 도입, 큰 효험을 보였다.

벤슨박사는 TM방법을 썼더니 환자의 혈압과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스트레스 관련질환이 치료되었다고 보고했다.

바이오피드백 방법은 체내의 여러현상을 이해하여 스스로 자신의 심리상태와 신체적 현상을 조절 통제하는 방법이다.

뉴욕시 콜럼비아 장로교 메디칼센터 케네스·그린스팬박사는 스트레스로 인한 편두통환자에게 바이오피드백방법을 사용, 환자의 80%를 치료했다고 보고했다.

미전국에는 스트레스 전문 치료센터가 속출하고 있으며 상당히 큰 규모의 병원도 세워지고 있다.

또 전국의 유수기업들도 회사나 직장에서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을 실시, 결근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임은 물론 많은 액수의 의료비를 절약하고 있다.

스트레스 自己진단법

다음은 보스턴대학 메디칼 센터 심리학자들이 개발한 스트레스 자기진단법이다.

일상생활에서 거의 항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1점을 주고 전연 발생하지 않는 경우 5점을 준다.

그 중간은 정도에 따라 점수를 주어 모든 점수를 합한다.

총점에서 20점을 뺀 점수가 자기 점수이다.

이 점수가 30이상이면 스트레스를 느끼는 상태이고 75이상이면 아주 많이 느끼는 상태이다.

1.매일 영양가가 있는 음식을 골고루 먹되 하루에 최소 한번은 더운 음식을 먹는다.

2.일주일에 최소 4일간은 하루에 7~8시간 잔다.

3.남과 정기적으로 정을 주고 받는다.

4.서로 의지할 친척이 50마일 이내에 있다.

5.일주일에 최소 두번이상 땀이날 정도로 운동한다.

6.하루에 담배를 반갑이상 피우지 않는다.

7.일주에 술을 다섯잔 이상 마시지 않는다.

8.키에 비해 적당한 체중을 유지한다.

9.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도의 기본적인 수입이 있다.

10.종교적으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11.정기적으로 클럽이나 사회적 활동에 참여한다.

12.친구와 친지들이 많이 있다.

13.개인적 문제를 서로 상의할 친구가 있다.

14.시력, 청력, 치아등을 포함 건강상태가 양호하다.

15.화날 때나 근심이 있어도 자신의 감정을 솔직이 말할 수 있다.

16.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개인적인 문제를 상의한다.

17.일주에 재미있는 일이 최소 한가지는 있다.

18.자신의 시간을 효과적으로 계획한다.

19.하루에 커피, 홍차 또는 콜라를 3잔이상 마시지 않는다.

20.낮시간에는 비교적 자신이 조용한 시간을 갖는다.

늘어나는 여름철 야외安全事故

얼굴保護에 특히 留意해야

전문가들 지적, 항상外部에 노출돼 傷害에 취약

각종 스포츠활동을 부추기기에 충분한 초여름 날씨를 맞아 취미와 여가를 즐기기 위한 테니스나 골프, 승마 등을 즐기는 사람이 부쩍 늘고 있다.

운동을 하다보면 평소에 비해 갖가지 부상이 잦게 마련이므로 여가를 즐기기에 앞서 건강보호와 안전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테니스를 하다가 팔꿈치에 통증을 느낀다거나 축구경기에서 무릎을 다치는 경우등 다른 신체부위에는 사람들이 많은 신경을 쓰지만안면에 대해 서는 관심을 쏟지 않는다고 알려졌다.

안면성형및 스포츠상해 전문의 로날드·마스다가박사는 "얼굴은 항상 외부에 노출된 상태에 있고, 그 피부가 비교적 얇기때문에 우리 신체중 가장 연약한 부위"라고 강조하고, 특히 무지와 부주의로 인한 안면상해가 많다며 여름철 얼굴보호를 위한 몇가지 준수사항을 당부했다.

▲테니스나 배드민턴등의 라켓을 사용하는 운동을 할때 눈에 찰과상을 입어 심하면 실명이 되는수도 있으니 적절한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축구등 격렬한 운동을 할때 입에 보호대를 착용하면 턱이나 치아를 보호할수 있을 뿐 아니라 뇌진탕도 방지할수 있다.

▲야구경기에서 포수를 보는 사람은 반드시 프로텍터를 착용하고 경기에 임해야 한다.

▲운동을 하면서 껌을 씹지말것. 충격을 받으면 목에 걸려 질식할 수도 있다.

▲너무 차가운 물에서 수영을 하면 귀내부에 충혈을 일으켜 졸도익사하는 경우가 있다.

▲코피를 쏟을때 머리를 뒤로 젖히면 구토를 일으켜 좋지않다. 앞이나 옆으로 숙여 고여 부패한 피를 쏟아내는것이 좋다.

▲이빨이 부러지거나 뽑혔을 경우 소금물에 적신 깨끗한 천에 싸서 즉시 치과로 달려갈것. 경우에 따라 재이식이 가능하다.

▲운동을 할때 눈을 비비지말고 손톱을 짧게 깍아야한다.

▲안면에 생긴 작은 상처라도 무시하지 말고 즉시 전문의를 찾을것.

한편 적십자사는 미국내에 연간 전체 익사사고의 50%정도인 12만6천건이 개인풀장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그주원인으로 안전수칙에 대한 무지를 꼽았다.

여름철 익사사고의 예방을,위해 부모들은 수상안전강습과 인공호흡법을 익혀 자녀들에게 주지시켜야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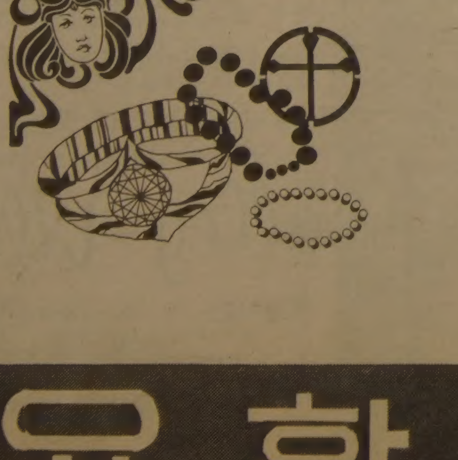
구명대나 구명풀을 갖추고 풀장주변에 높이 4피트이상의 울타리를 쳐놓고 아이들만 집에 남겨야 할 경우는 반드시 열쇠를 잠글것.

여하한 경우도 단독으로 수영하지말것.

풀장주변에 구급전화번호를 표시한 전화기를 설치하고 적절한 구급약품을 상비해 놓을것 등이 요망되고있다.

이민의 정치적 경제적 권익을 지켜주는 신문
~토론토 한국일보~

GRAND OPENING
Special Sale
와서 보시오!
깜짝 놀랄 특별 세일
저희 가게에서는 신장개업 기념으로
완전 원가로 교민 여러 분에게 특별한 기회를
마련하여 드리겠읍니다.
○보석이 비싸서 망설이던 분에게 특별한 기회!
○다이아몬드는 절대 품질보장. 국제적인 보증서 와
함께 가격에 큰 기쁨. 품질에 대 만족!



⊙특별 세일 용품⊙
⊙CRYSTAL, 은그릇
⊙이태리 화채그릇
⊙이태리 금목걸이, 금십자가, 성혜표 등
⊙금 로프목걸이
⊙진주목걸이, 귀걸이
⊙보석반지
⊙금, 은, 다이아몬드, 선물용···

요한 보석·선물센타
663 BLOOR WEST ST.
Tel: 532-8365

"拘束학생 自省하면 善處"

"전면解禁·學園대책등 밝혀라"
"斷食 뒤늦게 공개한 理由는"

國會본회의 질문·답변

국회는 14일하오 金相浹 국무총리등 관계각료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정치, 외교, 안보, 사회분야에대한 질문을했다.

이날 民韓黨의 辛相佑, 국민당의 林德圭, 議政의 高貞勳, 民正黨의 李漢東의원은질문을통해▲金泳三씨斷食사건의경위와배경▲이를 정치懸案으로 보도한 언론의 보도태도 ▲정치被規制者의 解禁▲최근의 學園사태등 최근의 정치문제와 時局에대해 각정당의견해를 밝혔다.

이날의 첫 질문자인 辛相佑의원은 『평화적 정권교체는 민주적경쟁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하는것을 전제한것이므로 民韓黨은 이를 위한 改憲의 필요성을 연구검토할것』이라고 밝히고 『국내언론이 金泳三전야당총재의단식투쟁을 보도하지않은것과 유언비어처럼에 앞서 언론통제정책을 하고있는 정부의책임을 먼저 물어야할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치규제의 전면적인 解禁을 강력히촉구한다』고 천명했다고 말했다.

辛의원은 이어 학원사태에대해 『상호경쟁의 가열로 대학인은 인간상실의과정을 급속히 겪고있다』면서그해결책으로▲졸업정원제의 철폐▲경찰병력의 학원투입 중지▲학원내에서 토론과 학문의 자유의보장▲학원내 민주화운동및 時局선언과 관련하여 해직된 교수의 복직▲학원사태와 관련하여 除籍구속된 학생들의 석방과 복교등을 제의했다.

林德圭의원은 『제5공화국이 들어선 이래 학원가의 혼돈이 빚어지는이유와 실태 그리고 데모의 악순환을 막을수 있는 대책과 구속학생수및 처리실태를 밝혀달라』고 요구하면서 『구속학생을 전부 석방, 복교시켜 반성할 기회를 줄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

그는 또 그밖에도▲정치쇄신법의 조속폐지▲선거제도와 선거법의 개선▲언론기본법폐지▲지방자치제의 조속실시▲국회법 개정등을 촉구했다.

이어 高貞勳의원은 국회가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정치법의 석방및 정치활동被規制자의 전면해제를 결의하는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국회의 時局수습결의를 제의했다.

그는 또 在野세력의 실상을 국회를 통해 국민에게 알리도록 汎野연합전선을 구축할것을 제의했다.

마지막 질문에 나선 民正黨의 李의원은 金泳三씨단식및 일부 在野人士들의 움직임에 대해 『총리는 이들 在野人士들이 이번에 빚어낸 물의를 어떻게 보며, 만약 그것이 법에 저촉되는 면이 있다면 왜 그런언동이 방치되었으며 온건한 유화책으로 다스려진 이유가 무엇인가』고 묻고 『이들 在野人士들이 治外法權的존재였는지, 해당法의 死文化를 의미하는것인지, 또 다른 특수한 이유가 있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이번사건에관련한 보도에 대해『정부당국은 처음부터 사건의 진상과 在野人士들의 舊시대적 주장을 모든국민에게 공개하여 국민스스로가 시비를 판단케할 용의는 없었으며 왜 언론이 추상적 표현으로 보도하게 되었는가』고 추궁했다.

李의원은 이밖에▲학생상호간에 불건전한 경쟁의식을 고취하고 全人교육을 저해할 우려가있는 卒業정원제의 수정·보완용의▲학원소요사태의 원인과 본질은 무엇인가등을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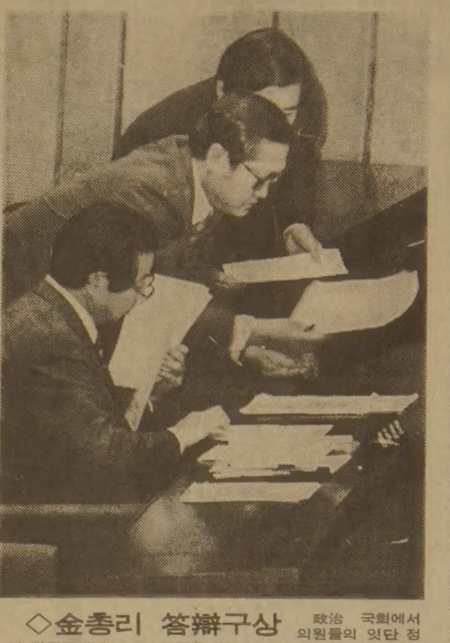
이에대해 金相浹국무총리는 답변을통해 金泳三씨 사건보도가 지연된 점에대해『이번사태가 너무 일상적이 아니어서 귀추를 좇다보니 일반에게 보도가좀늦어진것이 사실』이라며 언론의 기능, 역할을 더 활성화하자는데는 이론이 있을수없으며 정부는 언론의책임과 자유가 양립토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金총리는 또 문제학생선도와 관련 『일부구속중인 극렬학생도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勉學자세가 보일경우 장래의길을 열어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정부는 地自制실시를 위해 先行여건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있으나 시간이 좀걸릴것 같다』고밝혔다.

金총리는 『정치활동피규제자의 解禁과 정치적이유로 처벌 받은자의 復權의 실현을 위해서는 여건조성이 先行되어야하며 본인도 가능한한 최대의 노력을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李奎浩문교장관은 학원사태 관련자의 관용을 요구한 의원들의질문에 대해 『대학은 규율이 더 필요한 곳으로 규율이 확립되고 법과 학칙을 지켜야 학원소요가 극복될수있다』면서『과격한 의식화 학생을 관용과 사랑만으로 이성으로 돌아가게 할수는없다』고 말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金총리 答辯구상 政治 국회에서 의원들의 잇단 정치 질문공세에 金相浹국무총리㊧가 보좌관들과함께 답변을 준비하고있다.

民韓퇴장… 停會
"總理답변 不誠實"들어

국회는 14일하오 정치、외교、안보부문에 대한 질문에 대한 金相浹국무총리등 정부측의 답변자세와 내용이 불성실하며 미흡하다고 주장, 民韓黨의원들이 전원 퇴장함으로써 停會를 한는등 파란을 빚었다.

이날 林鍾基총무는 정부측 답변도중『이같은 정부측 답변으로는 더이상 국회議事운영을 진행할 필요가없다』며 소속의원들에게 퇴장을 지시, 民韓黨의원들은 盧泰愚내무장관 답변도중 하오5시30분 모두 퇴장했다.

11代 국회들어 본회의에서 야당의원들이 퇴장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따라 蔡汶植의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한편 民韓黨은 퇴장직후 柳致松총재주재로 긴급 확대 간부회의를, 民正黨도 간부회의를 열어 각각대책을 熱議했다.

이날 의원들의 질문에金相浹국무총리의 답변이 7분만에 끝난데대해 民韓黨의 林鍾基총무와 국민당의 林德圭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통해『총리의 답변자세와 내용은 時局수습에대한 熱意가 보이지 않을뿐아니라 지극히 미흡한 내용이었다』면서 停會를요구했다.

이들은 특히『야당의원들의 질문에 한마디도 이해할수없는 답을하는 총리는 자퇴하는것이 마땅하다』고 요청했다.

"美蘇정상회담 원칙同意"
안드로포프 충분한時間 結果보장 전제"

美 로런스市長밝혀

【워싱턴AP=聯】유리·안드로포프 소련공산당 서기장은 美캔자스州 로런스市에서 美·蘇정상회담을갖자는 제의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이제안을 내놓은 데이비드·롱거스트 로런스시장이 13일밝혔다.

롱거스트시장은 이날기자회견에서 駐美소련 대사관의 빅토르·이사코프 참사관이 미·소정상회담은 『훌륭한 구상이며 매우 유익할 것이란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안드로포프 서기장의답신을 자신에게 통보해왔다고말했다.

안드로포프서기장은 그러나 미·소정상회담은 충분한 준비가있어야하며 반드시 바람직한결과가 보장돼야 할것이라는 조건을붙였다고 롱거스트시장은 전했다.

한편 레이건 美대통령은 13일『무의미한 제스처』를 보일것이 아니라『진지한 軍縮협상』에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이라고 소련에 촉구했다.

◇ 全斗煥대통령내외가 모범원호대상자들과 악수를 나누며 격려하고있다.

"젊은世代에 護國의식을"
全대통령、모범援護대상자 격려

全斗煥대통령은 14일하오 영부인李順子여사와 함께 張鎭鎬씨(43·前4·19회장)등 이날상오 포상을 받은 모범원호대상자 33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치, 다과를 베풀고 격려했다.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 금년이 6·25동란 33년째임을 상기시키면서 『여러분들이 당시에 자기몸을 조금도 돌보지않고 민족의 생존권보장과 국민의 자유·평화를 위해 一身을 희생한 덕분으로 우리가 오늘날 생존권을 보존하고있다』고 말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한 교훈을 젊은 세대들에게 전파해 護國의식을 길러주는것은 우리의 평화통일과 국가의 百年大計를 위해서도 훌륭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또『정부는 재정형편이 허락하는한 다각적인 원호시책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특히 의료지원에 보다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히고『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1인당국민소득은 86년께 2천달러, 80년대말이면 3천달러선이 될것으로 예상되고있어 그때쯤이면 재정형편이 좋아져 여러분들에대한 지원도 훨씬 나아질것』이라고 전망했다.

少年體典 우수선수 오찬 베풀고 격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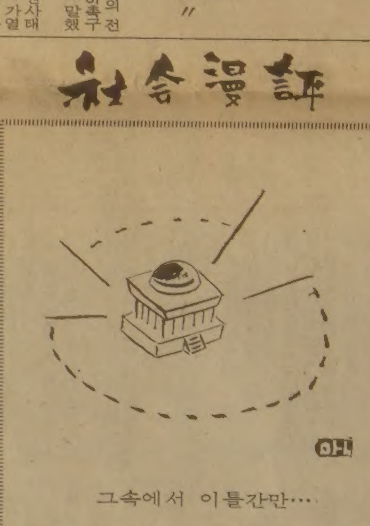
全斗煥대통령은 14일낮 영부인 李順子여사와 함께 제12회 전국소년체전 우수선수단을 접견, 오찬을 베풀고 환담했다.

民正、解禁案 반대키로
中執常任委 확정

民正黨은 14일 중앙당사에서 中執常任委를 갖고 야당측이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할 정치활동 被規制者解禁건의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

金瑢泰대변인은 회의후 『정부가 이미 1차解禁조치를 취했고 全斗煥대통령과 金相浹국무총리가 追加解禁의뜻을 거듭 밝힌이상 국회에서 건의안을 채택하는것은 의미가 없다는결론을 내렸다』면서『따라서 야당측이 요구하고있는 解禁案의 공동발의는 고려하지 않을계획』이라고 밝혔다.

社會漫評



그속에서 이틀간만…

國產車 排氣가스 美日의 10倍
騷音도 車種따라 12데시벨 높아

국산자동차의 배기가스와 소음을 규제하는 정부의 공해규제기준이 美·日등 선진국에비해 최고14·61배나 높은것으로 밝혀졌다. 또 국산자동차들은 美·日의규제기준치보다 車種에 따라서는 최고10배가까이 높은 배기가스를 배출하고 소음은 12데시벨이나 높은것으로 알려졌다. 데시벨은 가장널리 쓰이는 소음의 측정단위로 75데시벨 이상의 소음은 수면중 잠이 깰정도의 높은 소리다.

1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산차의 공해규제기준은 배기가스의 경우 ▲일산화탄소가 주행거리 킬로미터당 20g으로 美·日에 비해 각각12·38배와 9·62배▲탄화수소는 3·8g으로 美·日에 비해 14·61배와 9·74배 ▲질소화합물은 3·0g으로 美·日에 비해 5배와 6·25배나 높은것으로밝혀졌다.

탄산가스의 배출은 일본과 같이50%이하이나 미국의 25%에비해서는 배나높게규정, 규제하고있다.

한편 관계당국이 휘발유를 연료로사용하고있는 국산자동차를 대상으로 실제로 측정한 배기가스량과소음은 환경보전법에 의한규제기준에 미달하고 있지만 美·日등선진국의규제기준에는 최고10배가까이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버스·트럭·픽업도 국내기준치에는 겨우 미달하고있으나 선진국의 규제기준에 대해서는 훨씬상회하고있다.

蘇軍 페灣침공하면 유럽美軍동원 沮止
美、逆스윙戰略채택… 韓半島 중요시

【東京=聯】미국은 한반도중시라는 입장에서 이란과 페르시아灣등 西南아시아에 소련군이 침공해올경우 종래처럼 아시아의 미군병력을 빼돌린다는 이른바 스윙전략을 포기하고 유럽주둔 미군을 전면동원하는 새 전략을 나토(北大西洋條約機構)에 제시한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산께이(產經)신문은 14일 워싱턴발로 미국과 유럽군사소식통을인용, 최근 개최된 나토국방상회의에서 와인버거 美국방장관이 이같은 내용의 逆스윙전략을 제시했다고 보도하고『미국의 유럽우선을 절대적이라고 믿어왔던 西歐각국에 심각한 충격을주고있다』고 지적했다.

2회 한국教育者大賞 오늘施賞式
상오11시
世宗會館 소강당서

地平線

금주중에 두 共産巨人 中·蘇에서 각기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元首」를 선출한다. 소련서는최고회의간부회의장, 中共서는 국가主席으로 호칭될 인물이다. 西方개념으로보면 대통령중심제가 아닌 나라의 대통령格이 된다.

◆北京서는 오는18일 열리는 제6기全人大會서 국가主席을 뽑는다. 경제통으로 외교경험이 풍부한 李先念 黨정치국 상무위원이 추대될것이 거의결정적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국가主席制는문화혁명중 폐지했던것을 작년에 부활시켰다. 그러나 권한이 많이축소되어 군대를 통솔한다든가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권한도 없다. 그같은 「상징」의 선출은 국가의 정권의 안정을 의미한다. 다만 李先念의 나이가 78세고령이어서 문제다.

◆모스크바서는 16일부터 열리는 최고회의가 간부회의장을 뽑는다. 이자리도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이기는비슷하다. 하지만 크렘린의정치는 이 「상징」의 자리가 黨서기장직과겸치면 위력을 발휘한다. 실권있는 黨서기장직과 상징적 간부회의장직을 양손에 잡아야 권력의 나래를 펼수가 있다.

◆안드로포프가 지금 그럴만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그가 의장으로 선출되더라도 브레즈네프가 남긴 숙제를해결하기는 어렵다. 그숙제란 소련지도층의若年化이다. 그의 나이가 69세로 건강이좋지않다고들리며, 티호노프수상(76)그로미코외상(72)우스티노프국방상(74)등 그의 지지자들이 모두 고령이기 때문이다. 두나라가 모두 「老害」를 앓고있는 셈인데 그들 사정을 술자리 「나이打令」듣듯 할 수만은 없다.

한국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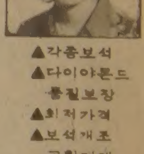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공인 경영회계사
이영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 [illegible]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영숙 보석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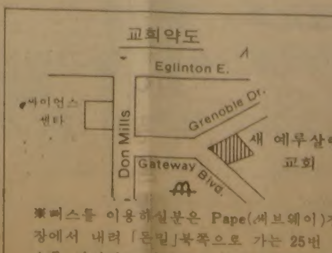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보석개조 교환매매
215 YONGE ST.
Toronto
Jewellery exchange 구내
368-7961(B)
690-5217(R)

부흥성회

□강사 · 데니스 · 굳델목사(Dennis Goodell)
□통역 · 김승환목사
□일시 · 1983년 6월19일(일) 오후8시30분
1983년 6월20일(월)~6월25일(토) 오후7시30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않는 사람을 불구하고 모두 참석하여 은혜받고 병고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사소개 : 굳델 목사님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소년시절에 나쁜 무리와 사귐으로 교회를 멀리하고, 깽의 무리와 어울려 지낸적이 있읍니다. 삶의 무가치와 허무를 느꼈으므로 자살하려는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읍니다.
곧 미해병대에 들어가 월남전에 참전하여 오른 다리를 잃을 때 까지 무수한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부터 영적인 훈련을 받았읍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를 행하는 능력의 종이며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치고 있읍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무수한 병자가 낫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있읍니다.



※버스를 이용하실분은 Pape(써브웨이)정거장에서 내려 「돈밀」북쪽으로 가는 25번 뻐스를 갈아타고 싸이언스 센타 1블럭 전에 있는 푸레밍돈·팍 샵핑 센타 앞에서 내리면 교회가 보입니다.

Flemingdon Park Pentecostal Church Building

새예루살렘교회
5 GRENOBLE DRIVE, DON MILLS, ONTARIO M3C 1C3 TEL: 429-1430
429-2685

이·시리아軍 砲擊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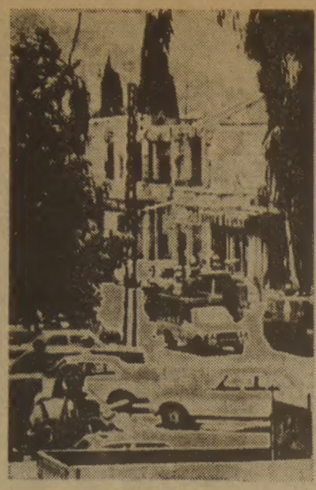
어제밤 베카平原서 탱크隊동원

【베이루트(레바논)=聯】 레바논의 베카平原에서 대치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시리아軍 탱크들이 13일밤 포격전을 벌였다고 국영 베이루트방송이 보도했다.

베이루트방송은 이날밤 정규프로를 갑자기 중단, 베카지역주재 특파원 보도로 그와같이 전하고 포격전은 이날밤 9시15분에 시작돼 10시현재까지 계속중이라고 말했다.

방송은 전투가 베카平原의 호쉬·알·하리미 인근 지역에서 벌어져 포탄의 섬광이 이평원의 밤하늘을 밝혔으며 전투는 치열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호쉬·알·하리미는 시리아국경으로부터 불과 15㎞떨어진 곳이다.



◇죄수脫走說속 탱크순찰 베이루트남쪽 56㎞떨어진 안사르 수용소에 지난12일자정 수미상의 팔레스타인죄수가 탈옥했다는보도가 나도는 가운데 이스라엘 탱크가 13일 나바티예상가지역을 순찰하고있다. 【나바티예13일AP特約=聯】

팔人등 죄수 脫獄

레바논南部 이스라엘收容所서

【베이루트AP=聯】 대부분 팔레스타인人죄수들이 수감돼있는 남부레바논의 한 이스라엘수용소에서 12일 자정 수미상의 죄수들이 탈옥을 감행했다고 레바논국영방송이 13일 보도했다.

이방송은 베이루트의 경찰소식통들을 인용, 베이루트에서 남쪽으로 56㎞떨어진 안사르의 죄수수용소 부근 지역에서 격렬한 총격소리와함께 포성이 울렸으며 화염이 솟아오르는것이 목격됐다고 전했다.

슐츠 24일 比·泰·印 등 亞洲4國巡訪

【워싱턴AP=聯】 조지·슐츠美국무장관은 오는 24일부터 필리핀,타이,인도,파키스탄등 아시아각국을 순방한다고 13일 美국무성이 발표했다.

슐츠장관은 금년초 한국,중공및 일본을 방문한 후 이번이 두번째 아시아 방문이다.

체르넨코 健在 확인

어제開幕한 黨中央委서 정책연설

【모스크바AP聯=特約】 소련 최고의 권력기관인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14일개막, 정치국원 콘스탄틴·체르넨코(71)가 당 정책연설을 함으로써 그가 소련지도부에서 거세되리라는 추측을 일소했다.

모스크바방송은 이날하오4시(한국시간) 뉴스프로에서 『소련공산당중앙위원회가 모스크바에서 전체회의를 개최, 黨의 이론정립과정책을 결정하는 작업을시작했으며 이에관한 보고는 중앙위원회서기겸 정치국원인 콘스탄틴·체르넨코에의해행해진다』고보도했다.

소련소식통들은 당서기장 안드로포프가 체르넨코의 거세를포함한 정치국개편작업을 벌이고있다고 전했으나 이방송은 안드로포프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체르넨코는 지난 4월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보이지않아 폐렴을 앓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돼왔으며 그의 건강이 악화됨에 따라 이번 중앙위원회를통해 안드로포프의 권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관측했었다.

◇83년도 토니賞 최우수여우상을 받은 나탈리아·마라로바㊨。 구두한켤레에 사인을 하고있다. 【UPI】

印尼 46세남자 불치의性無力症 비관

반둥市法院 찾아와 死刑宣告를 간청

불치의 성무력증을 비관한 46세의 한 남자가 최근 西자바 반둥시법원에 사형선고를 내려달라고 간청.

무하마드·무츠타르씨는 26년간고통받아온이무력증을 더견딜수 없어 그에게 사형선고를 내려 도와줄수 있는 판사를 찾아 법원에 왔다고 주장했다고 메르데카일자지가 11일보도.

무츠타르씨는 수많은 의사·마법사를 찾았고 신에게 기도도했으나 허사였다고. 【AP】

海外토픽

中共 수탉이 달걀낳아 性전환한듯

수탉이 달걀을 낳았다고 13일자 차이나·데일리紙가 보도했다. 이 문제의 수탉은 처음에는 거동이 이상해지다가 새벽에 홰치기를 멈추더니 급기야는 달걀하나를 낳았다는것.

성전환을 한것으로 보이는 이닭은 中共동북부지방의 한 농장에서 기르고있는데 현재 면밀한 관찰의 대상이 되고있으며 이닭이 낳은 무게 1백60g의 달걀도 관심을 모으고있다고. 【AP】

中共인구의 6·7%

中共韓人百76萬명

【홍콩=聯】 중공에 살고 있는 한국인의 정확한 숫자는 1백76만3천8백70명으로 주로 吉林省을 비롯 黑龍江省과 內蒙古자치구에 분포돼있음이 작년7월 처음 실시된 중공전국의 국세조사에서 밝혀졌다고 北京周報가 보도했다.

지난 5월31일자 北京周報는 중공에 살고있는 29개 소수민족의 개황을 설명하는 가운데 「韓族」은 인구수로 보아 11대 소수민족에 속하며 인구 1백만이 넘는 소수민족은 15개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팽팽하게 맞선 與野의 時局觀

與 "舊態依然한선동 아직도…"

野 "당연한 民主化의 요구다"

그동안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여러가지 정치문제들을 놓고 열띤 논쟁을 벌인 14일의 국회본회의 對정부질문은 한마디로 오늘의 時局을 보는 與野의 견해차이가 너무 벌어져있다는 것을 실감케한다.

그러나 정치국회의 本章에서 나타난 異見의 幅이 너무나 크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수 없고 엄청난 見解差를 어떻게 조정하여 타협점을 찾느냐는것은 앞으로 국회와 각정당이 풀어나가야할 대화정치의 숙제이기도하다.

먼저 金泳三씨의 斷食과 일부 在野인사들의 최근움직임에 대해 與黨인 民正黨을 대표한 李漢東의원은 「似而非정치인의 舊態依然한 선동정치」라고 규탄하면서 정부가 왜 그들을 依法처리하지않고 내버려두었느냐고 나무랐다.

그러나 民韓黨의 대표走者인 辛相佑의원은「당연한 民主化의 요구」라고 적극 찬동하고 나섰다。異例的으로 질문의 절반이상을 斷食과 관련된 정치문제에할애한 民正黨은「여전히 舊態依然한 政治觀으로 제5공화국의 正當性과 正統性을 부정함으로써 국민적 화합과 새로운 정치상의확립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를자아내고있다」면서「獨善과 我執」이라고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그러나 民韓黨은『최근의 일련의 사태는 규격화된 정치현실과 執權세력의 獨善과 민주주의의 전망이 암담한데서오는 항의의 표시』라고 주장하면서『金泳三씨의 民主化요구는 표현상強度의차이는있을지언정 우리당이계속하여주장해온 내용이며지금도계속되고있는객관적사실』이라고말했다。그런데金씨의斷食사건을「정치현안」이니「정치관심사」등으로 한동안 언론에 보도된데 대해서는 與野가 모두 개탄하고 있다.

民正黨의 李의원은「정당국은 처음부터 사건진상을 공개하여 국민들이 是非를 판단케했어야 하지 않았느냐」면서 이번 사건으로 빚어진 유언비어의 유포와 對정부不信문제를 제기했다.

야당측에서도『국내언론이 前야당총재의 처절한투쟁을 한줄도 보도하지못한 것은 언론의 자율적기능의 소산인가 아니면 정부의언론정책때문인가』(辛相佑의원)『국민의입과귀와눈을가리고 누구를위한 정치를한단말인가』(林德圭의원·국민)고 같은 론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정치解禁문제에 대해서는 民正黨이 규제당시의 불가피성과 현실與件을들어 반대의 논리를 전개한반면 民韓등 야당에서는국민화합을위해 하루속히 풀어야한다는 평소의주장을 되풀이했다.

與黨측은『被규제자들은 과거 정치를 反省해야함에도 최근 일부 在野인사들의 언동에는 이러한 자숙과 反省의 빛이 보이지않고 있다』고 비판한반면야당은『정치규제의 존속은 정치적 탄압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제5공화국의 出帆정신에도 어긋난다』고 전면 解禁을 주장했다. 최근의 학원데모사태에 대해서는 모두 졸업정원제와결부시켜 우려를 표명했는데 民正黨은『소요학생의 구속으로 조절될수 있느냐』고 근본대책을 물으면서졸업정원제의 수정보완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야당은『학원사태에대한 강경탄압은 연행 체포 구속의 악순환만을 되풀이할뿐』이라면서 제적 구속된 학생의 복교와 석방등 관용조치를 요구했다.

이번에 모습을드리낸 在野라는 존재의인식과 아울러 在野와 국회,각 정당과의 관계설정에 대해서도 與野는 보는눈이 약간 다르다.

民韓黨은 金씨의 民主化주장을 받아들여 국회에서 이를 반영함으로써 在野와의 接木을 실현한셈이다.

그러나 民正黨은 場外의 문제를 의사당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주장이나『지금은 임기응변으로 체면유지를 생각할때가 아니다』고 在野와의 接木에 못마땅해하면서 제5공화국에 참여하던 당시의 소신을되살려 스스로 택한길을 걸어갈것을「참여한 야당」에 당부하고있다.

民正黨은 평화적 정권교체에 대해 언급하지않고있으나 民韓黨과 국민당에서는 평화적 정권교체로 갈수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점을 역설했다.

특히 民韓黨은『국민은 집권연장을 위한 改憲은반대하지만 국민이 원하는정부를 자유스럽게 선택할수 있게하는 개헌까지를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改憲의 검토를 천명했다.

이같이 與野의 엇갈린時局觀에대해 金相浹국무총리는 13일 國政보고를 바탕으로 부분적詳述을 하는 線으로 맞섰다.

金총리는 이른바 疎外階層의,즉 解禁과 復權에대해서는 先與件조과 참여폭확대를 강조하면서 언론문제는 南北對時상황을 들어 책임과 자유의 兩立을, 구속 除籍학생에대해서는 先반성을 내세웠다。李奎浩문교장관역시 졸업정원제가 일부 단점은있으나 補完 계속추진한다는점을 分명히하면서 이는 과거 野黨의 黨策중의하나였음을 들어 폐지주장을 反駁하기도했다.

아뭏든 14일 정치관계질문은 與野 그리고 정부의 정치현실과 時局을 보는눈이 얼마나 거리가있느냐가 浮刻됐다는데 의의가있다.

일단 견해가 확연히 드러난만큼 앞으로의과제는 與野가 얼마만큼 政治를 발揮,對話와 조정으로 時局處方을 마련하고 정부여시 政衡의 주장을 얼마나 受容하느냐가 숙제로 남게됐다.

이러한 문제해결에 대한 정부·與野의 아량과절충은 곧 時局안정여부에 그대로 직결될게 틀림없다. 【黃昭雄기자】

政局往來

流言蜚語를 처벌한다면 그런 환경만든 政策에 責任돌려야

지역발전기여에 감사

全斗煥대통령은 14일하오 청와대에서 모범원호대상자들과 다과를 함께 들며『여러분들은 몸이 성치 않거나 생활이 넉넉지 못한 형편에 있음에도 어려운사람들을 돌봐주고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해준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치하.

全대통령은 또『금년은 6·25동란 33년째를 맞는 해인데, 6·25를 알고 있는 젊은 학생들이과연 몇%나 될것인가』라고 反問하면서 6·25의 교훈을 강조.

全대통령은 약 20분동안 환담을 끝낸뒤 영부인 李順子여사와 함께 壇下로 내려와 앞줄에 앉은 모범원호대상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격려.

全대통령은 이에 앞서 제12회 소년체전 우수선수단과 오찬을함께 하는 자리에서「연습은 사람을 속이지 않으므로 땀을 많이 흘린 선수에게는 그만큼의 좋은 결과가 따르게 마련」이라며 체육선수들의 강도높은 훈련을 당부했다.

攻駁·叱咤·慨嘆속 熱氣

對政부질문 첫날인 14일 국회본회의에서 與野黨의 대표打者들은 저마다 金泳三씨斷食,解禁,학원사태등 정치현안과 時局觀표명과 함께 叱咤함으로써 議事堂은 정치熱氣로 가득.

첫 登壇한 民韓黨의 辛相佑의원은 정치被규제자의 全面解禁과 관련,『정치규제조치의 存續은정치적人權유린이며 정치적동맥경지조치』라고 주장하면서『통행금지철폐를 통해 국민의 民主시민적양식을 확인한 이상 더 이상 정치인이나 국민을 禁治產者로만들이유가 없다』고 공박.

그는 또 언론문제와 관련『파키스탄변호사들의 민주회복을 위한 단식투쟁은 4단기사로 보도하면서도 前野黨총재의 처절한투쟁을 단한줄도 보도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뒤『유언비어를 처벌한다면 유언비어를 창출할수 밖에 없게 만든 언론통제정책에 먼저 책임을물어야한다』고주장했다.

林德圭의원(국민)은 질문의 약절반정도를 學園사태와 언론문제에 집중,『요즈음은 매일매일 대학생들의 구속기사가 없는날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라며『金총리는 애국적 차원에서 良心의 소리로 답변해달라』고 촉구.

高貞勳의원(新政)은『정치적조치는 時間表를 따르는것보다는 정치情況에따라 결정해야 한다』면서『기왕에 줄바에는 받는사람이나 관람객들도 감격할만큼 멋지게 줘야한다』면서 정치적결단을 역설.

끝으로 李漢東의원(民正)은 질문의 70%정도를 金泳三전총재의 斷食과 이와관련한일부在野人士들의 動態및 정부의 언론시책에할애.

그는『제5공화국 출범과정에서 시대정치인에 대한 정치활동의 금지조치를 취해야했던 사실을전국민과 더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그러나 그것은 비유컨대 오염된 병균이 더이상 전신에 만연되지 못하도록 아픔을참고 자기살의 일부를 잠시 동여매놓고 치료를 하는것과 같은 조치였다』고 신랄하게비난.

日常的인것 아니어서

벽두부터 긴장과 흥분이감도는 가운데 진행된 14일 국회본회의는 몇가지「記錄」을 수립.

우선 이날 民韓黨의 辛相佑의원이 40여분간 첫질문을 하는동안 與野의석에서 단한명의 離席이 없었던점이 첫번째기록.

두번째 기록은 前半질문에나선 辛부총재와 국민당의 林德圭의원이 허용된 풀·타임(40분)을모두이용, 모두 80분간 열띤 질문을 벌인데 반해 정부측은 金相浹총리(7분) 李奎浩문교장관(3분)이나서 단10분만에답변을끝낸것.

이날 답변에서 金총리는「金泳三씨의 斷食사건 보도가 늦어진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金씨의 단식사건 보도는 사태가 너무 日常的인 것이 아니어서 그귀추를 좇다보니 일반에게 알려지는것이 조금 늦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부터는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평범하게 답변하여 여야의석으로부터 웃음을 일으켰고 「引責 사퇴용의는 없는가」라는 추궁에『본인에대한 진지한 충고와 경고로 받아들이겠다』고 응시하기도.

답변不實로 停會소동

국회는 14일 후반 2명의 의원의 질문이 끝나자 야당의원들이 金총리의 답변이 불성실하다고 공격하고나서 한동안 停會를하는 등 한바탕 소란.

이날 林鍾基民韓黨총무는 흥분된 표정으로 의사진행발언을얻어『어제의 국정보고가 時局수습을 기대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는데 오늘 총리의 답변은 더욱 기대할수 없는 처지에 이른것같다』면서『이제 총리가 自退하든지 우리야당의 시국수습노력에 협조하든지 해야할것』이라고 정회를 요구.

社說

中共經濟를 눈여겨 보자

中共경제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크다。地理的으로 이웃하고 있을뿐 아니라 人口 10억을 거느린 한 공산국의 경제 추이가 국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수없기 때문이다。

毛澤東死後 狂亂의 文化大革命소동이 자취를 감춘 오늘날 中共지도자들이 힘을 기울이는 分野의 하나가 경제임은 잘 알려진 일이다。

지난 6일개막된 제6기 全國人民代表 회의에서 中共要人들은 지난81년부터 2천년까지의 20년간에 산업생산을 4배 (연평균7·3%)로 늘리는 旣定계획을 고수하면서 그간에 노출된 문제점들에대하여 과감한 교정조치를 취할것임을 밝혔다。

알려진바 노출된 문제점으로서는① 과도한 자본재(중공업)투자때문에 다른 주요사업계획을 위한 재원이 不足하게 되었다는것 ②경영상 잘못으로 人的·재정적 및 物的자원의 낭비가심하다는것 ③낭비적투자와 경제범죄때문에 稅收不足을 초래하여 차질을 빚고 있다는 사실이 지적되었다。

이를 바로잡기위해서는 경제의 中央集權을 강화하여 지방행정기관의자금남용을 막고 稅收를 늘리며,비생산적인 기업등 不實기업을 정리한다는 것이 강조되었다。중공업에의 투자를 적정수준으로 억제하면서 현재 애로부문인 에너지와 교통통신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는것이 천명되었다。

또 기업관리체제를 개선하여 중앙의 통제를 강화하고 능률을 최대한으로 늘리는 동시에 새로운 稅制등으로 기업이익의 큰 부분을 정부가 흡수하고 나머지를 기업자체와 개인에게 귀속시킨다는것이 제시된해결방안이다。

中共경제의 공산주의식체제는 우리와같은 자유시장경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그러나 과도한 중공업투자가 야기하는 인플레이션갭과 에너지·수송부문의 애로는 20여년전부터 高成長경험을 쌓은 우리에게도 생소한 것은 아니다。中共식 해결방안이 앞으로 어떠한 成果를 거둘것인지 눈여겨 보고 싶다。

널리 알려진대로 中共의 경제는 毛澤東死後 큰변혁을 거쳤다。이른바走資派니 修正主義者니하여 숙청대상이던 세력들이집권한이래,비록 제한된 범위이기는 하지만, 共產制생산·분배체제에 理念的인 수정을 가하여,中小규모의 私有·私경영이 용인되었으며 상당한 정도로 門戶를 개방하여 西方諸國자본과 기술을 서둘러 도입하고 있다。이것은 개인의 이윤동기와 私有재산에의 熱望을 그만큼 충족시키면서 국제협력체제를 구축한점에서 역사적으로 특기할 대전환이라 할만하다。

그결과 中共경제는 문제점을 內包한채 상당한 成長을 이룩하였다。

지난 9일 무역협회가 조사한바에따르면 우리 수출상품으로서 中共과 경쟁관계에 있는것은 81년의 47%에서 작년에는 51%로 늘어났고 다시 최근에는 70%로 급격히 증가했다。수출은 경제력의 하나의 척도가 되는것이니 이와같은 통계지수는 최근의 中共경제의 발전상을 나타내는것이라고 보아야할것이다。그때문에 수출시장에서 우리가 받는 영향이 점차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으니, 우리에게 이에 대처하는 一大분발을 촉구하는 사실임을 지적하는 바이다。

文化財를 아끼는 根本 뜻

一石村洞 古墳公園소식을 반기며

「한국인」은 누구일까?이런 물음에대답을 주저하는 사람은 드물것이 확실하다。한국인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다 같은 한국인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이유는 그렇게 분명한것이 아니다。그런 이유중에서도 가장 큰 핵심은 아마도 우리가 이땅에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하나의 운명공동체로서의 체험을 같이 했다는 사실이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문화재를 보존하고,사적지를 지켜야되는 현실적인 이유다。문화재와 사적지는 이런 민족적체험의 증인이기 때문이다。「문화재보호법」을 만든 근본적인 정신이 거기에 있다。

허겁지겁 건설공사를 벌였던 70년대에, 숱한 문화재와 사적지가상처를 입었던 기억을,그래서 우리는 가슴아프게 간직한다。우리가 한나라를 이룩하는데 빼놓을수없는 기본 요건의 하나에 상처를 주었기때문이다。

그런 가슴아픈 잘못이 지금에도 저질러지고 있다는 것은 더욱 가슴아픈 일이 아닐수 없다。지금 문제되고 있는것은 서울 근교 한강유역에 흩어져 있는 백제고분들이다。

이지역의 백제고분들은 법에 따라 이미「사적」으로 지정됐지만,지난70년대 무참하게 불도저에 밀려났다。석촌동·가락동·방이동 일대에는 1915년만해도 23기의 돌무지 무덤과,66기의 봉토분이 확인됐었다。그러나 72~74년 강남에 새시가지를 만들때 방이동에 석실고분 6기,석촌동에 돌무지무덤 3기만을 보존키로 했었다。

일찌기 동북아시아를 무대로 강대한 문명사회를 이뤘던 백제왕국의 흔적이 바로 이지역의 고분들이다。우리는 이들이 있음으로써 「한국인」의 거대한 발자취를 자랑할 수있는 것이다。

이중에서도 돌무지 무덤인 3호분은 고구려 광개토왕능비로 이름난「장군총」과 맞먹거나, 약간 큰듯한 기념물이다。그것이 최근 또다시 무책임한 도로공사때문에 한 모서리가 헐렸다고한다。

사적을 보존해야된다는 양식도,법을어겨선 안된다는 준법정신도 불도저의 힘앞에 무너진 꼴이다。「문화재보호법」은 이 불도저앞에死文化할판이었다。

뒤늦게나마 서울시와 문화재관리국은 이지역의 고분들을 유적공원으로 꾸미기로 했다한다 (한국일보14일자 10면) 。양식을 되찾고,법의 권위를 유지할 수있다는 뜻에서,「외양간」이라도 고치는 것은 잘하는일이다。다만 이런잘못이 전국 어디선지 또 있을수도있음을 경계할 것이다。

하늘을 보고、땅을 보고

가령 地球의 지름을 1㎝라고 하자。태양은 지름이 1m,地球로부터의 거리는 1백m 가량된다。

같은 척도로,지름 4㎝크기인 海王星은 태양으로부터 3㎞,지름 4㎜인 冥王星은 5㎞떨어진 거리에 있다。

이것이 太陽系의 바깥 한계다。빛의 속도로 5시간,시속 1천㎞의 제트機로 1백23년 걸리는 거리다。

이 넓은 空間을,미국의 무인우주선 파이어니어10호는 11년 3개월11일 걸려 가로질렀다。그리고 太陽系를 벗어나 가없는 우주 길을 떠났다。정확히는 1983년 6월13일밤 9시一。

아마 이 日時는,사람의 손끝이 처음으로 太陽系밖,空想科學소설의 영역까지뻗은 날로 기억될 것이다。

무게 2백58㎏인 파이어니어 (開拓者) 는 사람이 太陽系 밖으로 내보낸 첫開拓者이자傳令이다。그속에는 太陽系와 地球,사람의 존재를 알리는 그림板이 붙어 있다。그메시지를 지닌채,파이어니어는 앞으로 10년간 地球를 향해 송신을 거듭한다。

과학자들에의하면 몇10억년뒤 地球는 태양속에 빨려들어 소멸된다。그때가서도 파이어니어의 여행은 끝나지 않는다。우주는 그렇게 넓다。끝이 없다。

이 기나 긴 旅路 어디에선가 파이어니어는 E·T(地球外生命)를 만날지 모른다。그 때 파이어니어를 쏘아보낸 사람들,또 地球는 어찌 되어 있을까。

참 까마득한 얘기다。

우주는 너무 크고 地球는 너무 작다。그렇면적의 2천 3백분의 1 인땅덩어리의,또 반쪽에 매달려,우리는 살고 있다。남이 하늘을 볼때,발밑을 보면서一。

—구인광고—

영문 국문 타이프를 치고 전화로 영어 회화를 할 수 있으며 교회 비서일을 신앙적 책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
자필 이력서 1통 명함판 사진을 동봉하여 6월30일 까지 다음 주소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사 후 면접통지 하겠읍니다.

임마누엘 연합교회
(IMMANUEL UNITED CHURCH
63 DUNFLAINE AVE
TOR ONT M5M 2S2

금주의 김치메뉴

□통김치(큰병) 4L $10.50
□풋배추김치(큰병) 4L $10.50
□섞배기김치(큰병)4L $10.50

큰 병 $1.50
중간병 $1.00
후에 반환받읍니다.

(금주의 별미)

□오이소백이(큰병) 4L $12.00
□물김치(큰병) 4L $7.00
□햇무우깍두기(중간병) (중간병) 2L $7.00
□무우말랭이장아찌 작은 통 $3 00

*배달시간 월요일~금요일 오후1시에서 밤8시
*주문전화 ☎833-6913(공장직통) ☎248-6389(저녁) ☎636-3071(저녁)

김치카나다주식회사

이민변호사
John D. McCrie
and
Edward J. Houlihan
개 업
HOULIHAN AND McCRIE
사무실
영어로 번역 가능함
(416) 961-0353
Suite 1
14 Isabella Street
Toronto, Ontario

알림

바둑펜들에게 알립니다.
금번 불초 최규찬이가 한국기원을 인수함에 있어 종전과 같이 애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써비스 면을 개선하고 노인들에게는 특별히 우대할 계획입니다. 계속 애호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한국기원
653A BLOOR ST. W.
전화 533—0168 최규찬

HAPPY VALLEY

월요일은 휴업
화요일 — 일요일까지
오전 11시 — 오후 11시까지

○진짜 중국음식 (광동식)
○깨끗하고 아늑한 분위기
○파킹장 무료
○FULLY 술 면허 있음

◉ 한번 오시면 계속 오시게 됩니다.
저렴한 스페샬 점심
화 — 금요일 오전 11:30 — 오후 3:00
177 CHURCH ST(퀸 북쪽×처치
☎ 363—0084

결혼예물 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誹謗자체로 有罪성립"

大法院 국가 冒瀆罪에 첫 判例

외국記者에 유인물배포행위 無罪선고 還送

외국인을 상대로 우리나라와 정부를 국내외에서 비방, 모욕하는 내국인을 처벌할 목적으로 지난75년3월 논란끝에 현법에 신설됐던 국가모독죄에 관한 첫 판례가 제정8년만에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재판장 俞泰興대법원장, 주심全尙錫대법원판사)는 14일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상임총무 金喆基피고인(27·인천山谷洞137)에 대한 국가모독죄위반사건상고심 선고공판에서 金피고인에게 무죄를선고한 원심을깨고 사건을 다시 재판하도록 서울형사지법합의부로 되돌려보냈다。

金피고인은 지난해 7월23일 하오4시께 서울鍾路區蓮池洞 협의회사무실에서 일본共同통신의 黑田勝弘씨등 내외신기자 10여명을초청, 「콘트롤데이타사태에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제목의 유인물3백장을 배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金피고인은 이 유인물에서『정부가 콘트롤데이타사태에대해 수수방관내지 동조지원하고 있고 근로자와 국민에게는 모든강제를 동원하면서 미국의 일개다국적기업에는 나약한 태도를 취하는등 외세에의존하고있다』는 정부비방및 다국적기업에 대한 비난, 미국정부에 대한 경고, 현정부의 퇴진등을 요구하는내용을 담았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내국인이 국내에서 외국인을 이용해 정부당국을 비방하여 대한민국의 위신을 해할우려가 있게했다』고 밝히고 국가모독죄를 첫 적용, 징역3년을 구형했었다。

이에대해 1심인 서울형사지법 魯元旭판사는『피고인 스스로 현정부가 외세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방하면서 국내문제에 관해 외국기자들을 상대로 정부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용납될수 없다』고 밝히고 징역1년6월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2심인 서울형사지법항소3부(재판장 辛根부장판사)는 지난 2월11일『국가모독죄가 성립하려면 내국인이 외국인을 이용하는 행위와 이용당한 외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을 비방하는행위가 있어야한다』고 전제, 『피고인이 외국기자에게 정부비방 유인물을 배포한행위는 인정되나 외국기자들이 이에 이용되어 국외에나가 대한민국을 비방하여 국가의안전이나 위신을 해치거나해칠우려가있는 행위를 했다고볼증거가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국가모독죄를 규정한 헌법조항의 취지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외국인을 교사방조해 이 외국인으로하여금 국외에나가 대한민국을 비방하도록 하는데까지 이르지않고 다만 국내외에서를 막론하고 외국인을 상대로 대한민국을 비방함으로써 족하다』고 밝히고 『따라서 국가모독죄는 위태범이므로 내국인이 외국인을 상대로 국가를 비방할때 이미 모독행위는 성립된다』고 원심파기 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소수의견을편 李一珪대법원판사는 원심과같은 취지로『국가 모독죄의 취지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외국인을 이용, 그 외국인이 국외에나가 대한민국을 비방하게했을때 내국인을 처벌하자는 것이므로 외국인이 외국에 나가 국가모독행위를 실행한바가없는 이사건경우는 처벌할수 없다』고 밝혔다。

역시 소수의견을편 李會昌대법원판사도『국가모독죄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외국인을 이용해 그외국인이 국내에서 대한민국을 모독했을 경우에 내국인을 처벌하자는 취지로서 이사건처럼 유인물 배포만으로는『국가모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가모독죄는 공화당정권때인 지난 75년3월11일 공화당이 단독소집한 임시국회에서 발의됐으며 당시 야당인 신민당은 이법이일부在野및 야당인사등 특정인을 대상으로하고 국제고립을 자초하며 언론자유를 근본적으로 억압하는 악법으로규정, 적극저지키로 결의했었으나 결국 그달19일 공화당의원들만이 본회의장아닌 의원휴게실에서 본회의를열고 날치기 통과시켰었다。

관계조항은 다음과같다。

형법 제104조의2(국가모독)①내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헌법기관을 모욕또는비방하여 대한민국의 안전이익또는위신을 해치거나 해할우려가 있게한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내국인이 국내에서 외국인이용 전항과같은 행위를 한때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農藥원료·메틸알콜 섞어 콩나물 成長촉진제 製造

大邱·釜山·서울등지에 팔아온 一黨 둘拘束

【大邱】대구지검형사3부 金玉哲검사는 14일 외국에서 수입해온 농약원료를 메틸알콜에 용해해 콩나물성장촉진제를 제조, 대구·부산·서울등 대도시에있는 2백여개의 콩나물공장에 1억6천여만원어치를 팔아온 朴相運씨(36·대구공업사 대표·大邱市北區魯院3洞614)등 2명을 농약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주범 朴洛基씨(52·미화사대표·大邱市北區伏賢洞320의1)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달아난주범 朴씨는 지난81년7월10일부터 지난2월말까지 일본도오쿄에 있는 코진상사로부터 본말로된 농약원재6BA38㎏을 1천7백만원에 수입, 자기집에서 메틸알콜1백㏄에 이를0·39씩 넣어 용해시키는 방법으로 그동안 용량1백9짜리 13만여병을(싯가1억6천9백여만원)불법으로 제조해 병당1천3백원에 河씨등 관매책을통해 대구·부산·서울등지에있는 콩나물 재배공장에 콩나물 성장촉진제로 판매해왔다는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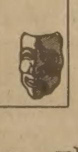
朴씨등이 판매해온 콩나물 성장촉진제를 시중 콩나물생산공장들이 콩1가마니에 1백㏄짜리 1병을 사용해오고 있는것으로 밝혀졌는데 이콩나물 성장촉진제를 사용할 경우 콩나물의 성장이 물로만 재배하는것 보다 2~3배나빠르며 콩나물이 굵고 미끈미끈하며 보기가 좋고 잔뿌리가 거의 생기지 않는다。

또嶺南大약학대관계자는 메틸알콜(CH_3OH)은 증기만 심하게 마실 경우에도 두통과 함께 구토증세를 일으키고 1회에10~20㎖를 먹는 경우에는 시신경이 마비돼 실명하게되며 치사량은 40㎖이상이라고 말했다。【聯合】

탈바꿈

鍾路경찰서 고용원 裵仁壽씨

"警察도 시민水準도 달라지겠지요"



서울鍾路경찰서가 15일 새청사의 준공식을 갖는다。 새청사는지하1층, 지상5층에 연건평 2천1백66평으로 회백색。우중충한옛청사와는 달리 문화단체의 건물처럼 산뜻해 기분이 새로와진다。

鍾路경찰서 고용원 裵仁壽씨(65·사진)는 자신이 대저택을 마련해 입주하는듯 기쁨에 차있다。 출근시간도 빨라지고 비질하고 화초에 물을주는 손길이 가볍기만 하다。

6·25의 초연속에서부터 24명의 서장을 바꿔가며 32년간을 몸담아왔으니 그럴만도 하다。

裵씨가 鍾路경찰서와 인연을맺은것은 鍾路서가 신신백화점뒤에 있을때 임시고용원으로들어간 51년부터다。 그때 첫출근한 이래、종로서가 57년 鍾路區慶雲洞90의 8 현위치로 옮겨 오늘에 이르기까지 청사를 쓸고닦고 전기배선、하수구수리등과 잡일을 변함없이 해왔다。

그덕분에 경찰의 일에 약방의 감초처럼 내무부장관、시경국장등의 표창을받았고、이를 소중히 간직하고있다。 지난해 정년퇴직을했지만 경찰서의 배려로 변함없이 일하고 있다。

그동안 崔圭植서장이 무장공비사건으로 순직하는 아픔을 맛보면서도 경찰의 변화는 눈여겨 지켜보았다。「나리」소리를 들으며 군림하던 경찰에서 국가의 보위와 국민의 안녕질서를 걱정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변화는 차라리 그의 일생이라고도 할만했다。

아직도 옛타성을 버리지못하는 사람들이 없는것은 아니겠으나 사회가 다변함에 따라 경찰도 하나하나 옛탈을 벗어갔다。

裵씨는 새청사의 준공이 하루하루 가까와질때마다 사람이나 경찰이나「옛날」에 안주하려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옛청사에선 청소·배선·수리등을 혼자 다했으나 새청사는 청소도 진공소제기로 하고 분야마다 보일러공등 전문가가 배치됐다。 裵씨차지는 청소와 물주는 것뿐이다。

『해방2세대가경찰간부가 될때쯤 경찰도、시민의 수준도 더욱 나아지겠지요』【宋大洙기자】

連陸橋공사 80%진척

珍島가 다가온다

「울돌목」에 橋脚없는 다리로

길이 4百84m 世界세번째 규모

【珍島이동사회부=丁熹·金宗來기자】진도개(犬)로 유명한 전남제일의섬 珍島와 뭍을 연결하는 연륙교(連陸橋) 공사가 완공단계로 접어들었다。

珍島郡의 연륙화는 현지주민은 물론 전남도의 숙원사업으로 14일현재 공정이 80%의 진척을보이고있는데 내년말께 개통되면珍島의 산업및 도시발전은물론 관광수입도 대폭늘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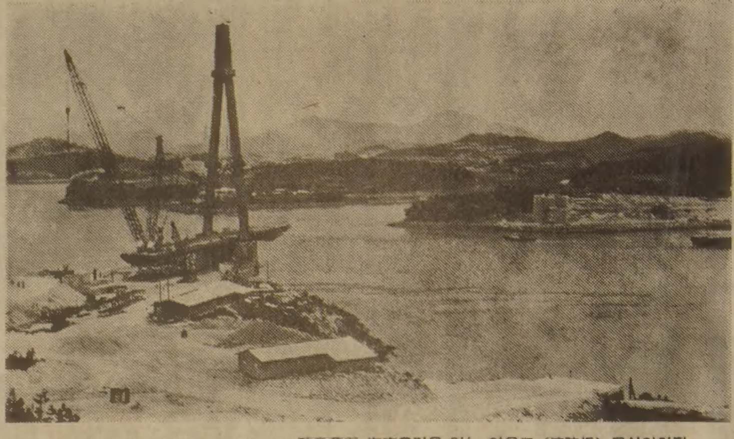
특히 이다리는 국내최초로 초현대식공법인 사장교(斜張橋)로 건설되는데다가 위치마저 충무공 李舜臣 장군의 대첩지인 울돌목이어서 다리자체만으로도 벌써 일급관광명승지가될 전망이다。

연육교가 세워지는곳은 전남珍島郡 郡內面 鹿津과 海南郡 門內面 右水營사이의 바다인「울돌목」。폭 2백95m인 울돌목은 王亂당시인 1597년 9월16일 忠武公李舜臣장군이 단 12척의 배로 왜군10만과배 5백여척을 격파, 수장시킨 鳴梁대첩의 현장이다。

총공사비 1백37억(내자 1백4억·외자33억원)이투입돼 지난81년4월에 착공된 이 연륙교공사는 사장교공법을 활용하고있는데 이 사장교공법은 교각을세우기 어려운 바다나 철도위를지나는 교량을 건설할때 사용되는 것으로 양쪽육지에서 차례로 강판을놓아감으로써 교각이없으며 선박의 통행도 자유로운것이특징。

지난55년 스웨덴에서 처음으로 개발돼 서독·프랑스등지에 전파됐고 일본에는 지난63년부터 도입, 현재 전세계에 29개의 사장교가있다。

이다리가 완공되면 길이가 4백84m(폭11·2m)로서 세계제3위를 기록하게된다。



◇이젠 물이되는 섬… 珍島⑥와 海南⑥간을 잇는 연육교(連陸橋) 공사의현장。 李忠武公의 전적지「울돌목」에 세워지는 이다리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사장교(斜張橋)가된다。【權甫擊기자찍음】

이다리는 또 8만3천여珍島군민들의 긴숙원을 한꺼번에 풀어주는 역할을 하게된다。

지금까지 珍島군민들이 뭍으로나가려면▲珍島邑에서 碧波津까지 버스로1시간, 또 碧波津에서 도선(渡船)으로 20분을타고 우리나라남단인 海南郡黃山面에도착, 이곳에서 버스로나가는 방법과▲珍島에서 배로2시간이상을 걸려 木浦에 도착, 木浦에서 다시 바꿔타고나가는 불편함이 계속돼왔다。

이와함께 珍島남쪽 臨淮面彭木里를 관통하는 40m의 기존도로를 2차선으로 대폭확장하는 포장공사도 진행되고있다。

珍島군은 三別抄의 王都였던 龍藏산성, 南桃석성등 각종유적지와 진도개, 구기자차, 미역등 각종특산물의 보존과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있다。

또 珍島특산인 홍주(紅酒)를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에 대비, 토산 명주로 제조허가를 신청해놓고 있다。

한편 珍島향토문화연구회장 朴明錫씨(38)는『珍島에는 아직도 알려지지않은 유적지, 전설, 가요가 수없이 많다』고 전제, 『연육교의 완공과 더불어 珍島가 민속의 보고가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연륙교가 완공되면 江華(69년), 莞島(69년)巨濟(71년), 南海(73년)安眠(74년)에 이은것으로서 鬱陵島와 黑山島를 제외한 큰섬으로서는 연륙되는 마지막섬이되는셈이다。

新安앞바다서 木製무늬장식등 또 4백8점 건져

新安 해저유물조사단은 지난달29일부터 보름동안 전남新安郡智島面 防築里 도덕도앞 해상에서 白磁陽刻雙龍銘文 접시1점, 靑銅瓶 1점을 비롯, 4백8점의 도자기류 엽전 자단목등과 선체41조각을또 건져 올렸다。

유물가운데 나무로된 모란 동자 무늬장식은 매우 섬세하고 정교하여 당시목공예 기술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재로 평가 받았다。

印尼産 새우서 콜레라菌 검출

東京항만검역소

【東京=聯合】도오꾜항만검역소는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한 냉동새우25톤에서 콜레라균이 발견됐다고 13일 밝혔다。

검역소는 올들어 일본이 들여온 수입해산물에서 콜레라균이 발견되기는 이번이 세번째라고 밝혔었다。

88高速道路 금호大橋 공사중崩壞…2명숨져

【大邱】13일하오8시30분께 대구土里2洞 88고속도로상에 건설중인 琴湖대교의 남쪽 두번째교각이 내려앉는 바람에 다리위에서 일하던 인부 崔宗烈씨(28·대구平里동508)와 李범기씨(31·대구飛山洞768)가 높이20m 강바닥으로떨어져 숨지고 朴양귀씨(42·서울上溪洞169의283)등 4명이 중경상을입었다。

경찰은 교각의 기초콘크리트가 미처 굳기도 전에 교각위에 다리를 가설하려다 사고가난것으로보고시공업체인太平洋건설의현장책임자들을 소환, 정확한사고원인을조사중이다。【聯合】

公金 1億횡령

농민교육원係長

【晉州】경남 농민 교육원 전서무계장 金창석씨(50·晉州市 桂洞27)가 지난4년동안 교육원 새마을 교육비등 공금1억원을 횡령하고 달아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晉州경찰서에 따르면 농민교육원 전서무계장 金씨는 지난77년4월1일부터 지난4월30일까지 6년간 서무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은행잔고증명과 거래수표를 마음대로 발행, 여러차례에걸쳐 교육비 1억여원을 횡령한후 지난5월1일자로 晉州도립병원서무계장으로자리를옮긴뒤자취를감추었다는것。【聯合】

533－2361

農民상대 巨額도박

一黨20명 적발

【光州】전남도경수사과는 14일 농한기를 이용 농민과 시골상인등을 대상으로 지난 7개월동안 모두 50여차례에 걸쳐 속칭 삼봉과 도리짓고땡이등의 화투노름을 해온 상습 도박단 일당 20명을 적발, 이중자금책 金正雄씨(42·光州市東區芝山洞주른맨션 B동406호)文大興씨(36·光州市東區鷄林1洞505의425)동원책 郭甲洙씨(48·전남長城郡長城邑鈴泉里)등 7명을 상습도박등혐의로 구속하고 曺錦用씨(35·전남海南郡海南邑)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도박전과3범인 金씨와 郭씨, 1범인 文씨등 3명은 지난해11월초부터 지난6일까지 7개월동안 光州市東區 大仁洞 일신각여관과 長城邑내 여관등을 돌면서 50여차례에 걸쳐 판돈 1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놓고 도박을해왔다는것。【聯合】

오늘 민방위訓鍊

6월중 민방위의날 훈련이 15일상오11시부터 30분간 전국읍이상 2백39개지역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내무부는 이번 훈련부터 현재 10초간격 파상음으로 울리는 공습경보 사이렌을 5초씩 3분간 울리는 사이렌으로 바꾸기로하고 이번에는 경기 光明市 議政府市등 2개시지역에서만 울리도록했다。

경보방식 변경은 공습경보에대한 국민들의 경각심과 긴박감을높이기 위한것으로 오는9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광고는 낭비가 아닙니다
내일을 위한 투자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서어비스
한국일보 533-2361

CHINA HOUSE
차이나 하우스
두개의 뱅쿠잇 방,
오후 4:30이후 배달도 합니다.
CANTONESE & MANDARIN CUISINE
925 EGLINTON AVE.W.
781-9122
Wilson / Eglinton / Keele / Bayview / CHINA HOUSE / Bathurst / Bloor

GOLDEN CHINA 新金國酒家
중국 레스토랑
Golden China
(식당 겸 술집)
⊙바베큐 전문(오리 등등)
⊙홍콩 전문요리사로 칸토니즈 음식.
⊙Dim Sum.
195 Dundas St. W. (던다스×유니버스티)
☎: 977－3777 (오전10시－새벽1시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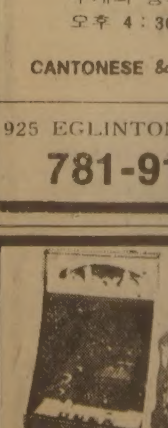
한국식품이라면!
제일식품
항상 싱싱한 야채와
맛있는 젓갈류와 밑반찬이
준비되어 있아오니
가족식탁을 위해서는 물론
각종 파티및
잔치상을 차리실 때는
언제나 제일식품을
찾아주세요.
뒷편에 넓은 주차장
712 BLOOR STREET WEST, TORONTO
(아리랑 식당옆)
532-10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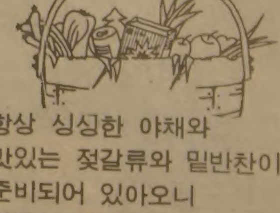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가수 배성
□권순근과 ADD·K악단
월~목: 오전 11시~새벽 1시
금~토: 오전 11시~새벽 2시
일: 오후 1시~새벽 1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 1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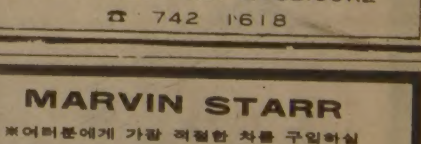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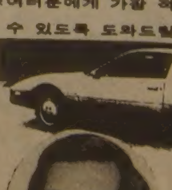
비데오게임 머신
⊙24시간 써비스
⊙분배율 50% (기계에서 오는 이익)
⊙정기적으로 기계를 첵크·업하고 교환해 줌.
TRANS AMERICAN
☎: 636－0906

Grant Brown
GM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잘 정비된 각종 USED CAR
1575 WESTON RD.
이 한 구
☎: 247－7161

MARVIN STARR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조 의 문
☎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Eglinton





"우리는 이기려고 남아있다"

세계청소년축구 한국、브라질과 準決대비 強訓鍊

◇브라질도 두렵지않다。한국선수단은 호텔을 옮기고 새기분으로 브라질을 깨기위한 전술훈련을 하고있다。한국-멕시코 경기장면。【安奉煥특파원찍음】

"빠른個人技 肉彈으로 저지 기민한 숏패스…공격돌파구"

【몬테레이 (멕시코)=安奉煥 특파원】 제4회 세계 청소년축구대회 4강전에 진출한 한국청소년대표팀은 16일(이하 한국시간) 열리는 브라질과의 한판승부에 대비、집중적인 전술훈련을 위해 몬테레이교외 홀리데이인호텔로 숙소를옮겨 강도높은 연습을 하고있다。한국은 대회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몬테레이호텔에 투숙해왔다。

朴鍾煥감독은 14일 AP로이터 UPI통신등 외신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한국-브라질경기는 예측불허의 팽팽한 경기가될것이다。우리는 이기기위해 몬테레이에 남아있다』고 밝혔다。

브라질팀에 대해 朴감독은『브라질은 우루과이보다 강하고 결점이 거의없는 팀이지만 결과는 16일에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탁월한 개인기로 체코를 누르고 4강전에오른 브라질의 자일·페레이라 감독 역시 한국을 절대 경시할수없는 무서운 팀이라고말했다。

그는『한국선수들은 팀웍이좋고 체력적으로 잘조절되어있기 때문에 격전이 예상되고 있다。그러나 우리선수들은 한국을 누르는데 필요한 모든것을 갖추고있다』고 큰소리쳤다。

한국 코칭스태프는 14일현재 對브라질전의 스타팅멤버를 확정하지 못하고있으나 빠르고 개인기가좋은 브라질 공격진을 둔화시키기위해 강태클을쓰며 밀착수비를 펴야 한다고 강조하고있다。

브라질처럼 개인기가 좋은 선수들과 맞섰을때에는 대인방어망이 돌파당할 경우 결정적인 실점 위기에 직면하게 되므로 대인방어와 지역방어를 병용、브라질공격진의 침투를 차단키로 했다。

멕시코에서 위력을 보인 한국의 작전은 한말로「빠른축구」。볼을잡으면 재빨리 동료에게 패스、공격과 수비의 시간손실을 줄이고 공격이 벽에 부딪치게되면 짧은 패스로 기민하게 움직이며 공격루트에 변화를 갖자는것이다。對브라질전에서도 이작전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될것으로 보인다。

브라질 공격진은 위협적이다。對체코전서 2골을 올린 HB실바를 비롯하여 리베이라、베베토、빌레야·페레이라등의 돌파력은 날카롭다。

멕시코 매스컴과 국제축구관계자들의 일반적 예상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결승전에 오르지 않을까 하는데 모아지고 있으나 한국선수단은 이같은 이야기에 전혀 신경을 쓰지않고 준결승돌파를 향해 총력전을 펴고있다。

"1對3의 블로크守備펴야"
우루과이 축구전문가들 展望

우루과이의 엘·파이스、엘·비아등 두신문은 한국이 우루과이를 물리치고 4강권에 오른데 대해『한국의 승리는 당연했다。실력이나 투지에서 우세했다』고 한국선수들을 높이 평가했다。

TV를 통해 한국-우루과이전을 지켜본 우루과이 축구전문가들도『한국과브라질、두팀중 어느팀이 이긴다고 예상한다는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우열의 전망이 어렵게됐다』고 말했다。

對브라질전에 앞서 이들은 이렇게말했다。

『브라질은 전통적 축구강국이다。개인기가 뛰어나다。한국은 맨투맨 수비로는 그들을 막을수 없을것이다。82년 월드컵 우승팀 이탈리아가 보여주듯 1대3의 블로크式 수비로 막아야한다。

브라질은 전진기술이 강하다。브라질은 백패스를 싫어하는 팀이다。브라질에 정면을 열어주면 위험하다。팀웍、선수들의 치밀한 조직력으로볼때 한국의 결승진출은 결코 힘든일은 아니다』

【몬테레이=安奉煥특파원】

브라질팀 戰力
전형적攻擊型…門前킥 위협적
主戰수비 警告받아 出戰못해

『한국도 잘하지만 브라질이 조금 더 강한것같다』한국-브라질 전을 앞두고 외신에서는 브라질우세를 내다보고 있다。그러나 예상은 예상에 그칠 뿐이다。대회개막전 외신이 우승후보로 꼽았던 소련 우루과이 네덜란드 스코틀랜드가 초·중반에 밀려났다。

축구는 상대성이 강한경기여서 스코어로 전력을비교하는것은 큰 의미를 갖지못한다。

브라질은 예선서 나이지리아를 3-0、소련을 2-1로 꺾었고 네덜란드와 1-1로 비기고 8강전에 올랐다。8강전서는 체코와 맞서 선제리드를 당하다가 4-1로 역전승 했다。득점력은 한국을 앞서지만 예선에서는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만큼 인기를 끌지 못했고 對체코전서 브라질 공격축구의 예리함을 보였다。

한국선수단에서는 브라질의 현 전력을 우루과이정도로 판단、게임을 잘풀어나가고 勝運이 따르면 브라질도 깰수있다고 자신감에 차 있다。

한국은 81년 濠洲세계대회 예선서 브라질에 3-0으로 패한 일이 있으나 그당시와 지금의 한국팀을 비교할수는 없다。

개인기가 좋은 브라질은 측면 또는 중앙돌파로 득점을 올리는 전형적 공격축구를 한다。제구력이 뛰어나고 문전에서 프리킥술이 위협적이다。

공격 트리오는 실바、빌레야、베베토。주전수비인 보니파시오가 2번 경고를 받아 對한국전에 나오지못해 전력일각에 구멍이 뚫렸다。

브라질 국가대표팀은 최근 선수일부를 교체하고 3주간에걸친 유럽원정 경기를 갖고 있는데 브라질 팬들은 국가대표팀의 친선경기결과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는 소식。【安奉煥특파원】

AP記者 선정
申連浩 베스트6에 "파괴적技倆 돋보여"

【멕시코AP聯=特約】세계청소년축구대회는 많은 미래의 스타들이 출현、숨겨졌던 기량을 발휘하고 수백만달러짜리 스타로서 발돋움하는 전시장이다。

4년전 東京대회에서는 이제 세계축구의 대명사가 된 2명의 FW디에고·마라도나와 라몬·디아즈가 아르헨티나를 우승으로 이끌었다。

이번청소년대회에서는 누가 마라도나와 디아즈가 될것인가를 꼬집어말하기는 어렵지만 유럽2명、아시아2명、남미2명등 6명의 스타는 장래를 주목해도 좋을만큼 멋진 플레이를 펼쳤다。

이번대회에서 가장 놀라운것은 아시아에도 申連浩(한국)、리·후아윤(중공)과 같이 우수한 선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실이다。

申連浩 19세。한국의 대학생。그는 돌풍의팀 한국의 위협인물이다。파괴적인 기량으로 對멕시코전서는 결승골을、우루과이와의 준준결승에서는 2골을넣어 한국을 4강으로 이끌었다。

중공의 리·후아윤은 정상급의 윙플레이어。뛰어난 스피드에 상대수비를 제치는 드리블기술이 일품이다。

폴란드의 요제프·반디즈크(19)。대회최고의 골키퍼。도저히 막을수 없을듯한 슛을 여러차례 선방했다。마르코·반·바스텐(19)은 특출한 플레이메이커。네덜란드포워드진의 발전기로서 2골을 뽑았다。

아르헨티나의 조지·가브리치(19)는최고득점선수。부에노스아이레스의 프로레벨OB팀소속으로 스피드와 볼을 다루는 기량이 탁월해 가장 위협적인 공격수。이제까지 4골을 기록。

브라질의 베베토(19)。국내챔피언인 플라멩고팀 소속。마법사같은 볼컨트롤에 동료들을 위한 찬스메이킹도 뛰어나다。【다니엘·하커記】

어둠속 익힌 볼·컨트롤…눈감고도 마음대로

申連浩 청소년蹴球「별중의 별」(下)

全南 潭陽。申連浩가 태어난 곳이다。麗水에서 국민학교를 다녔다。회사원인 申張植씨(55)의 3남2녀중 차남。여수서 국민학교 5학년때 축구를 시작했다。

申連浩가있었을때 여수서국민학교는 전국대회2관왕、여수 九鳳中은 추계연맹전준우승을 차지했다。집에서는 축구하는것을 좋아하지 않았다。그러나 金相球코치에 의해 光州錦湖高로 스카우트되면서 집안서도 적극적으로뒷받침 했다。

새벽과 어두운 밤을 가리지않고 연습에 몰두했다。스타덤으로 올린 요인가운데 하나가 어둠속에서 익힌 볼·컨트롤이다。눈을 감고도 볼의 방향과 탄력을 알아낸다。

朴鍾煥감독은 그가 볼을다루는 기술이 뛰어나고 찬스에 강하고 볼에대한 집착력이 강하다고 평했다。축구관계자들은 재치있고 기본기가 착실히 다져져있고 贪찬스포착이뛰어난선수』라고진단하고예비스타일을분명히했다。

"體力보강·특유의 개인기 계속 개발해야"

금년2월 錦湖高를 졸업할때 그는 스카우트 랭킹1위였다。각대학 스카우트에서 몰려들었다。그는 高麗大를 선택했다。스카우트 잡음은 없었다。스카우트 말썽을 일으킨 선수치고 대성한선수가 없다는것을 알고있었다。

선수들에게는 행과 불행이 따르게 마련。2학년 시즌이 끝난후 발목에 염증이 생겨 6개월 동안 기프스를 하고 침을 맞고 물리치료를 받았다。작년8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멕시코청소년축구 아시아지역 동부예선전에서도 발목에 부상을 입고 고생했다。

그러나 병고와의 투쟁에서도 강함을 보였다。

『하체는 좋은데 상체가약해 외국의 장신선수들과 어깨 싸움에서 밀린다』(朴鍾煥감독의 지적)『볼을 오래 끄는 버릇을 고치고 체력을 더 보강해야 한다』(李次滿고려대코치의 말)『특유의 개인기를 계속 개발해야 한다』(金昌基 축구협회이사)는 지적 처럼 제2의 축구인생은 지금 부터 시작된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바다낚시를 즐기며 음식은 닥치는대로 가리지않고 먹는다。성격이 활달하여 동료선수들과 쉽게 친숙해진다。

꿈은 86、88 두 국제대회 주역이 되는것。지금 자신의 꿈을 한단계 성취했다。【閔炳宅기자】

한국、體力戰서 美에져 3-2

친선여자배구2차전 2시간接戰…역전승놓쳐

【大邱=金仁奎기자】韓·美여자배구대표 친선경기 2차전이 13일 大邱실내체육관에서 열려 한국은 2시간동안의 접전끝에 3-2로 패했다。

한국은 1차전때와는 달리 전진수비와 朴美姬를핵으로한 시간차공격 호조로 역전승하는가 했으나 마지막세트서 힘이달린데다 서브리시브가 불안、1점만따내고 주저 앉았다。

◇제2차전적

미국	3	15	6	6	15	15
한국	2	1	15	15	12	13

MBC、連勝해태덜미

프로야구 三美、三星꺾어 半게임차 추격

프로야구 전기 선두를 질주하던 해태가 13일 光州에서 있은 내야범실로 MBC에 5-9로 패배、6연승에 제동이 걸려 24승 1무 16패를 기록했다。

24승에서 발이묶였던 三美는이날 大邱서 張明夫의 역투와 연장10회초 趙興雲의 2타점결승타로 三星에 3-1로 승리、25승18패로 해태를 반게임차로 쫓아올라왔다。

◇13일 전적

◆광주

청룡	3	1	0	0	0	4	0	0	1	9
해태	0	0	1	1	0	2	0	1	0	5

◆대구

삼미	0	0	0	0	0	0	0	0	1	2	3
삼성	0	0	0	0	0	0	0	0	1	0	1

◆마산

OB	0	0	0	0	0	0	2	2	0	4
롯데	0	0	1	0	0	2	2	0	X	5

프로야구 올스타전 30일부터 사흘동안

83년 프로야구 올스타전이 전기시즌이끝난 6월30일부터 7월2·3일 사흘동안 大邱、仁川、서울에서 열린다。東군(롯데·三星·OB)과 西군(해태·삼미·MBC)으로 나뉘어 펼쳐지는 올스타전의 양군 감독으로는 각군에서 6월12일현재 가장 좋은성적을 올린 OB의 金永德감독과 해태의 金應龍감독으로 결정되었다。양군 출전 올스타는 팬들의 투표에 의해 결정된다。

올스타전 최우수선수(MVP) 상으로 승용차1대、홈런상으로 순금제 미니야구공이 시상된다。

올스타3차전에 앞서 각구장서는 팬들의 야구공멀리던지기대회、행운상추첨을 실시할 예정이다。

北一우승

청룡기 野球

北一高가 마침내 청룡기를 품에안았다。지난해 群山商高와의 결승전서 재경기까지가는 혈전끝에 무릎을꿇었던 天安北一高는 38회청룡기중고야구선수권결승전서 돌풍의 浦鐵工高를 1-0으로 꺾고 대회패권을 차지했다。

예상외의 투수전으로 양팀 안타는 각각 3개。北一은 6회초 선두 2번 池華東이 중월2루타를 쳐 3번 보내기번트와 4번 吳孝根의 스퀴즈번트로 홈인、결승점을 올렸다。

◇결승전(13일·서울운동장)

북일고	0	0	0	0	0	1	0	0	0	1
포철공	0	0	0	0	0	0	0	0	0	0

땅끝에서 오다 <83>

金成一 作

침묵하는 글자들 ⑦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도 지구의 파멸에 대해서 계산한 것이 있었다。그는 아틀란티스 대륙의 붕괴이후 1만8백년후에 파멸이 오리라고 계산하였는데、플라톤이 추정한 아틀란티스 대륙의 붕괴연대가 자기 시대로부터 9천년 전이었던 것으로 생각하면 바로 그 1만8백년은 서기 2천년경으로 산출되고 있는 것이었다。

16세기에 태어났는 마더·쉽튼이란 여자의 예언은 더욱 그럴듯한 정황을 하고 있었다。

…여자들이 남자같은 옷을 입고 바지를 입고 긴머리를 짧게 자를 때 그림이 살아 있듯이 자유로 움직일 때 배가 물고기처럼 바다 밑을 헤엄칠 때 남자들이 새를 좇아 하늘로 날아오를 때 세계의 반은 피로 물들고 죽을 것이니…

네빌·슈트가 1957년에 출간된 자기 소설「온 더·비치」의 첫머리에 내 걸었던 T·S·엘리어트의 시구는 그 인류파멸의 소설 내용을 한마디로 함축하고 있었다。

…이리하여 세상의 종말은 왔도다。

지축이 무너지는 큰 소리조차 없이…

지질학자 찰즈·해프굿이나 휴·모친크로스·브라운 등은 지구의 회전축이 바뀌게 되며 이것이 서기 2천년경에 일어나리라고 주장하였다。그리고 이 회전축의 이동은 바로 1982년의 행성직렬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었다。지축의 이동이 있을때、기후의 대 변동、대 홍수、생물의 멸종、문명의 소멸이 있으리라고 했다。

그러나 미래를 예언보다도 가장 사람들을 두렵게하는 것은 저 신비한 바티칸 교황청의 비밀들이었다。교황청은 여러가지의 적중률 높은 예언들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사건이 날때마다 그것이 조금씩 모습을 나타내곤 했던 것이다。바로 작년인 1981년5월13일 하오5시19분、수요일의 신도접견을 위해 흰색 오픈·지프를 타고 성 베드로 광장을 나오던 교황 요한·바오로2세는 터키출신의 테러리스트인 24세「메메트·알리·아그카」의 권총저격을 받고 중상、제멜리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이때、세상 사람들이 의아해했던 것은 벌써 며칠전부터 교황이 그 사건을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었다는 사실이었다。그는 사건발생 1주일전인 5월6일、교황청 수비를 맡은 스위스인 위병들을 위한 미사에서

『우리 바티칸에서 폭력이나 극단적 행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 간구합니다』

라고 말했으며、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고 적혀진 마태복음의 구절을 인용하여 이상한 느낌을 주었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바로 그해 5월13일에 교황의 수난이 있을것을 예고한저 파티마의 비밀이 관계된 사건이었던 것이다。

張吉山 <1767>

黃晳暎 作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227)

거사일로 정했던 열여드렛날 새벽、여환 황회 정호명 김시동의 네 사람은 백악에 올라갔다。혜음령에서 중군이가 해서 군사의 도착을 전해줄 것이며、궁성의 곳곳을 미리 살펴둘 셈이었다。부서와 책임은 이미 정해졌으나 백악에서 사대문 안을 한눈에 내려다보며 전진로와 조군로와 우회로를 익혀두려는 것이었다。여환은 이날짜 쪽이면 오계손의 해서 군사는 혜음령에 당도하고 철원서 합대한 승병과 길산의 군사는 천마산으로 확실히 몰어 두었을 것이 열이레의 낮만 지나면 그 밤의 자정에 도성의 주인이 바뀌고 미륵의 세상이 돌아오는 것이다。백악(白岳)문수전(文殊殿)에 오르니 한양 오부(五部)가 손바닥 위에 올려 놓은듯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좌측에 창덕궁이、우측에 경희궁이 보였으나 일단은 창덕궁이 목표였다。그러므로 해서 군사는 백악 줄기를 타고 삼청동을 지나 삼길로 가회방 쪽으로 나오며 양주 병력은 혜화문으로 하여 문묘(文廟) 쪽으로 오는데、강원 군사는 숭신방 쪽에서 오간수를 넘어 훈련원에 와서 해서병력의 일부와 모이도록 되어 있었다。궁성 점령과 거의 동시에 사대문이 장악 되어야할 것이었다。여환의 제의로 네사람은 한양 성내를 향하고 남면하여 사배를 드리고 여환이 목청을 돋우어 송경(誦經)하였으니、하늘이 우호(佑護)하여 대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빌었다。그들은 다시 눈아래 보이는 동네와 길을 손짓하며 군사들의 진로와 집결처를 의논하였다。그들은 해가 높이 솟을 때까지 중길이의 전갈을 기다렸으나 아무도 오지 않았다。이윽고 북쪽 등성이에 희끗희끗한 사람의 자취가 보이는가 싶더니 혜음령에 나가있던 최영길이가 낯선 사람과 함께 나타났다。여환이 바라보는 그는 장길산의 아우 감말록이었다。영길이가 먼저 시무룩하게 말을 꺼냈다。

『해서 군사는 이미 송도까지 와서 은신중이지만、강원군사는 아직 당도하지 못하고 모으는 중이라 일단 양주로 돌아가서 닷새쯤 더 기다려야 한답니다』

정호명과 김시동은 화를 벌컥 냈다。

『아니 닷새를 기다리라니 약조는 철석 같이 해놓고 이제와서 꽁무니를 감추자는 겐가』

『양주 대전리의 군졸은 아무 소득없이 흩어질것이고 다시는 모여들지않을거요』

그러나 황회는 오히려 그들을 달랬다。

『만사 불여 튼튼이라、물샐틈없는 준비로 거사하면 더욱 좋지않겠나』

그러나 여환은 곧 눈치를 챘다。감말록이는 주로 돌아다니며 소식을 전하고 연락하는 일을 맡은 사람인데、지금쯤 승병들과 더불어 솔뫼리에 있어야할 사람이 문득 혜음령 중길이의 살주계 은신처에 갔것은 이미 일이 글렀다는것을 나타내고 있었다。아마도 감말록은 여환자기에게 무엇인가 중요한 말을 전하기위하여 길산이 보냈음에 틀림없었다。

한국일보
533-2361

GRAND OPENING
개성에 맞는 패션헤어스타일
세레나 미용실
오랜 경험과 기술로서 자신을 갖고 봉사해 드립니다.
○카나다 유명 헤어디자이너 학교 수료
○한국, 카나다에서 다년간 유경험
□파마특별세일 $28
□노인파마특별세일 $24
□남녀 컷 전문
개업일자 : 6월 15일(수)
세레나·김 635 BLOOR ST.W
(한국관 건너편)
532—3206

"解禁 앞으로도 계속"

임시國會 개회 金總理 國政보고서 밝혀

◇金總理 國政보고 金相浹국무총리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國政보고를 하고있다.

"不法 정치활동은 法的조치" 改憲說 사실무근 거듭強調

정부는 일부 정치활동被규제자를 포함한 舊정치인등이 現行法을 위반하는행위가 계속돼 사회적 안정을 깨뜨릴 우려가 있을때는 필요한 法的조치를 취할방침이다.

金相浹국무총리는 13일 하오 열린 제1백17회 임시국회에 출석, 國政에 관한 보고를 통해 金泳三씨의 斷食문제등에 언급하면서 이같은 정부방침을 밝히고 『정부는 그동안 국민和合적인 차원에서 정치활동 被규제자의 解禁, 구속자 석방등을 통해 국가건설에 되도록이면 疏外되는 사람이 없도록 참여의 폭을 확대해왔으나 이러한정부의 입장은 앞으로도 계속될것』이라고 말했다.

金총리는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사회의 안정과 온국민의 和合으로 사회적안정 없이는 우리가 쌓아온 경제 성장과 국력신장이계속될수 없으며 선진조국의 창조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 『이런점에서최근 일부 在野 舊정치인들의 움직임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생각하며 정부로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注視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金泳三씨는 이번 斷食전에도 현행법상정치활동이 허용되지않는 被규제자의 신분으로 外信을 통한 정부 誹謗등 공공연히 정치활동을 기도해왔다』고 밝히고 『정부는 政局의 和合과 안정의 차원에서 법적처리를 留保하고 본인스스로 自肅하기를 기대했고 斷食성명서 발표이후에도 인내심을갖고 문제를 대화로써해결한다는 방침아래에서 經路를 통해自重할것을 종용했으나 일부 정치 활동 被규제자를 포함한 몇몇 구정치인등은이에 편승, 현행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바있다』고보고했다.

在野 舊정치인들의 움직임과 관련, 金총리는『문제의 발단은 현재 정치풍토 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정치활동이 규제돼있는 金泳三씨가 성명을 통해 우리의 헌법과 이에근거해 만들어진 일부법률을 무효화하라는등 제5공화국의 正統性을 부정하는주장을하며 斷食에 들어간데서 시작됐다』고 밝히고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우선 그분의 건강을 위해 지난달25일 서울대학병원으로 옮겨 의료진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고 설명, 현재는 金씨의 건강상태가 好轉되고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한동안 巷間에 유포된 改憲說에 대해 『全斗煥대통령께서 천명한바와같이 事實無根』이라고 거듭강조하고 『우리는 사회의 安定대위에서 건전한 의회민주정치를 한층 발전시키고 나아가 온국민의여망인 평화적정권교체의 좋은 모범을 세워야하겠다』고 말했다.

金총리는 경제성장으로인한 그늘진곳으로 계층간의 소득격차 기대와 成就와의 乖離, 福祉제도의미완성, 기업의 사회적책임 未洽등을 지적한후『사회적으론 여전히 불식되지않고있는 상호不信풍조, 拜金사상의 팽배, 이에따른 지나친 소비성향, 세대와계층간의 가치관의 갈등등 치유해야할 여러가지 병폐들이 우리의 발전을 저해하고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金총리는 經濟부문에 관해 『최근 경기好轉과 함께 일부국민들 사이에 지나친 소비성향이 나타나고있다』 지적, 이에대한 自覺을 촉구한후 『농촌의 안정적성장을위해 年內에 農漁村所得源개발促進法을 제정, 농가소득을 다원화시키며 농촌의 福利를 증진해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本會議속개 各黨 對政府질문

제1백17회 임시국회가 13일하오 개최되었다.

국회는 14일하오 본회의를속개, 辛相佑(民正) 李漢東(民正) 林德圭(국민) 高貞勳의원(議政)이 나서 최근의 金泳三씨의 斷食과 在野문제, 정치현안등에 대한各黨의 견해를밝히는 對정부질문을 벌인다.

한편 蔡汶植국회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이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것은 정치적 사회적안정과 이를 바탕으로 한경제적번영의 지속이며 따라서 우리정치인과 국회는마땅히 이를위해 기여해야할 커다란 責任을 지고있다』고 말하고 『이번 임시국회가 우리議政史에 대화정치의 기조를 굳게 다지는 역사적계기가 되기를바란다』고 밝혔다.

15일 3黨총무회담

民正, 民韓, 국민등 3黨총무는 13일하오 회담을 갖고 이번 임시국회운영과 野黨이 주장하는 解禁案등 정치議案의 처리문제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내지못하고 15일 하오 다시회담을열어재론키로했다.

이날野黨총무들은 『정부가정치被규조자를단계적으로解禁키로언명한만큼3黨이 解禁案을 공동으로 發議하고 처리하여 이를정부가 받아들이도록 하는것이 정치적順理』라며 解禁案의 공동발의를 주장하면서 『일반법안보다 野黨이 제출한 정치議案을 이번국회에서 먼저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李民正총무는 『정부가 단계적 解禁을약속했고 이미 1차解禁이있었기때문에 解禁案의 3黨공동발의는 곤란하다』고否定的태도를 보였다.

公共주택 16坪규모로

건설부 13坪미만 건설抑制

건설부는 공공주택건설에 있어 주택난 완화뿐아니라 주거환경 개선에도 비중을 두기위해 13평미만의 주택건설은 억제키로 했다.

건설부는 공공주택을 지금까지는 서민주택난 해소를위해 공유면적포함 43㎡(13평) 규모를 기준으로 40㎡(12평) 36㎡(11평) 33㎡(10평)등 소형아파트건설을 주력해왔으나 앞으로는 공공주택기준도 55㎡(16평) 규모로 높이고 전용면적기준 13평이상을 많이짓도록 유도키로했다.

건설부의 이같은 방침은 소득향상으로 국민들의 주거환경에 대한 요구가 그만큼 높아졌고 또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소형아파트가 슬럼화할 가능성이 많기때문이다. 이같은 방침에따라 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짓는 공공아파트도 13평미만은 억제토록 유도키로했다. 또한 정부가 주택건설자금을 융자해주는 민간업체들의 임대주택도 될수있으면 13평이상으로 짓도록할 방침이다.

그러나 공단주변이나 광산촌의 독신공원아파트나 지역별 특성에따라 필요한경우엔 규모에 관계없이 소형주택도 건립할수있도록할 방침이다.

그런데 정부는 공공주택에 대한 국민주택자금 융자에 있어서는 지난81년까지는 주택가격의 60%범위안에서 가구당 4백만원~7백30만원까지 융자해주면서 전용면적 15평이하의주택에대해서만 최고가격을 융자해주었으나 82년부터는 18평까지를 최고가격으로 융자해주고 있다.

佛사회당左派중진 슈베느망씨와要談 金總理

金相浹국무총리는 13일 상오 집무실에서 프랑스社會黨左派의 지도자이며 前연구공업상인 장·피에르·슈베느망씨의 예방을 받고 韓·프랑스간의 경제, 기술, 문화등 각 분야에 걸친 협력증진에 관해요담했다. 슈베느망씨는이박에원자력발전소와 고속전철건설에의 참여등 기술협력에 관해 관심을 표명한것으로 알려졌다.

◇全대통령이 少年體典유공자들을접견하고있다.

少年體典 유공자 全대통령이 午餐

全斗煥대통령은 13일 낮 영부인 李順子여사와 함께 孫昌玉씨(全州完山국교교사)등 제12회 소년體典유공자 37명을 청와대로 초치, 오찬을 베풀고 노고를 치하했다.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지도자들이 얼마나 사명감을 갖고 학생들을 지도하느냐에 따라 훌륭한 일군들이 많이 배출되느냐, 그렇지않느냐가 달려있다』고 강조하고 『이번 소년체전에서는 참가선수들이 있는 기량을 다 발휘할수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 과거 어느때보다도 좋은 기록이 많이 나올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자리에는 李源京체육부장관과 鄭周永 대한체육회장이 배석했다.

青少年축구팀 祝電

全斗煥대통령은 12일 멕시코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서 4強에진출한 한국대표팀에 電文을보내 선전을 치하하고 앞으로의경기에서도 좋은성적을 거두어줄것을 당부했다.

全대통령은 또 13일 제3회 세계청소년 유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金載燁(엑스트러 라이트급) 金鍾榮선수(라이트급)에게 축전을 보내치하격려했다.

中美 바베이도스 副首相접견 환담

全斗煥대통령은 13일 하오 청와대에서 바베이도스의 해롤드·세인트·존副首相겸 통신상을 접견하고 환담했다.

한국蹴球 史上첫 세계4強에

強豪 우루과이 격파 브라질과 16일 準決

青少年 선수권

◇한국의 金炳玉선수가 12일 우루과이와의 대전에서 우루과이 선수의 볼을 걷어내고있다. 【몬테레이UPI電送=聯合】

【몬테레이(멕시코)=安秦煥특파원】 한 고개만 넘으면 세계제일을 겨룬다. 하루하루 새로운 역사를만들어내고 있는 한국청소년대표축구팀은 12일 상오8시(이하 한국시간)벌어진 제4회 세계청소년축구대회 8강전서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와 1백20분간의 연장격전끝에 FW申連浩의 수훈2골로 2-1로 승리, 16일 상오8시 브라질과 준결승전을 벌인다. 한편 아르헨티나는 강호 네덜란드를 2-1로물리쳐 동구의 강호 폴란드와 준결승전을 벌이게 되었다.

「아시아의 폭풍」으로 불리고 있는 한국팀은 잔디에 깔려 이어지는 짧은 패스로 공격의 주도권을잡고 유리한 경기를 펼치다가 후반9분 申連浩의 선제득점으로 리드를잡고 연장14분에 申의 결승골로승리를 굳혔다.

한 우루과이는 후반25분 마르테니스의 골로 1-1 타이 스코어를 만들었으며 연장종료 3분전 소사의슛이 크로스바에 맞고 튀어 최후의 동점기회를 놓쳤다.

국제축구계관계자들과매스컴은 한결같이 한국의4강진출을 『역대 대회 사상가장 놀라운 사건의 하나』라고 말하며 한국의 기동력과 투지를격찬했으며 특히 이대회서 3골을 넣은 申連浩의 탁월한기량을 칭찬했다.

한국은 16일의 준결승전서 승리하면 20일 멕시코에서 결승전을 벌이고, 준결승전서 패하면 19일 과달라하라에서 3,4위 결정전에 나선다.

◇8강전 전적

한국	2 (1-0, 0-1, 延1-0)	1	우루과이
브라질	4	1	체코
아르헨	2	1	네덜란드
폴란드	1	0	스코틀랜드

太陽온도 急上昇 파이어니어號 탐지

【마운틴뷰(캘리포니아州)UPI=聯合】 13일 하오 9시(한국시간) 태양계를 이탈한 우주탐사선 파이어니어 10호는 태양온도가 지난12일 섭씨 1만5천도로 지난9일의 섭씨 5천도에서 1만도나 갑자기 상승한것으로 보고해옴으로써 과학자들은 이같은 현상이 지구온도에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믿고있다.

社會漫評

한국축구 頂上 門前에…

地平線

한국 청소년축구팀, 훌륭한 하루였다. 우리 10대들이 먼나라 멕시코에서 열리고있는 세계청소년축구대회에서 8강으로浮上한데 이어, 일요일 아침의 4強진출전에서 우루과이팀을 이겼다. 가뭄 끝 단비처럼 반갑다.

▼우루과이는 인구 3백만의 나라지만 월드컵 축구와 올림픽에서 각각 두번 우승했다. 월드컵서 두번 우승한 나라는 이밖에 이탈리아·독일이 있고 오직 브라질만이 세번우승했다. 이같은 축구 강국을 이겼으니, 참 장하다.

▼우리의 成人축구는 올림픽本選에 두번과 월드컵本選에 한번 참가했을뿐 번번이 지역예선에서 좌절되곤했다. 작년 뉴델리 아시안게임에서는 그나마 예선탈락의 苦杯를 들어, 침체의 늪에 빠졌다. 그러던차에 이번 청소년선수들이 世界頂上圈에 도약했다. 앞날을 크게 기대한다.

▼이렇게 즐거울때마다 늘 생각하는것은 나어린 선수끼리의 여러경기에서는 우리청소년이 실력을 빛내는데, 어째서 성인이 된 뒤에는 그렇지못할까하는 아쉬움이다. 선수들의 精進이 모자란가, 與件이 미비한가 아니면 지도자가 시원치 않아선가.

▼동양사람이 身長·體力·技巧에서 뒤진다는 고정관념을 우리의 축구10대들이 말끔히 씻어주었다. 감독·코치의 지도력도 찬양받고 있다. 이런승리가 성인층에도, 그리고 다른 모든 일에도 번졌으면 한다. 우리청소년들은 국민에게 기쁨과 自信을 불어넣어 주었다. 거듭 축하한다.

한국일보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공인 경영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 은퇴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영 숙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보석개조
교환매매
215 YONGE ST.
Toronto
Jewellery exchange 구내
368-7961(B)
690-5217 R

주택, 토지, 기업체
부동산 매매
Paul Kim 김 평
Sales Representative
*3107 Sheppard Ave. E.
M1T 3J7
Phone : 497-9794
(R)759-4560

씨왈한국인학교
The See-All Korean School
여름학교 안내

● 신청처 : 150 Madison Ave. Tor. M5R 2S5 ● 학교장소 : 250 Brookdale Ave. John Wanless 학교

— 데이케어 프로그램 —

▲연령 : 3~4세
▲기간 : 7월4일~8월26일(8주간)
▲시간 : 오전8시~오후6시

금년 처음으로 3,4세 어린이들을 위한 데이케어 써비스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한국인가정에서 자란 어린이들의 영어의 환경(유치원)에 준비과정 없이 들어가는 것은 어린이 심리현상에 큰 영향을 주는 극단적인 변화입니다.
이런 과정을 돕기 위해, 영어도 가르치며 한국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어린이들을 보살피려는 것이 이번 탁아소 프로그램의 목적입니다.
Superviser Diane Morris씨를 모시고 영어교사1명, 한국인교사 3명으로 32명의 어린이들을 받아 드리겠읍니다.
1주에 $50(간식포함, 점심은 각자준비)
▲신청 : 원하는 주일을 기입하셔서 수표와 동봉, 위의 주소로 보내주시면 선착순으로 받겠읍니다.
▲ CHARTER WAY BUS SERVICE 가능하며 주당 25불.
▲ 부모 경제능력에 따라 정부에서 수업료 일부 보조 가능 합니다.

— 국민학교 프로그램 —
▲연령 5세~12세
▲한국어 : 무료. 한국어를 가장 효과적으로 배우는 시기가 여름학교입니다. 10년이상의 경험이 풍부한 교사진과 토론토교육국의 보조로 이루어집니다.
▲특수프로그램 : 한학생이 두과목을 택할 수 있음. 영어, 수학, 피아노, 바이올린, 미술, 무용, 태권도, 축구등 8과목에 전문교사진이 지도함.
▲수영 : 일주일에 2번씩 토론토교육국, 또는 시경영 수영장에서 모두가 수영을 즐길 수 있음.
▲기간 7월4일~8월12일(6주간)
▲시간 오전9시30분~오후3시 30분
▲야외활동 : 운동회, 소풍, B.B.Q., 졸업파티등을 통해 즐거운 금요일을 보냄.
▲수업료 : 한학생 $180, 둘 $350, 셋 $500.
▲ 아동 안전을 위해서 전문통학 버스인 CHARTER WAY BUS SERVICE를 이용합니다.
신청 441-2986, 6월 20일 까지.
한 학생 $150, 둘 $290, 셋 $400.
▲신청 전화로 선택과목을 6월20일까지 신청 해 주십시오. (전화 : 441-2986)

— 중학교 프로그램 —
▲연령 Gr. 7~Gr. 10
▲기간 7월4일~8월12일(6주간)
▲시간 오전9시30분~오후3시30분
▲한국어와 Band : 무료. 오후1시-3시30분. 자녀들이 흥미있게 한국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밴드부를 신설하였음. 악기 렌트비 $20
▲특수프로그램 : 과목당 전문가로부터 지도받음. 한교실에 4-10명 제한.
▲콤퓨터 (Commodor64 디스크, 프린터 모두 준비되어 있음) 지도교사 박종길 $140
▲불어회화 : Mr. Desjardins $140
▲영어엣세이와 Public Speech : Dr. Rinaldi $140
▲수학 : Mr. Burwell $140
▲음악이론 : Mr. Kerwin, Royal Conservatory 시험준비. Preliminary 또는 Gr. I $140
▲학생이 4명 이하일땐 과목취소
▲두과목을 택할땐 $250
▲신청 전화로 선택과목을 6월20일까지 신청해 주십시오. (전화 : 441-2986)

한국어와 예능의 전당
씨왈한국인학교
The See-All Korean School

空席중인 蘇간부회의 議長에
안드로포프 有力
——오늘 黨中央委、16일 最高會議서 선출

權力기반 完全굳힌듯

【모스크바16日AP=聯合】소련은 14일과 15일 당중앙위원회를 열고 새정치국을구성하며 뒤이어 16일 연방최고회의(의회)를 열어 레오니드·브레즈네프 사망후 공석중인 최고회의간부회의장을 선출함과 동시에 국내·외정책을 공식결정한다.

안드로포프가 브레즈네프의 선례에 따라 이번 蘇聯邦최고회의에서 최고회의간부회의장으로 선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같은 추측은 10일 소련보도매체들이 국방상 드미트리·우스티노프가 오는 7월 군사기동훈련을 지휘하게 된다고 보도함으로써 더욱 굳어졌는데 금년 봄까지만해도 우스티노프는 외상 안드레이·그로미코와 더불어 간부회의장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었다.

그러나 그로미코도 2개월전 제1부수상으로 승진함으로 간부회의장 후보경쟁에서 탈락된것이 확실하다.

정통한 소식통들은 안드로포프가 간부회 의장직을 거절할 경우 가장 유력한 후보는 소련지도층 제2선의 인물이 될것이라고 말하고 바실리·쿠즈네초프(82)도 그중의 한사람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소식통들은 최고회의에 앞서 이례적으로 2일간 열리는 黨中央委에서 2~3명의 정치국원이 새로 선출되지만 정치국원의 수는 11명으로 줄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大權장악을 눈앞에두고… 유리·안드로포프소련공산당서기장의 와병설에는 이론이많다. 그러나 사진속의안드로포프는 걷는데 부축을받아야할만큼 그의 건강이 좋지않음을 보여주고있다. 【AP】

英外相에「하우」
대처、再執權후 12명改閣

◇하우 外相

【런던·AP聯合=聯合】마거리트·대처英國수상은 9일의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지 이틀만인 11일 대폭적인 改閣을 단행, 외상에 제프리·하우 재상을 임명하는등 12명의 각료를 更迭하고 무역상과 산업상을 통합, 각료수를 종전의 22명에서 21명으로 줄였다.

◇새閣僚 명단△首相=마거리트·대처(留)△外相=제프리·하우△內相=레온·브리턴△財相=니젤·로손△國防相=마이클·헤슬타인(留)△農業相=마이클·조플링△貿易·産業相=세실·파킨슨△敎育·科學相=키드·조셉(留)△環境相=패트릭·젠킨△社會保障相=노만·파울러△法相=하일샴 卿(留)△雇用相=노만·데빗(留)△에너지相=피터·워커△運用相=톰·킹△北아일랜드담당相=제임즈·프라이어(留)△스코틀랜드담당相=조지·영거(留)△웨일즈담당相=니콜라스·에드웨즈(留)△국새상서겸 上院원내총무=윌리엄·화이틀로△財務담당閣內相=피터·리즈△랭커스티 領相=콕필드 卿 △樞相겸下院의장=존·비텐

(留)

하우外相 인플레잡은 金融通

◇제프리·하우外相(56)=지난79년5월 대처내각이 처음 출범할때 재무상에 기용돼 지난4년간 통화긴축정책을 강력히 추진、만성적인 영국의 인플레를 15년만에 4%선으로 끌어내리는데 성공한 財政·金融通.

64년 의회에 처음 진출하기전에는 변호사로 활약했으며 이때문에 에드워드·히드 내각당시에는 법무차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현 각료가운데 대처리즘을 가장 강력하게 옹호하는 인물로 지난75년에는 대처수상과 保守黨 당수자리를 놓고 경합을 벌이기도 했다.

스타일이 화려하지않고 조용히 매사를 처리해 나가는 성품. 인플레억제의 성공으로 그동안 매스컴으로부터『이상적인 財相』이라는 평을 들어왔다.

로손財務相 記者출신 대처리스트

◇니젤·로손재무상(51)=대처수상의 경제정책에 대한 강력한 옹호론자로 74년 의회에처음 진출한 이래 9년만에 내각에서 두번째로중요한 각료직에오른인물.

지난 2년간 에너지상으로 재직하면서 영국국영석유공사(BNOC)의 민영화작업을 강력히 추진했다.

옥스퍼드大출신으로정계에 투신하기까지에는 파이낸셜·타임즈및 선데이·텔리그라프紙의 기자로 활약했었다.

宇宙에 核발전소
光線무기에 動力을 제공
美、개발서둘러

【워싱턴AP=聯合】미국은 레이건美대통령의 우주요격미사일체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미사일요격(ABM)光線무기에 動力을 제공하는등 장차 미국의 군사전략에 주요한 역할을수행할수있는 거대한 우주배치核발전소개발에 박차를가하고 있는중이다.

美국방성의 리처드·쿠퍼고등연구사업국장은 최근의회증언을 통해『장차 미국의 우주에서 여러가지주요한 임무의 수행가능성여부는 이 우주핵발전소개발의 勝敗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北傀、최근밝힌 白頭山 天池
水溫44도…水深 3백84m

【서울=聯】北傀의「로동신문」은 최근 白頭山과관련된 金日成父子의 우상숭배선전과 함께 白頭山「天池」의 이모저모를 소개하여 민족의 聖山을 더럽히고있는 북괴집단에대한 분노와 함께 두고온 山河에 대한 애틋한 鄕愁를 새삼불러 일으키게했는데 북괴신문이 소개한 白頭山「天池」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天池의 규모=장군봉(2、750m)을 비롯해 망천후、백암봉、차일봉、백운봉、청석봉등 2천5백m가 넘는 봉우리들이 60도이상의 벼랑을 이루면서 둘려쳐진 天池는 南北으로 길게 펼쳐진 둥근 모양으로 최대길이는 4·64㎞、최대너비는 3·55㎞이며 둘레길이는 14·4㎞.

▲「天池의」의 溫泉과 動植物서식상태=天池에는온천이 있는데 水溫은 44도이며 최대水深은 3백84m、평균水深은 2백13m로서 가을철에는 눈으로14m정도까지 들여다 볼수있을정도로 맑고 깨끗하다. 이곳에는 식물성떠살이 생물이5종、작은 동물및 곤충류가 4종、물속식물(이끼류)등이 서식하고있으며 天池호반에는 1백20여종의 식물이 살고있는데그 가운데 木本식물이 20종에 이른다.

대표적인 식물로서는 만병초 가솔송、황산참꽃 두메자운、곰버들등 고산식물등이 주단처럼 펼쳐져있으며 天池의물은「달문」이라고하는 좁은 골짜기를통하여 흘러나가며「달문」을지나 북쪽으로 약6백50m가량나가면 70여m의폭포(長白폭포)가 떨어져내리는데 이물줄기가 鴨綠江、豆滿江 그리고 中共東北방을 흐르는 松花江의 원류가된다.

▲「天池」水의成分=天池물은 빗물과 약수가섞인 물로서 가운데 표면물을검사한결과 칼륨이온、나트륨이온、칼슘이온、마그네슘이온、수소탄산이온、염소이온、유산이온、산화알루미늄이온、메타규산등의 화학적조성인것으로 나타났으며 겨울에는 표면4m까지 어는때가 있고 6월하순까지도 전부 녹지않는다.

人事異動

中小企業銀行

▲城東支店長 林光煥 ▲南大門〃 朴哲圭 ▲弘濟洞〃 金洋中 ▲方背洞〃 文達永 ▲水原〃 金如坤 ▲清州〃 朴泰淳 ▲堤川〃 崔成泰 (11日字)

本社來訪

▲李昶赫씨(獨立有功遺族會회장) ▲羅鍾權씨(〃부회장) ▲白炯教씨(〃) 新任인사차

메아리

요즘 아이들

현재에서 돌아다 보는 과거는 때로 환각작용을 일으킨다. 좋았다고 생각되는 세월은 망각에 묻힌다. 오히려 고난의 시절이 생생하게 오래 살아남아 행복감이 채색되기도 한다.

그렇다고 모든 추억이 꼭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다. 무거운 교훈도 담긴다. 내일이면 이달은 꼭 절반이 접혀간다. 6월은 금방 6·25를 연상케한다. 그 비극을 겪은 세대에겐 6월의 악몽이 곧바로 피난살이 추위로 얼어 붙는다.

부산의「임시수도 1천일」엔 좀채 여름의 기억이 안떠오른다. 四季가 온통「결빙의 계절」이었던것만 같다. 전쟁은 허무의 胎라고 할수 있겠다. 그 시절의 암울과 절박감이 문학속에 용해되어 남았다. 작가는「허무의 공간」을 이렇게 그려 놓았다.

『그들은 이 부산이「끝의 끝」「막다른 끝」이란 것을 모른단 말인가. 이「끝의 끝」「막다른 끝」에서 한발짝이라도 옮기면 바다에 빠진다는 것을 잊었단 말인가』(金東里작 密茶苑時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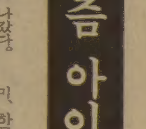
가파른 벼랑에 서있던 사람들은 그래도 악착스레 살았다. 그때 아이들은 거리에 나서서 고사리손으로 장사를 하면서도 열심히 배웠다. 차가운 돌계단이 훌륭한 의자였고 손바닥이 그대로 책상이 되었다. 천막교실의 추억은 차라리 아늑하다.

이겨 내기 어려운 절망감과 싸우면서 그때 어른들은 허무의 칼날을 밟는 곡예사처럼 살림을 꾸려 나갔다. 피난살이 곡예엔 온가족이 총동원 돼야 했다. 문학에 비친 곡예엔 인간가족의 정감이 숨쉰다.

『어둡기전에 아내가 왔다. 그런데 두워도 큰 애 둘이 돌아오지 않는다. 아주 깜깜하게 어두운 뒤에야 두애는 돌아 왔다. 어제 오늘은 전차 얻어타기가 힘들었다는 것이다. 두 애는 어미 아비와 조부모앞에, 흥겹게 품속에 넣어 가지고 온 담배보루며 껌과을 솜씨 빠르게 꺼내놓는다. 나는 도리어 그 익숙한 손놀림이 슬퍼서 눈길을 돌리고 말았다』

예나 이제나 아이들은 순진하다. 그천진이 눈물겹다.『큰 애가 내곁을 다가서며 물건 살때 이렇게말하면 잘팔아 준다고 말하면서, 플리즈 셀 투 미, 하고 영어회화를 해보인다. 셀 투 미가 아니고 셀 투미라고 내가 고쳐준다. 국민학교 졸업반이다. 이제 학교엘 보내서 졸업을 시켜야 중학교엘 갈수 있는애다. 이 애가 겅중 뛰어서 영어회화부터 배워 오는 것이다』(黃順元작 曲藝師)

그때 아이들이 지금 어른이며 어버이다. 요즘 어른들은 모여앉으면「요즘 아이들」을 자주 화제로 삼는다. 어버이의 어린시절과 너무 달라졌다. 공부는 더 무섭게 파고 든다. 믿음직스럽게 자라나는것이 대견스럽다. 얼굴이 밝다.



劉榮鍾
【編輯委員】

그런데도 어른과 아이들은 말이 잘 안통한다고 걱정이 대단하다. 제대로 어버이 노릇 하기가 힘겹다는 소리가 자주 들린다. 자라나는 모습이 옛과 다른 탓이다.

어른들이 귀아프게 들려주는「고난의 교훈」이 아이들에겐 선뜻 이해가 안간다. 의사를 소통할 길이 크게 열리지 않는다. 서로가 답답하다는 느낌이다.

미국의 여류 인류학자 마거리트·미드여사는「세대차」의 진단과 처방을 다음과같이 내린다.

「새 세대와 기성세대 사이의 세대차가 유례 없이 심각한 양상을 띤채 전세계적 현상으로 만연되어있다. 그렇지만 서로의 의사소통은 다시 돌릴수 있다. 그러나 어른들이 지나간 시대의 부모나 교사들처럼 자기 분석에만 몰두하여, 자기 젊은 시절의 입장에서 새 세대를 이해하려한다면 의사소통을 열어볼 길은 없다」

요즘 아이들은 그들의 세대를 스스로 만들어 가며 성장하고 있다. 오늘의 변화는 1백년 주기에서 10년주기로 바뀔만큼 그 템포가 빠르다. 어른이나 아이들이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너무 앞질러 나갈까봐 조바심을 친다.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몰아 세우지 말아달라고 항변한다. 청소년문제를 보는 시각은 착잡하다.「이해와 자각의 눈」을 크게 뜨는수 밖에 달리 길이 없지 않을까…

海外토픽

臺灣민요가수 비밀리 中共도착
"音樂공부·하고싶어"新華社발표

호우·데첸(27)이라고 하는 대만민요가수가 대만당국을 무시하고 지난4일 중공에 도착했다고 신화사통신이 10일 보도.

본토와 대만에서「용의 자손들」이란 노래로 잘알려진 호우는 중공에서 음악공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대만당국은 중공공산정권과 모든 접촉을 금지하고있으나 몇몇 대만인들은 홍콩을 통해 비밀리에 中共여행을 하고있으며 이번 호우씨의 경우는 홍콩언론과 신화사통신에 의해 공표되었던것.【AP】

印尼서 개기일식보다 1名불상사 失明

금세기최대의 우주쇼로 불린 개기일식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는 한 사나이의 눈이 멀어버린사건이발생.

현지보도에따르면 네 아이의 아버지인 위지라는 이 사나이는 실명을 우려, 육안으로 일식장면을 직접 보지말라는 당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5분11초동안 진행된 개기일식장면을 지켜보던중 불과 2~3분만에 시력을 잃었다는것.

이외에도 개기일식이 일어난날 해를바라보다가 눈을 다친 사람이 15명이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데 위지를 제외하고 실명한 사람은 없다고.【AP】

敎皇 神父시절작품「父性의 광휘」공연

바르샤바에서는 교황의 조국방문을 5일앞둔 11일 밤 교황의 신부시절 작품인 희곡「父性의 광휘」가 첫공연돼 화제.

카롤·보이칠라(교황의 藝名)신부의 희곡 4편중 가장 나중에 쓰여진 이 64년도 작품은 고독과 父性사이를 방황하는 한인간의 도덕적 갈등을 그리고 있다.【AP】

記者의 눈

우리 10代들의 精神力

한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폴란드. 한국축구가세계의강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다니-꿈만같다. 브라질은 월드컵3회、아르헨티나도 78년 월드컵 주인공이다. 동구공산권의 강호 폴란드는 72년 뮌헨올림픽서 우승했다. 이들에 코리아가 등장했다. 아시아축구수준을 발밑으로 업신여기던 그들로서는 놀라운 사건이 아닐수없다.

12일아침 水原가는 버스속에서 4강진출쾌보를 라디오로듣고 기자는『우리는 우리의 실력을 너무도 과소평가했고 너무도 몰랐다』는 부끄러움을 잠시나마 느꼈다. 국제무대에서 한국선수들이 금메달을 차지했을때 나는 사실이상으로 결과를 美化하기에 급급하지 않았던가.

한국-우루과이경기를 앞두고 AP통신 기자의 글이 떠올랐다. 한국이 우루과이를 물리쳐도 놀랄사람은 거의 없을것이라고 한국의 승리를 간접적으로 암시했다. 그는 申連浩를 가장 뛰어난 선수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 申連浩가 對우루과이전에서 수훈의 2골을 올렸다. 예리하고 정곡을 찌른「기자의 눈」을 본다.

좁은 공간에서는 넓은 하늘이 보이지 않는다. 한국축구도、한국의 축구기자도 마찬가지다. 大河의 흐름을 보기위해서는 보다 넓은 세계를 피부로 경험해야 하는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을하게된다.

청소년축구의 4강진출에대해 일부에서는 매스컴이 지나치게 흥분하는것이 아닌가 꼬집기도한다. 하지만 진짜 흥분할때 흥분하는것은 아무리 지나쳐도 지나침이 없을것이다. 콩알만한 산유국 카타르가 81년 濠洲세계청소년대회서 서독에이어서 준우승을 차지했을때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환영을 받았던일을 기억하고있다.

세계4강에서 2強도약을 준비하고있는 한국팀에게 긴 설명과 찬사는 군더더기일지모른다. 연장막판 申連浩의 결승골을 우루과이쪽에서는 자살골이라고 판단하는 모양이지만 우리의 젊고 늠름한 10대들은 강인한 정신력과 실력으로 기념비적인 업적을 세워놓았다.

48년 런던올림픽으로부터 36년만에 처음 세계에 족보를 올려놓은 한국축구로서는 이제부터 더욱 짐이 무거워 진셈이다. 세계수준으로올라선 청소년의 기량을 더욱 개발, 월드컵에 까지 꽃피게하는것이 축구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체육부 金在契기자】

땅끝에서오다 <82>

金成一 作
宋龍 畵

침묵하는 글자들⑥

준호는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았다. 또 긴 하루가 지나간 것이었다. 그 텅빈 일요일、그 1월 3일부터 벌써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던가. 정말 1982년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대로 뭔가 일어나는 해인가. 1999년 7월에 지구의 종말이 오리라고 예언하고있는 그의 수수께끼같은 4행시들은 행성직렬현상이 일어나는 해에 종말을 예고하는 사건들이 발생하리라고 경고하였다. 천문학자들의 계산에 의하면 태양계의 아홉개 행성이 93도 28분의 최소 각안에 집결하는 행성의 직렬현상은 1982년에 일어나게되어 있었다.

…1999의 해 7의 달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 오리라.

그런 으스스한 시구들이 세기말적 분위기에 휩싸이고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 두려움을 안겨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점장이들이 예고하는 시기 2천년대는 공교롭게도 에너지의 완전고갈, 인구 폭발의 한계점, 공해와 전쟁위기가 극한점에 다다르리라고 예측되는 그시점과 일치하고있었다.

2천3백년전, 바빌론의 점성가 베로소스라는 사람이「대홍수의 해」로 잡았던 2만5천8백27년이라는 숫자가 이집트의 크레드·피라밋의 대각선길이의 총계 2만5천8백26·6피라밋 인치와 일치하는것에 묘한 흥미를 느꼈던 영국 스코틀랜드 왕립천문학회원 피아츠·스미드는 피라밋의 내부통로구조들을 분석하여 인류의 과거와 미래가 BC 4천년9월22일에시작하여 서기2001년9월17일에 끝난다고 결론지었다.

이천문학자의 계산은 바이블이 말하고있는 인류의 역사·즉아담으로부터 예수까지 4천년, 그리고 예수로부터 지금까지2천년…합계 6천년으로 계산하는 것과 일치하고있었다.

이와같은 인류역사 6천년설은 성경학자들이 신의 천지창조날수 6일과 관계가 있다고 해석하는 근거가 되기도했다. 하나님은 6일동안의 대역사를 통하여 천지창조를 끝내신후에 일곱째날 하루를 쉬시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이 일곱째날을 안식일로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그런데…이 명령이 얼마나 엄격하였던지 이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돌로 때려 죽이라고까지 징계조항이 붙어 있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신의 안식 그자체를 기념하기위한 단순한 행사가 아니요, 장차 올 어떤 사실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게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학자들은 해석하고 있는 것이었다. 성경에는 천국의 심판이 이르기전에 1천년동안 하나님의 지상왕국이 실현된다고적혀 있다. 그런데 히브리어의 첫 글자인「알렙」이라는 글자는 1과 동시에 1천을 의미하고 있었다. 그래서 흔히 성경학자들은 성경의 예언속에 나오는 1일을 1천으로 해석해보는 것이 정석이었다. 그렇게보면…6천년의 인류역사가 끝난후 제7일째, 즉 7천년째에는 성경이 말하는 천년왕국이 도래한다는 것으로 해석될수도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구약성서에 나오는 호세아선지자가「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틀후에 살리시리라」하는 예언도 바로 서기2천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바로 예수자신의 부활까지 장래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될수도 있었다. 그는 이틀동안 무덤속에 있었고, 제3일에 부활했던 것이다.

張吉山 <1766>

黃晳暎 作
崔然石 畵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226)

그들은 봉산 만동이네 세마를 내어타고 달렸어도 열이레날 깊은 밤에야 수태사에 당도 할수가 있었다. 대성법주는 길산이 두아우와함께 당돌하게 온것을 보고도별로 놀라지않았고 당연하다는 기색이었다. 흥성산 유민촌의 전성달이도 법주스님과같이 있었다. 길산은 예동후 법주스님에게 말하였다.

『오늘이 이레인데 틀림대로한다면 거사일은 내일이 아니냐。우리는 모두 그믐으로 알고 있었다』

『여환당이 너무 자신의 교세를 믿었던 모양이다. 아무튼 네 얼굴이라도 이렇게 보고 나니 좀 답답한 마음이 풀리는구나』

대성법주는 이어서 말하였다.

『가평 현동사에서 아침에 풍옆스님의 전갈이왔었다. 절대로 동요하지말고 앉으라는 게야. 다음을위해서 힘을 아끼자는 것이지』

전성달은 길산과 대성법주의 안색을 번갈아 살피며 애타게 호소하였다.

『그럼…근기(近畿)의 저 수많은 가없은 백성들은 어찌되는 겁니까. 양주의 미륵도는 모두어육이 되고맙니다. 지금이라도 늦지않았습니다. 군사를 모으도록 하시지요』

길산은 대답이 없고 법주가 말하였다.

『안되우。우리가 승병을 다 모으려면 앞으로 아무리 빨라도 닷새는걸리지요。이미 양주서 발정을 하였다니 우리가 잘못 움직이면 필시기찰에 걸릴 거요。처음 거병날짜가 그믐으로 정해져 있어서 모두들 그렇게 알고 있으니 지금 변경되었다는 기별이 다 닿을까도 의문입니다. 몇몇 사람이 희생이 되어도 일단 씨는 뿌려진 셈이지요. 지금 우리가 해야될 일은 어서 꼬리를 잘라야하는것이오。여환당과 양주인들에게 우리의 거병 계획을 아는 사람들 중심으로 뒷일을 수습할 책임을 맡겨 두어야 합니다』

전성달은 힘없이 어깨를 늘어뜨리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다면…저희는 일단 피하겠습니다』

장길산이 그제서야 입을 열었다.

『전서방이 이번일에 깊이 연루가 된것은 여러 미륵향도들이 다 알고있을게 아니오?』

『그야…물론 저는 삼좌를 맡았으니 양주사람들 뿐만 아니라 삭녕 사람들도 다들 알겠지요』

『전서방이 혼자 피해버리면 흥성산의 구월산유민들은 모두 관의 침하를 면치못할 것이오』

전성달은 곧 길산의 말을 이해하였다. 그는 누구보다도 침하의 결과를 잘알고있었으니 구월산의 토포때에 이미 겪은 일이었다.

『피하지 않으면… 날보고 잡혀서… 죽으라는거요?』

길산은 고개를 숙였다.

『다른 식구들을 생각해보시오。그 사람들은 이제 더이상 다른곳에 갈곳이 없소。전서방이 오히려 함께 들어가 여환스님과 황거사 같은 이들에게 깨우쳐 주시오』

구독신청은 533·2361

제7회 고교동창대항 OPEN골프대회

■일　　시 : 1983년7월1일 금요일
■TEE－UP 12 : 30 PM
■장　　소 : GLEN EAGLE GOLF CLUB
■참가자격 : 1. 각동창회 3인이상
　　　　　　2. GUEST로는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음.
■참 가 비 : 개인 35불(디너대 포함)
■동창회참가비 : 50불
■연 락 처 : 정연대 B)259－7733 R)749－0220　정길수 826－4312
　　　　　　손병헌 B)532－0210　이무교 463－3489　조용철 291－5978 (무순)

■접 수 처 : 한국비데오센타/678 Bloor St. W. ☎532－0210
■심사위원 : 정연대, 정길수, 김현모, 김진기, 조용철, 고광남 (무순)

□시상
에뉴얼트로피

동창회	Gross 1, 2, 3등		Longest 1등
	Net 1, 2, 3등		Nearest 1등
Guest	Gross 1, 2, 3등		Honest 1등
	Net 1, 2, 3등		모범학교 1등

주최 : 삼척공고동창회　동창회장　정유화
후원 : 각고교동창회, 토론토한인골프협회

奇蹟의 女神도 우리편에…士氣최고
저돌적 공격·철벽수비로 맞서겠다

◇李文榮 슬라이딩 善防 한국 GK 李文榮(右)이 우루과이와의 8강전에서 우루과이 공격진의 대시를 멋진 슬라이딩캐치로 막아내고 있다. 【몬테레이12日AP特約=聯合】

【몬테레이(멕시코)=安奉煥특파원】 크로스바도 한국을 응원했다。연장종료 3분전 우루과이 소사의 슛이 크로스바위로 튕기지않고 그물안에 들어갔다면 승부킥의 고역을 치러야 했을것이다。아뭏든 한국은 축구왕국이라는 우루과이를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물리치고 또하나의 난적 브라질과 4강전에서 맞서게되었다。

한국、16일 待望의 決勝진출戰 세계청소년蹴球

상승무드를 탄 한국선수들은 겁이없는것같다。이런 기세라면 브라질도 두렵지 않다는 자신만만한 모습이다。

격전의 피로와 신경전으로 눈언저리가 붉게충혈된 朴鍾煥감독은『한국축구의 궁극적 목표는 세계제패다。당장 이목표가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지만 지금처럼 한단계한단계 올라가면 산꼭대기를 오를수 있을것이다。브라질과도 한번해볼만 하다。승패의 부담감을 덜 갖고 싸우면 이번에도 좋은 경기를 펼칠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그는 남미와 유럽팀들이 개인기만믿고 산만하게 경기를펼치는 느낌을 받았다고 지적、조직력을 더욱 가다듬어 한템포가더빠른 공격의축구를 벌이면 브라질과도 명승부를 할수있다고 말했다。

朴감독은 TV로 브라질―체코간의 8강전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패스가 빠르고 개인기가뛰어난선수들이 많다。특히 공수전환이 빠르고 문전에서의프리킥이 날카로왔다。그러나 경기는 상대적이기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수비강화대책을 세워 밀고나간다면 체코와의대전때처럼 마음대로 뛸수없을것이다』

朴감독은 우루과이와의 대전 전반에서 盧仁佑가 페널티킥을 실축했을 당시를 회상、『잘 차려다가 실패했는데 그것이 큰문제가될수없으며 결코질것같은 느낌이 들지않았다』고 말하면서 하프타임때 盧仁佑에게 기운을내고 뛰라고 격려했다고 털어놓았다。

盧仁佑가 부담감을 떨쳐버리고 후반에서 잘뛰어 훌륭히 득점을 어시스트하여 무엇보다 기쁘다고 했다。

한국선수단은 16일 對브라질전에 대비、13일부터 몬테레이에서 집중적인 전술훈련에 들어갔다。

<朴鍾煥감독의 6가지공격作戰>

거미줄같은 숏패스 위주 敵陣돌파등

축구에는「작전타임」이 없다。공격이 막혔다고、수비에 구멍이 뚫렸다고 경기를 중단시킬수는 없다。

강한 수비에 부딪쳤을때 어디서 공격의 돌파구를 찾을까。

한국은 상대수비형태에따라 카메레온처럼 급변하는 눈부신 공격작전으로 섬난파도처럼 상대 골문을 기습、세계4强의 신화를 만들어냈다。

낮게 깔려 가로 세로로 이어진쇼트패스는일품이었다。

한국청소년축구팀의 사령탑 朴鍾煥감독이짜낸 6가지의 공격작전은 거미줄처럼 정교하고 조직적이었다。정밀한쇼트패스에의한2대1돌파를 바탕으로 수시로 공격작전을 바꿔 상대를 교란했다。

차감독의 사인으로 시작되는 작전1호는 중앙의 풀백이 양날개에 볼을 주면 윙은 안으로 치고들어가며 링커와 자리를 바꾼다。

2호는 양풀백이 정통 오픈·스타일로 윙에게 패스한 볼을 윙이 안으로 치고들어가다가 오버래핑하는 풀백에게 다시 연결하는것。

3호는 링커와 2명의 포워드가 폭을 좁혀 오버래핑하며 중앙을 돌파하는 협공작전。

4호는 윙과 링커가 2대1패스를 한뒤 링커가 상대수비를 교란하면서 양날개로 빠져나간다。

5호는 일반적인 중앙돌파작전。

6호는 5호가 막혔을때 양날개로 재빨리 공격폭을넓혀 돌파구를 찾는 작전이다。

차감독은 벤치에서 그라운드를 한눈에 조감하며 마치 야구감독이 사인을내듯 끊임없이 사인을 보낸다。지난해 8월부터 작전을 익히기시작한 선수들은 원격조정된 미사일처럼 날카롭게 상대골을 파고들었다。

"世界에 충격"

外信들 讚辭…中共서도 報道

한국청소년 축구가 세계4강에 오르자 AP통신을 비롯한 주요매스컴은 일제히 놀라움과함께 찬사를 보냈으며 中共의 北京방송도 8강진출 사실을 보도했다。

한국일보
구독신청·광고
(416)533-2361

무서운 得點力의 天才 국내외서 34골

"아시아의 새 스트라이커"세계耳目 집중

申連浩 청소년蹴球「별중의 별」(上)

申連浩(19·고려대)야말로 멕시코에서 제2의 축구인생을 꽃피운 스트라이커다。

사자의 咆哮처럼 거칠고 매서운 득점력을 보인 申에 대해 유럽과 남미의 전문가들도 칭찬을 아끼지않았다。

예선2차전 멕시코와의 경기서 결승골을 터뜨리기 전만해도 그는 한국팀의 평범한 공격수에 지나지않았다。

우루과이와의 준준결승서 터뜨린 천금의 두골은 한국청소년축구를 사상 처음 세계4강대열로 끌어올렸고 세계의 기존질서를 뒤흔들어놓았다。최고강도의 지진이었다。

오늘의 申連浩를 만든요소는 천부적인 소질이다。슛을 할수있는 위치、골을 넣을수있는 장소에 전광석화처럼 나타나 뛰어난 순발력으로 골을 결정한다。이런 능력이없었다면 세계무대의 예비스타로 떠오르지 못했을지 모른다。

申連浩(1m77、68kg)의 이름이 국내팬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것은 82년 청소년대표로 처음 선발되었을때。그해 8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멕시코세계대회파견 아시아지역 동부예선전에 출전했다。4강 결선에도 오르지못한채 예선탈락、첫 국제대회서 참담한 쓰라림을 맛보았다。

한국은 지난해12월 인도아시안게임서 북한이 난동으로 세계연맹과 아시아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를 당하는바람에 최종 4강전에 출전하는 뜻밖의 행운을 잡았다。

「규엘리 쇼크」로 진통을 겪던국내축구계는부랴부랴 청소년팀을 재정비、1주일 연습을 한후 작년12월 泰國으로 떠났다。4강 풀·리그 이라크와의 최종전서 한국은 李基根(한양대)의 선제골에 이어 申連浩의통쾌한 다이빙·헤딩슛으로 우승、멕시코 세계대회에 출전할수있었다。

국제무대서 申連浩는 항상 한국의 승리를 확정하는 마무리득점을 올렸다。야구의굿바이홈런과같은것이었다。그의 슛과 순발력、돌파력、득점결정플레이는 西獨프로축구의 맹장 게르트·뮐러를 닮았다는 평을 듣고있다。4강전서 결정타를 터뜨린후 지난2월열린 제1회泰國세계청소년축구대회서도 우승을 굳힌 귀중한 골을 따냈다。대오만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했고、강호 소련과의 준결승 1차전서는 결승골、결승2차전서도 우승을 마무리하는 골을 넣어 동료 李基根과 함께 6골로 최다득점선수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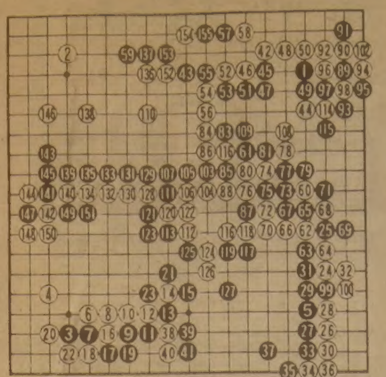
지난3월 光州錦湖高를 졸업하고 高麗大에 입학하기전에는 錦湖高를 전국2관왕으로 끌어올렸고 국내대회 22골、국제대회 12골등 34골이라는 무서운 득점력을 보였다。

물론 아직은 미완의 대기다。외신에서는 아시아에서 나타난 드문 스트라이커라고 칭찬한다。

그러나 앞으로 어디까지 성장하느냐에 대해서는 확실한 진단을 내리기 어렵다。세계적선수가 될수있는 잠재력만은 이번대회를 통해 인정을 받고있다。【閔炳宅기자】

◇未完의大器 車範根이후 가장 믿음직한 공격수로 기대를 모으고있는 申連浩。국제경기때마다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골을 넣어 갈채를 받고있다。

第14기 名人戰



第18局 總譜 1~152手完 (각5시간·[illegible])

白(4段) 李 相 澈 (1勝5敗)
黑(7段) 徐 能 旭 〈3勝3敗〉

黑、퍼펙트게임

【黑不計勝】徐7단은 3승3패가 되어、지극히 어려운 입장이지만 시드組에 잔류할 희망이 생긴 셈이다。현재 河燦錫 7단、[illegible] 7단、[illegible]4단이 모두 3패의 선에 있기때문에 이들3명중 2명이 1패씩 기록할 경우는 徐7단이 여분에 남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않고 3패자중에서 가려내게 된다면 물론、서열이 하위인 徐7단이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한다。이렇게되면 타력에 의존할 입장으로서 운에맡길 밖에 없는 일이다。

이런까닭에 이바둑은 徐7단에게 일단 관계가 있는 한판이었지만 이미 4패를하여 탈락이 결정된 李4단에겐 무의미한 것이었다。

비록 그렇지만 [illegible] 외식하며 [illegible]까지 최선을 다하여 [illegible]한 내용의 기보를 남기지 못한점、누구보다 본인의 아쉬움이 컸을것이다。

여하간 李4단은 투지가없는상태에서 [illegible]한것이 사실이다。白6이하 黑23의 점석도 사실상 초반에는 잘쓰지 않는것이다。더구나 우하귀에 黑5가 있을경우는 절대로 피해야 된다고한다。

다만 黑25로 28자리를 지키지않은 탓에 白26이하 32까지、白도 [illegible]만했는데 白34가 시기상조(이수는 43자리에 선착할시기)였고 54가 조급했으며 66에뻗지않은 64가 최후의패착。이로부터 白은 자멸의길을 [illegible]다。101…89 【[illegible]】

【멕시코시티 AP聯合=特約】 제4회 세계청소년축구대회에서 한국이 준결승전에 올랐다。

한국을 압도할것으로 여겨졌던 축구강호들이 차례로 무너졌다。

한국팀에 비밀스런 무기가 있었던것은 아니다。한국은 전후반 90분을 뛰고 또 뛰었다。

어느 축구전문가도 예상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충격이 일어났다。

세계축구의 발전소 우루과이를 떨쳐낸 것이다。

대학선수들이 주축이된 한국은 이번대회들어 가장 치열한 격전을 벌인끝에 우루과이 프로1부선수들을 깨뜨렸다。믿어지지 않을정도의 신체조건을 활용했다。

멕시코와우루과이는쇼트패스로 한국수비를 뚫으려했으나 2~3명의 한국선수들이 볼가진선수를포위、패스를 막고 볼을 차단했다。멕시코전에서는 프레스전술이 적중했다。경기종료직전 넣은 결승골도 루스볼을 잡아 번개같은 반격으로 만들어진것이다。

우루과이와의 경기는 더욱 눈부셨다。갑작스런 반격을 시도、단독드리블로 첫골을 올리고 두번째 결승골도 빠른 문전쇄도로이뤄졌다。

연장전까지 1백20분간 한국은 시작할때와같이 열심히 뛰었다。

멕시코신문들은 유니폼의 색깔과 강렬한 플레이를따서「붉은 귀신」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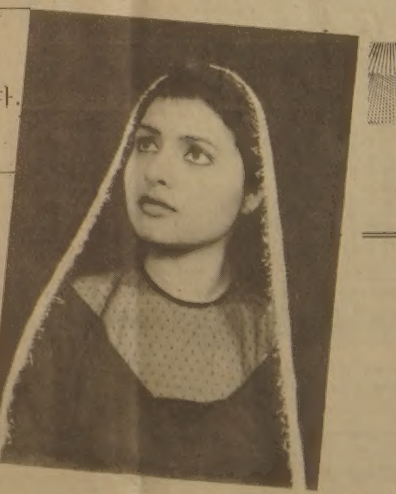
◆이번 세계 청소년대회서 가장 큰충격。우루과이의 먹이(준결승진출을 위한 작은 장애)쯤으로 생각되었던 한국이 빠른 패스、거센 도전、쉴새 없는 러닝으로 환희의 승리를잡다。【聯合】

◆박진감넘친 공격、놀라운 볼컨트롤、훌륭한 팀웍、번개같은 반격으로 우루과이를 4强권에서 밀어내다。누가 한국의 급행열차를 멈추게 할것인가。붉은 유니폼의 분노、드디어 폭발。【UPI】

사진의 전당 새한칼라확장이전 이전일 7월1일

644 Bloor St. W. (신용조합 앞)

교민 여러분의 성원하에 저희 새한칼라가 오는 7월1일 부터
644 BLOOR ST. W. (신용조합 앞)으로 확장이전하게 되었읍니다.
앞으로 많은 격려와 성원을 바랍니다. 대표 이인덕 올림



이전기념리셉션
7월 5일
오후 7시 부터 10시까지

각종 필름
공급및
현상, 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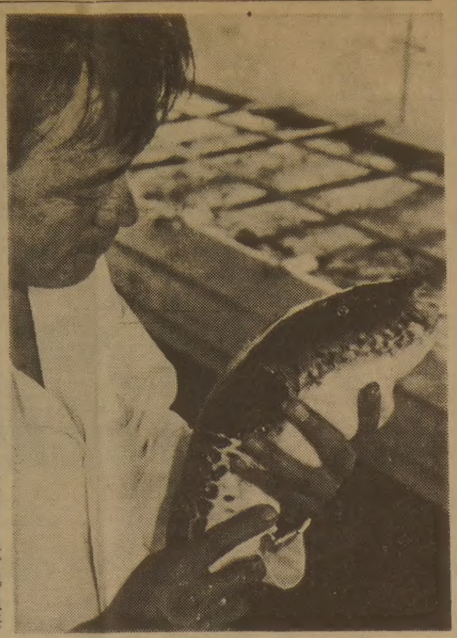
이전기념특별봉사
□독사진 □가족사진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 40% OFF
□결혼사진 스페샬 $299.00
(7월1일부터 8월30일 2달간)

저희 현상소에서는 교민여러분이 필요한 각종 사진을 충분히 촬영 제작할 수 있는 최신기재와 기술을 갖추고 있읍니다.

각종 기념사진 촬영
각종 광고사진 촬영
각종 상품사진 촬영
기업 설비사진 촬영

새한칼라
현상소
644 BLOOR ST. W.
TORONTO
535-7772
대표 이인덕

싼값에 먹을수 있다
복어 人工수정 성공
고기따라 맛을따라


◇美食家에 회소식 — 복어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인공수정에 성공, 대량생산을 앞에 두고있다。수산진흥원 麗水배양장장 盧邁씨가 인공수정이 끝난 암컷 자주복어를 들어보이고있다。【禰周勳기자찍음】

【麗水이동사회부=金宗來·申載旻기자】미식가들이 복어(鰒魚)를 싼값에 즐길수있게 됐다. 국립 수산진흥원 麗水지원 수산종묘 배양장(배양장장 盧邁·41)은13일 국내최초로 복어인공수정에성공, 복어를 양산할 수있는길을 텄다. 특이지닌맹독성때문에 기피 생선이던 복어는 70여년전 조리법이 개발되면서 대중화돼갔으나 일본 수출량이 증가 추세인데다가어획량도 점차 격감돼 품귀현상이자주일었다。때문에 값도 뛰어 10년전 麗水의 산지값이 ㎏당 40원이었으나 지금은 4천원으로 1백배나 올랐고 일본에서도 1만원을 홋가한다。이날 배양장에서 인공수정된복어알은 2~3일 후면 부화돼 40여일간 배양장에서 양식된다음 치어(稚魚)가 되어 일반양식업자에게 분양되거나 바다에 방류하게된다。

麗水 국립水産종묘배양장

이번 인공수정에성공한 복어는 복어가운데 가장 크고 맛있으며 또 비교적 맹독성이 적은자주복。

배양장장 盧씨에 의하면 복어의인공부화는 잔손질이많이가 까다로울뿐더러 시설과 인원의부족때문에 그동안 손을대지못했다。

麗水배양장은 지난80년전복, 82년 피조개의 인공배양에도 성공했다。이같은경험을 살려 이번에 복어에서도 성공한것인데 그동안 복어의 인공배양을 여러번 시도했으나 근해에서 암컷성어가 잡히지않아늦어진것。

복어의 산란기는 5월중순~6월초로 인공수정을 하려면 이시기에 동지나해에서 겨울을보낸뒤 우리나라근해로 회귀하는 성어를 붙잡아야한다。그러나 과거에 많이 붙잡히던 麗水앞바다나 狼島 龍岩 西上은물론、부산 경남三千浦忠武 강원注文津등지를 직원들이 20여일동안 찾아다녔지만 암컷 성어를구할수 없었다。

麗水배양장은 한는주 없이 전남麗川郡 당국과 협조、근해에서는 금지돼있는 저인망에의한 포획허가를 얻어 어부들에게 부탁、지난5일 전남麗川郡突山邑栗林里앞바다에서 4년생 2·5㎏짜리(전장36㎝)암컷1마리를 겨우 붙잡았다。

이번에 시도한 방법은 습도법。이는 정자와 난자를 물속에서 수정시키는 대부분의 어류 종묘생산법이아니라 포화습도상태에서 물을 제거하고 수정하는 방법。

먼저 1시간 가량 암컷과 수컷의 배를 손으로 눌러짜 무정란과 정액을 플래스틱으로된 채란수저에 받아 20분간 붓으로 골고루 섞어 인공수정한다。

수정된 알은 가로35㎝ 세로50㎝크기의 얇은플래스틱채묘기에 옮겨 붙여 바닷물이든 대형 부화기에 담가 놓는다。

이같이 수정된알은 모두 10여만개로 66개의 채묘기에 옮겨졌다。

이후에는 부화기의 바닷물을 매일갈아주되 수온을 7~8도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산소를 공급해주면 1주일후에 새끼(仔魚)가 탄생한다。

생후 40일이되면 전장이 2㎝로늘어나 자연상태에서의 생존율도 갓태어났을때의 2~3%보다 20배 높은 40~60%나돼 방류가 가능하다。

크고 毒적은 자주복 분양하고 바다放流

복어는 주성분이 단백질이고 비타민A·B1·B2등 영양가가 풍부하며 맛이 담백한고기。게다가 류머티즘·신경통·관절염·치질·부종등은물론 숙취해소에도 신비할만큼 효험이 있는것으로알려져 미식가와 40~50대의 중년층, 특히 애주가들에게는 인기가 많은 음식으로 조리되고 있다。

그러나 껍질·알·장·피속에 테트로클로톡신(Tetroclotoxin)이라고하는 맹독이 들어있는데 그독성이 청산가리의 13배나돼 쥐는 1g의 1천만분의1만 먹어도 즉사한다。

복어는 1백여종으로 우리나라 근해에서는 30여종이 잡힌다。

이가운데 사람이 먹는것은 자주복·졸복·복섬·매리복·까치복·칠복등10여종。특히 자주복은 전장이 최고70㎝나돼 다른 복어에비해 2~3배 크고 껍질과 수컷의 정소(알집)에 독이없으며 장에도 비교적 적게들어있어 인기가 높다。

비타민·한약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 W
B536-1692
H245-3539

단비週末… 교통사고로 얼룩
列車·버스충돌등 9件 14명死亡·百50명 負傷

【地方=總】전국적으로 단비가내린 12일과 13일상오 부산등에서 2건의 철도건널목사고가 나는등 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14명이 숨지고 1백50여명이 부상당했다.

12일 하오5시20분께 경남 梁山郡機張邑淸江里 한국아그로브 요업주식회사 정문앞 20m 지점에있는 동해남부선 철도 건널목에서 부산을 떠나 대구로가던 제862호 완행열차(기관사 배정현·51)와 아그로브 요업 소속 경남 5가2811호 통근버스(운전사 김춘식·34)가 충돌 아그로브요업 시유반장 송강현씨(41)등 직원 5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최미희씨(27·여)이갑술씨(43)등 36명이 중경상을 입고 機張邑 대인의원·海雲臺반도병원등 9개병·의원에 입원, 가료중이다.

이날 사고버스는 퇴근하는 회사직원 59명을 통근버스에 태우고 회사를 출발, 회사앞 20여m 떨어진 철도건널목에 이르렀을때 짙은안개에도 불구하고 버스운전사 金씨가 일단정지를 무시하고 그대로 지나가다 시속 60여㎞로 달려오던 열차에 뒷부분을 들이받혀 일어났다.

사망자 명단

▲송강현(41·釜山 海雲臺區 佑1洞)▲김용출(24·梁山郡 機張邑 대변리 485)▲전정출(17·釜山 海雲臺區 栽松洞 432)▲이기용(27·海雲臺區盤如洞 1291)▲김병윤(釜山 南區 大淵5洞148)▲조용기(26·梁山郡 機張面 연화리)

▲13일 상오 6시10분께 부산釜山鎭區 田浦洞 신진여객앞 우암선 철길건널목에서 창신여객소속 부산5자2817호(운전사 추순구·30) 시내버스가 건널목을 건너려다 釜田역에서 우암역으로 가던 제5233호 화물열차(기관사 하길웅·45)에 차중간부분을 들이받혀 버스가 10여m나 튕겨나가 철도변에있는 서일순씨(45·여)의 집등 5채의 무허가 판자집을 덮치는바람에 서씨등 주민과 버스승객등 15명이 중경상(중상 4명)을 입었다.

▲12일하오1시께경북月城郡江東面有琴2里앞 慶州-浦項간 산업도로에서 浦項쪽으로가던 경북7가8641호 자가용 1톤트럭(운전사 예용출·43·경북盈德郡盈德邑江口里340)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2명이익사했다.【總】

海岸 해갈·內陸 갈증
휴일 全國에 비… 16일께 소나기

계속된 가뭄끝에 휴일인 12일 전국적으로 단비가내렸다.

이날 새벽부터 전국에걸쳐 내리기시작한 비는 13일상오까지 西歸浦66.7㎜를 비롯, 莞島65.7、江陵44.1、麗水40㎜등 남해안과 영동지방에 평균50㎜이상이내려 해갈에 큰도움을 주었으나 서울·중부와 영·호남 내륙지방엔 10㎜안팎밖에 오지않아 갈증만더했다.

기상대는 주중인 16일과 주말인 19일께 각기 한차례씩의 소나기가 예상된다고 밝히고 월말에 남해안에상륙할 예정인 장마때까지 가뭄은 여전하겠다고예보했다.

지방별 강우량은 다음과 같다.(단위㎜)

▲서울=11·4▲水原=10·9▲大田=10·3▲淸州=11·6▲江陵=44▲全州=2·7▲光州=3·9▲莞島=65·7▲大邱=13·6▲忠武=35·3▲釜山=29·4

收復지역의 主人없는땅 來1일부터 소유권申請

수복지역의 주인없는 땅에 대한 소유권신청이 오는7월1일부터접수된다.

내무부는 13일 6·25때등기부등이 없어진 경기坡州郡、漣川郡、강원東草市、鐵原華川郡등 11개 시군의 주인없는땅 18만6천필지의 1천4백48㎢에 대한 소유권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소유권신청은 실소유자가 마을주민등 3명이상의 보증인을 세우거나 매매계약서등 증빙서류를갖춰 제출하면 사실조사를 한다.

한국 첫「聖人」품위
교황청 金大建등 순교자 百3명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인 金大建신부를 비롯한 조선조말 순교자1백3명이 천주교전래 2백주년(84년)을 맞이하여 聖人품위에오를수 있게 되었다.

이사실은 교황 요한·바오로2세가 11일 한국천주교 주교단이 순교복자 1백3위를 聖人반열에 올려줄것을 요청한 청원에대해 결정적관건이 되는 기적심사를 면제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밝혀졌다.

한국주교단은 지난 76년4월 순교복자 1백3명을 聖人품위에 올려줄것을 교황청에 청원, 심사의 큰관문인 성령에의한 기적의증거를 제출해놓고 있었는데 교황이 이 절차의 면제를 허락함으로써 聖人탄생은 앞으로 간단한 요식절차만 남게 됐다는 것이다.

이들의 시성식은 내년봄으로 예정돼 있는 교황의 한국방문때 까지는 이루어질것으로 전망되고있다.

福者는 지역적 사건으로 국한하나 聖人품위에 오르게되면 전세계천주교의 사표로 경모의대상이되며 교회력에 축일이 따로생기고 성인의 이름으로 영세명을 지을수 있게돼 국제사회에서 한국천주교의 비중이 크게 부각되는 계기가 된다.

천주교 2백주년기념 사업위원회(위원장 金南洙주교)는 지난 3월5일한국에서 많은 순교자를냈고 신자와 성직자가 늘고있으나 서양처럼 가정의제도가 확립돼있지않아 많은 치유기적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주한교황청 대사 프란치스코·몬테리시 대주교의 추천서를 첨부, 기적심사면제청원을 교황청에 냈었다.

천주교 순교자 1백3위는 1925년에 79위, 68년에 24위가 각각 복자(福者)반열위에 오른뒤시복식을 로마에서거행됐었다.

한국援護大賞 시상
本社제정、沈永仁씨등 5명

전쟁으로얻은 슬픔과 시련을 극복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상이용사、전사상자 유가족등 5명에게 한국일보社가 제정한 제10회 한국원호대상이 수여됐다.

13일 상오11시 한국일보社12층강당에서 열린 한국원호대상시상식에는 李種浩원호처장、金鍾燦군회장、金相吉광복회장、尹善一상이군경회장등 각원호단체장과 원호대상자가족 4백여명이 참석, 수상자들에게 상패와 격려금이 수여될때마다 뜨거운 격려의박수를 보냈다.

시상식에서 張在九한국일보사장은 沈永仁(42·상이용사·경기安養市飛山洞주공아파트103동204호)姜今子(64·미망인·全州市德津洞1가436의9)李得九(30·유족·서울道峰區水踰1동472의58)全慶分(28·상이용사아내·仁川市南區間石洞주공아파트46동204호)孔今分씨(33·상이용사아내·경북迎日郡松羅面地境里32)등 5명에게 공적을 새긴 상패를 수여했고 李원호처장은 격려금60만원과 탁상시계 1개씩을 전달했다.

올해 원호대상 심사위원장을 맡은 金尙浹회장은심사경위보고에서 원호처와 한국일보社를 통해 추천된 14명은 하나같이 자활자립의 귀감을이었다고 밝히고 『이웃을 돕고 사회를위해 이바지한 정도를 따져 수상자를가렸다』고말했다.

◇영광의 수상자들。㊧로부터 沈永仁씨 姜今子씨 李得九씨 全慶分씨 孔今分씨。

5行뉴스

◆炭더미무너져광부1명壓死
【寧越】13일 새벽 3시20분께 강원 旌善郡 舍北邑 舍北3里 동원탄좌 우성광업소 1070갱 1천2백m지점 막장에서 채탄작업을하던 선산부 정훈섭(45) 후산부 신영식군(19)등 2명이 갑자기 천장에서무너져내린 1톤가량의 탄더미에 깔려서 숨졌다【總】

◆낚시꾼 溺死體로 발견
【春川】12일상오8시께강원春城郡北山面梂谷里앞소양호 상류에서 서울영도낚시회 회원인 王재춘씨(44·서울江西區禾谷洞)가 낚시가방을 등에멘채 숨져있는것을 이마을 李기연씨(32·여)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總】

◆동생구하려다 兄도 溺死
【木浦】12일 하오5시께 전남木浦市儒達洞 木浦 제일여고뒤 제2수원지에서 미역을 감던 金相律씨(42·木浦市西山洞4)의 장남 贊友군(15·儒達中2년)과 2남 贊元군(11·儒達국교5년)등 형제가 물에 빠져 숨졌다.【總】

◆野山서 男女 변사체
【榮州】12일 하오2시께 경북榮州郡豊基邑 水鐵洞 희방사 입구 야산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이는 30세가량의 남자와 35세 가량의 여자가 숨져있는 것을 崔진록씨(32·인천시 中區 中央洞 4街8)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總】

◆國校生형제 안방서 燒死
【榮州】12일하오10시30분께 경북 榮豊郡平恩面金光里260 농협단위조합장 姜聲國씨(38) 집에 불이나 안방에서 잠자던 姜씨의장남 병구군(9·平恩국교3년)과 차남 신구군(7·平恩국교 1년)형제가 불에타 숨지고, 집을 모두태워 4백여만원의 재산피해를냈다.【總】

廢車고철분쇄기 爆發
3명다치고 건물完破

13일하오2시40분께 서울九老區 九老1洞426 서울시 지정폐차사업장인 한국 슈레더 산업주식회사(대표 鄭文源·45) 폐차및 고철분쇄기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작업장안에 있던 전기주임 柳完茂씨(47)와 작업장밖에서 해체작업을하던 폐차해체반장 李海周씨(29)등 3명이 부상을입고 병원에 입원, 치료중이다.

이 사고로 가로10m, 세로10m, 높이12m의 건물이 기둥만남은채 완파됐고 기계도 크게부숴졌다.

폭발사고가난 폐차및 고철분쇄기는 지난해1월이 회사가 문을열면서 美國에서12억원에 들여온 국내 하나뿐인 기계다.

경찰은 일단 분쇄하려던 폐차나 고철에 종류를 알수없는 가폭성물질이 섞여있어 회전해머의 충격으로 폭발한것이 아닌가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다.

한국슈레더는 폐차를 1시간에 40대가량 처리, 하루 3백20대를 폐차처분해왔는데 이 사고로 기계의 전기조정판을 수리하는데 1주일정도가 걸려 이기간동안 서울시내의 폐차작업에 차질을 빚게됐다.

거룻배 뒤집혀 사공등 둘溺死

【春川】12일 하오4시20분께 강원도 春川市三川洞 계림산장앞 20m지점 의암호에서 낚시꾼등 7명을태운 거룻배가 침몰, 사공朴준흥씨(28·春川市孝子洞68의54)와 낚시꾼 金연화씨(26·여·坡州郡泉峴面加野里)등 2명이 익사했다.【總】

운전사 自首
國校生치어 밭에버려

【順天】속보=지난8일하오 5시께 전남 順天市鱗蹄洞 城南국교앞 횡단도로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동교2년 金三龍군(9)을 치여 중상을 입힌후 차에태우고 6㎞떨어진 昇州郡 西面鴨谷里뒷산 밤나무 밭에 버리고 도주했던 전남7가1381호 2.5톤 트럭운전사 金東煥씨(42·光州市 北區 中興1洞 806의8)가 13일하오4시 順天 경찰서에 자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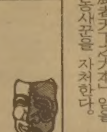
金씨는 사고후 金군이 죽은것으로 알고 산속에 버리고 서울로 도주했었다.【總】

27萬弗사건 관련 退職했던 鄭命澤씨 변호사 休業할듯

변호사개업을했던 鄭命澤변호사(40)가 최근 자진휴업, 곧 변호사휴업계를 낼것으로 알려졌다.

鄭변호사는 지난해 9월 서울지법南部지원에서 27만달러사건의 재판장을 맡아 李在完피고인(36·미투리제화대표)의 보석을 허가했다가 지난1월 대법원장비서관 姜鍾用씨가 보석청탁사건으로 구속되는등 물의를 빚은뒤 사표를 제출, 이달초순께부터 서울에서 변호사개업을 해왔다.

「猝富」가 싫다
13代째 농사꾼 元昌喜씨
"흙 내음이 돈 냄새보다 구수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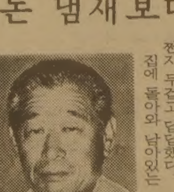


경제발전이 우리사회에는 많은 猝富가 생겨났다. 특히 대도시근교에서 대대로 농사를 짓다가 땅값이 뛰어올라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사람들도 적지 않다.

서울江西區 新月1洞136에서 13대째 물려온 문전옥답을 일구며 살아온 元昌喜씨(62·사진)도 그런猝富의 한사람. 도시계획등으로 땅을 뺏기고도 10억대가 넘는 재산을 자랑한다. 이때문에 「元부자」란 별명이 붙었지만 「農者天下之大本」임을 내세우며 농사꾼을 자처한다.

그러기에 차츰차츰 좁아져가는 땅을 바라보노라면 가슴이 더쓰리다. 새파란 모대신 여관과 안마시술소가 들어 스다니…1만평에 가까왔던 땅이 기천평으로줄어들었을때 이를 지키기위해 마지노선을 구축했다. 여섯아들의집을경비초소처럼주위에세웠다.

그래도 이곳에 뼈를 묻었던 7대조상의 묘를 龍仁으로 이장했기 때문인지 마음은 항상 허전하기만하다. 묘를 이장할때 그는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흘렸다. 못난 후손이라는 자괴감도있었지만 자신의 뿌리를 파헤치는 슬픔을주체하기가 어려웠다.



할수없이 둘째아들을 龍仁에농토를 마련해주고 묘지기를 하게했다. 그러나 마음은 항상 도시의 불빛을떠나 농촌의 흙냄새속에 가있다.

지난주말에는 한동네에사는 여러 아들과 며느리·손자들을데리고 둘째아들의 논에 모내기를갔다. 정말 흙냄새는 구수하고 좋았다. 흙속에 파묻혀 살아온 자신의 옛 자화상을 되살려 볼수있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발길은 어쩐지 무겁고 답답했다.

집에 돌아와 남아있는 대지중 1백평에 밭을 일구었다. 때지났지만 상치씨앗을 뿌리고 물을주며 도시속의 農心을 가꾸어 보았다. 순간이나마 마음이 뿌듯했다. 역시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을적셨다.

그래서 올가을에는 꼭 둘째아들이 낙향에 있는 龍仁으로 내려가 農心을 가꾸며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다진다. 농사꾼은 농사꾼나름의 분수대로 살아야한다는소신은 날이갈수록 강해지고있다.

【韓基奉기자】

개인지도

치과기공 개인지도(Crown & Bridge Ceramic)
짧은 기간내 적은 경비로 많은 소득을 얻는 기술.
(낮)636-1435, (밤)635-7116 박창우

바이올린 개인지도함.
전화 : 535-0708 Mr. 박

바이올린 개인지도함.
Professional Violinist with Ba, Music, A.R.C.T.
전화 : 233-4200, Mr. Wong

사람찾음

346 Weston Rd. 칸추리사이드 도나스숍을 맡아서 하시던 권경수(46세 가량)씨를 찾습니다.
권씨가 6월2일 이민국에 신청한 제반서류가 도착하였으니 빨리 연락 주십시요. 전화 : 665-0790

여권분실

여권분실 재공고
일터에서 여권을 잃어 버렸음. 전화 : 921-1644
여권번호 #R221791 —박우만—

자동차를 파실려구요?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속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도서판매

자녀교육을 위한 성공의 열쇠!!
ENCYCLOPAEDIA BRITANNICA (전30권) 부리태니카
연락처 (416) 469-1350 (H), 463-7423(B) 이송원

결혼 상담

남·녀 연령불문, 한국 내에 결혼도 환영.
(시간 AM1~PM7) 전화 : 533-0168 최규찬
653A Bloor St. W.

구 혼

1957년생임. 신랑감을 구함(단 시민권자)
현재 시골에서 가게를 하고 있음.
전화 : 947-9383 (Mrs. 김, 오후6시이후)

45세의 건강한 시민권자임.
재혼할 여성을 찾음.(40세—45세)
전화 : 751-3628(오전 9시—12시 사이)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때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CHARGEX VISA

실내설계

정기섭 실내 설계 전화 : 445-6440(B) 755-0308(R)
각종 실내설계, 건축허가 및 시공
Store, 집, 음식점, 도넛숍, 사무실, 디자인등

댄 스

—배워도 자신이 없는 분. —특별개인지도함.
—홀 준비되어 있음(출장지도는 밤 11시이후)
전화 : 271-0741 Mr. 명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실내장식

Samuel Harris Limited 362-1964
실내를 완전히 청소하고 꾸며 드립니다.(집·가게·사무실등 등)
◉특별봉사
— 가죽및 인조가죽
— 각종 섬유제
— 자동차 실내
178-182 FRONT ST. E. 한번 방문하시거나,
전화 : 362-1964 상담 바랍니다.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Mr. 김

1,000 Sq Ft. 가게와 방 세놓음.
다운타운 지역. (사무실에 적합).
전화 : 368-9018, 366-0960

2 베드룸 아파트렌트, 상가2층으로 완전한 Private임.
케네디 Subway 종점에서 한블락 East.
$400. 전화 : 439-9797 Mr. 한.

웨이딩드레스

웨이딩 드레스◉웨딩드레스 판매 또는 렌트
◉파티용드레스 완비 ◉꽃 어레인지먼트및 청첩장등
1503 Bayview Ave.(B)485-9419, 488-0639 실비아·원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 ◉화/오후5시 6시30분 아동미술교실, 7시-9시 성인미술교실 ◉수/오후7시-9시 인체멧상(성인)
58 Wade Ave. 전화 : 537-7630, 961-9780

한국기관·해외지사

총영사관	598-4608
무역진흥공사	977-8784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KAL	862-8250
현대자동차	477-0202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교민단체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코리아타운번영회	535-2091
동우회	261-2917
호남향우회	677-1888
캐나다체육회	248-884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인태권도협회	630-3095
상공인협회	444-3716
이민사자료연구실(한국일보사내)	533-2361
영남향우회	249-6830
송공문화협회	444-3658
온타리오한인맹인후원회	593-8943
무역인협회	535-3305
88올림픽후원회	622-3674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Rockwood Mall 안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전화 : 533-8110, 533-7966
660 Bloor St. W. 대표 : 김 영 철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페인트,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 전화: 425-8585, 535-4441(R) Mr. 김

CUSTOM WORK.
수리-가게, 집, 캐비넷, License No. B-2532
전화: 653-3105 Charles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체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목공소(FINE WOOD WORK) : 캐쉬 카운터, 각종 진열장및 가정용 책장등 가구를 주문 제작합니다.
전화: 676-1173(B), 251-2966(R) 조덕근

목수일·드라이 월·페인팅 등등 해드립니다.
18년 경험, 무료견적.
전화 : 653-7446

집수리, 건물구조변경, 지하실수리 전문. 일반목수일 합니다. 각종기계시설및 진열장, 카운터제작, 페인팅. 타일, 신건축, 세멘트일등 전화:669-5784 Mr.심

수 선

FRIENDLY SHOES REPAIR SHOP
구두수선, 친절봉사
2400 Bloor St. W.(Jane Subway 옆) 전화 : 763-6188

식 당

AKASIA HOUSE(아까시아 식당) KYOTO
1067 Midland Ave. Scarboro. (Oriole Plazza) 일식전문 한식
전화 : 755-3010(B) 267-4383(R) Mrs. 리(곽순자)

Korean Garden(정원)
고향의 맛. 한국식을 전문으로 함.
7197 Stanley Ave, Niagara Falls, 전화:1-354-3800

마쵸레스토랑(월-토: 4pm-1am, 일: 4pm-11pm)
각종 한식·중국식·양식 취급, 주류일체 취급.
4035 Gordon Baker Rd.(Victoria & Steeles-1 Block South) 498-1300

동궁식당(Oriental Castle)
전통적인 광동식 중화요리. 연회석 완비.
1416 Victoria Pk. Ave. 전화 : 757-6334 Mr. 최기주

Valley Village(금천루). 영업시간 오전8:00~새벽1시.
양식, 중국식(사천요리). 단체손님 환영. 일요일 휴업.
예약전화 : 491-4058. 3030 DonMills Rd.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남 강(구 그라나다) 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한식·일식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 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안 경 점

블루어 안경점(구진모)
635 Bloor St. W. 전화: 531-2236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 갈비, 밑반찬, 김치등 맛이 최고인 삼복식품!
★품질과 신용이 최고인 삼복식품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전화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 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243-9544

한인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Kim's Art Gallery 액자, 동양가구, 유화, 동양화 전문.
1286 Weston Rd.(에그린톤 × 웨스톤)
전화 : (B)243-0233 (R)247-3226 김석환

SUNKIM INDUSTRY LTD. 액자공장-그림재료.
2446 Cawthra Rd. unit 4-Block 4 Miss. Ont.
전화 : (B)272-0068 Mr. Kim

요한화랑 · 기독교회관
각종서적, 액자및 성화·초상화.
549 Bloor St. W. 전화: 532-7909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전화 : 636-1430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 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숙녀복전문집 미라지
디자이너 드레스/파티복/스포츠웨어/평상복
676 Bloor St. W.(한국비데오옆)530-1870 Mrs. 권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366-5655 252-1638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세 방 관 광 여 행 사
720 SPADINA AVE. SUIT. 104
전화 : 928-3335(B), 532-9581(R), 유승민 유문원

코 라 메 관 광
(나이아가라폭포, 1000 Islands 일일관광)
649A BLOOR ST.W. (제일여행사내)
전화 : (416)535-0853, R)265-4842 함영호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경보 장치

경보장치.
가게, 주택을 위한 각종 경보장치·도난방지기등 설치.
전화: 924-7696 Mr. 정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운전학교(토론토 동쪽) 한국교포 특별 우대. 18년간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십니다. 스카보로 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블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5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번의 드라이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후 41%까지 보험료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택스에서 면제할 수 있음. ★이광고를 가져오면 $20할인해드림. 시간당 $12로 특별운전교습 할수 있음 2387 Eglinton Ave.E.Unit 2
전화 : 431-2596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인 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Clover Printing Co.
3351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N1
Bus : 251-9587
RES : 252-7491 위정남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E & J 오토바디 숍.(B)766-3122 (R)439-6548
-토잉무료. -각종 보험일 처리. -철저한 신용.
104 Osler St.(Dupont×Dundas. W.) 이영두

North York 오토바디
◉20년 경력. ◉24시간 토잉써비스
◉완전수리, 페인팅. ◉수리중 차량 대여.
◉보험관계 일체 처리.
215 Toryork Dr.(웨스톤×휜치 북쪽)
전화: (B)749-0555, (R)881-4053 송 대 헌

O. K. Auto Body
◉완전수리 ◉신용으로 책임 ◉토잉 써비스
138 Sixteenth St. Tor. 전화 : 251-9889 김희삼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Auto Service(Tune-Up, Brake, Engine)
6 Moselle Dr. 전화 749-9749 Mr.박(출장수리)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 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 AUTO SERVICE
▲라지에타 ▲히타 ▲캐스탱크 ▲워터펌프 수리
◉Radiator Service (B)245-1978. (R)248-6032 김용한
◉Auto Service (B)245-2024. (R)759-9753 유선만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주말출장 자동차 수리
(Licensed Mechanic)
전화 : 299-4238 Mr.리

장 의 사

장의사(McDougall & Brown)
성실과 신뢰로써 봉사합니다.
646 St.Clair St. W. Tor. 전화 651-5511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 · 카텐

카텐이라면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카텐카페트상사로. !
◉16년경험 ◉분납가능 ◉무료견적 ◉품질다양
전화 : (B)252-4857 (R)252-6602 Mr. 유

카펫 크리닝 : 카펫 · 소파 · 쉐어 · 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281-4650 Mr. 박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416)537-6685 8am~6: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Yonge St.에서 Bayview 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국제한약상사. 각종 한약재 수입도산매 전문.
원로중국한의사 진영익 봉사. 수입보약재 할인판매
(녹용, 웅담, 해구신, 십전대보탕)
55 Kensington Ave. (쥬이시 시장내)
전화 : (B)593-5238. (R)759-4012. 최호권

정 한의원
인삼 녹용이라고 모두에게 좋은 약은 아닙니다. 체질에 맞는 약을 쓰셔야 합니다. 정확한 진맥으로 체질감별및 진단, 처방조제, 체질별식이요법.
침, 뜸, 우황, 사향, 경명주사, 녹용, 인삼및 전재한약재, 신경통, 관절염, 요통, 고혈압, 위장병, 두통, 디스크, 급만성제질환, 신경성제질환, 빈혈, 부인병일체, 늑막염, 맹장염, 중풍예방, 정력감퇴및 예방, 허약체질, 기타 건강상담 환영.
643 Bloor St. W. 2층(신용조합옆) 전화 : 536-6854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경희한방원 (진료시간: 월-금 6pm-10pm, 토,일 10am-5pm)
경희의대 한의과 졸업. 한의사 면허증 소지.
10 FOLCROFT AVE. SCAR. (Kennedy×Kingston) 266-1386 정세 철

보광한약방 〈총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IN KYU KIM R.I.A.)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공인회계사 이경복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이명윤회계사무소(스카보로지역)
44 Gil Roy Dr. Scarboro(Kennedy & Ellesmere)
전화 : 752-9332(R) 오후5시반 이후

이영철 회계사 M.B.A., R.I.A.
ACCOUNTANT & CONSULTANT
344 Bloor St. W. #304 전화: 921-1294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의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

안내판 9면에 계속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편리한 자동 전자약탕기 보급.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고급레스토랑 남강

●한식 ●일식전문
스시— 바 오픈!
연회석 110석 완비(단체예약환영)
920 YONGE ST. 923-3060

구 인

한국요리사 1명(3년 유경험자).
한국요리사 헬퍼1명
중국요리사 헬퍼1명(남자에 한함).
웨이트레스 1명.
능력에 따라서 우대함. 전화 : 532-2727

야채취급 경험있고 운전면허 있는
풀타임 헬퍼 구함.
전화 : 759-9331.

경험있는 Gross a Enbroidery Machine 기술자 구함.
약간의 영어 필요함.
Please Contact Maryanne 593-0320

웨이트레스 구함.(모나미 일본식당)
월-금(AM 11:30-PM 2:30까지) 일함.
전화는 오후2시30분 이후 421-6016 Mr. 마즈다

서양레스토랑에서 일한 경험 있는
웨이트레스 급구함(근무시간 오전9시~오후5시)
전화 : 923-3060

도넛숍에서 일할 여자 캐쉬어구함.
밤일, 낮일, 풀타임, 파타임.
전화 : 284-9325

요리사 구함.
한식·중식요리
전화 : 498-1300 Mr. 리

햄버거숍에서 근무하실 남자분 구함.
영어회화 가능하고 능력에 따라 우대함.
전화 : 921-9745(오후 8시-11시 사이)

여자 Cashier Store Helper 구함.
전화 : 465-4358

유경험자 Cashier 구합니다.
전화 : 654-6336

재봉사 급구 (유경험자).
시간당 5불, 829 Dundas St. W.
전화 : 368-2819. Mr. 왕.

경험 있는 캐쉬어 구함.
전화 : 690-5554 (맥스 밀크 Mr. 정)

남·녀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
가장 높은 가격으로 매일 지불함. 좋은 농장.
전화 : 461-7994.

룸메이트 구함. 여자분 원함.
전화 : 621-4985. (민정엄마)
저녁 6시이후(월~목요일) 전화하세요.

북미 최초의 한국인 야마하 피아노
대리점으로 사업운영에 꼭 관심있으신 분만
연락 바랍니다.
전화 : 881-8230. Mr. 윤

가게를 파실려구요?
사람을 구하신다구요?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15.(1주일간)로 만족한 결과를 얻으실 것
입니다. 광고국: 533-2361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매 매

Kim Amusement Arcade
Over 20 Video Games + Smoke Shop
40 Centennial PKWY N
Across from Eastgate Square HAMILTON
Ask John Kim(Owner)
After 8 : 00 p.m. 1-561-0110

몬트리얼지역 그로서리 상점 팝니다.
맥주와인 라이센스+Lotto. 주매상 1만1천+1,300(Lotto)
Asking $9만+스탁(현찰 8만불).
NO MWAT NO DELIVERY
전화 : 1-514-364-4627 MR. 송

몰안에 있는 Hot Dog Stand 팝니다.
좋은 장소.
전화 : 826-5942(오후2시~4시), 622-7763(오후5시이후)

체스트 필드, 침대, 쇼파 세트, 높은 바 의자, Love Seat, 각종 매트레스, Sectionals·Desk, Discontinued Styles 매트레스.
영업시간 : MON-FRI(AM9~PM5), SAT(AM8:30~PM2)
DIAMOND BROTHERS
106 Orfus Rd.(Dufferin & Lawrence)
전화 : 781-5563

Nature & Health Food Store 팝니다.
좋은 장비, 바쁜 스카보로 플라자내(가족사업). 좋은 리스.
전화 : 298-1118(4-6 PM) Mr. Gary.

하우스 팝니다. (미시사가, 다운타운까지 15분거리)
5 베드룸, 화장실 3, 큰 Lots(70 × 200), 따로 부엌시설이 된 넓은 레크레이숀 룸, Work Shop, Double Garage with in office & extra parking.
Easy Financing, Asking $139,000
전화 : 279-9739, 698-6219

현재 성업중인 스토아및 건물 팝니다.
전화 : 532-8260

1년된 버라이어티 스토아 혐편상 급매.
권리금, 스탁 합쳐 5만불 정도, 경험자로 스탁 늘려 키울수 있는 분에게 양도코자 함. 62 Main St. North Markham(HWY 7, HWY 48 북쪽 프라자)

3년된 2층 벽돌집 팝니다.
(Dufferin & Steeles)
4 Bedroom, 2 Fire Place, 센트럴 에어콘디숀.
완전히 꾸며진 지하실, 그밖에 많은 시설이 잘되어 있는 좋은 House.
전화 : 638-6181, 669-4912 Mrs. Lidia
NARDI REAL ESTATE.

성업중인 Gift Store 급매.
큰 Mall안에 있음, 여자 혼자서 운영 가능함.
리스 1992년까지. 전화 : 633-7479

버라이어티스토어 급매(2층 APT건물포함). 월이익금 $4,300이상. 아스킹$11만9천 + Stock. $3만9천 Cash 잔금은 Mortgage를 줄수 있음. 1-523-5885 Hamilton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4,500. Asking $4만2천 + Stock.
1541 O'Connor Dr. (직접 내방요)

헤어드레스 Shop 비지네스 팝니다.
Asking $12,000(장비포함 일체) 렌트 $380.
전화 : 921-5947. 5년 리스.

그로서리 스토아 팝니다. 주매상 $6,500.
아스킹 $8만+스탁. 직접 내방 요망.
3601 Lawrence Ave. E.(Terrace Brae Plaza내)

(1) Tuck Shop 팝니다.
주매상 $3,500. 리스 4년반 + 5년 + 5년.
렌트 750불. 아스킹 5만불.
(2) 버라이어티 스토아.
주매상$7,000(과거 $9,000) 리스 4년반 + 5년. 렌트 1,200불.
(3) 빌딩내에 있는 Fast Food(Take-out)
주5일 오픈, 주매상 3천불, 리스 4년반 + 5년.
렌트 1,500불, 가격 12만불.
전화 : 741-9170. A.E. LePage Real Estate. Mrs. 우.

버라이어티가게 팝니다.
주매상 $5,000. 리스 2년반 + 5년. 렌트 550불
전화 : 769-0506 Mr. 김

버라이어티 스토아및 건물 가정형편상 급매. 이윤 좋고 경쟁 없는 코너스토어. 2층 2베드룸. 주매상 : $4,000 + 티켓. 9 to 9. 해밀톤. 전화 : 526-7179 Mr. Kim.

버라이어티가게 팝니다.
주매상 $4,500. 아스킹 $3만5천. Sincere Realty. Alice Wang.
전화 : 497-8900, 444-0674(오후5시 이후)

몬트리올에 있는 가게 팝니다. 전화 : 222 -1770
주매상 $7,500-$8,000. 리스 1990년+옵션. Tor.
렌트 $832(Monthly). 800세대가 사는 턱숍.

가게와 살림집 딸린 건물 팝니다.
◉살림집 : 2 Bedroom, 거실, 부엌, 변소, 식당
◉가 게 : 년매상 20만불 접근
◉특수여건 : Gas 스테이숀을 할 수 있음.(집터 ½에이커)
전화 : (519)631-9778(런 던)

One Way 칼가리 비행기표 팝니다.
전화 : 598-2436

드라이클리닝 플랜트 팝니다(다운타운 플라자내)
$1,500 wk/gross. Lease to 1996.
전화 : 752-7575 Mr. Sotos(Rainbow 부동산)

Tuck Shop 팝니다. 주매상 $5천.
전화 : 242-2907.

(1)토론토에서 30마일 떨어진 상업용건물(건물 Built 1978) 급매.
2개상점, 2 Apt 월 렌트수입 $750, 버라이어티스토어, 1 Apt, 구두수선가게+기계(건물주인), Asking $175,000
(2)구두수선가게(Missi On Mall), Asking $90,000.
전화 : 826-4 355

비즈네스 전망 좋음!
2 에이커의 땅이 있는 살림할 수 있는 가족 비즈네스로 적당.
개스 펌프및 세탁기 있음. 일년내내 운영함.
쿠치칭 호수 근방. 주인이 재정운영 관계를 도울것임.
오퍼 접수중. Moore & Lougheed Ltd. (오릴리아 지역)
전화 : 1-(705)325-4448

도나스 Pastry Shop 팝니다(Franchise Store 아님).
장소 : Eaton Square Centre, London, Ont.
Opening Day : Aug. 15, 1983
Cash Investment $5만~$5만5천
주매상예상액 $2,500~$3,000 정도.
전화 : (416)532-9955 Mr. 김

의 사

(가정의사)

황대연	961-7495	7 Dale Ave. Toronto
최등영	964-0471	600 Sherbourne. #308 Tor.
왕운린	968-1543	600 Sherbourne. #402

(소아과·알러지)

이은숙	781-0033	250 Lawrence Ave. W. #203

(내과)

김낙혜	924-9741	

치 과

원영수 치과	923-3336	600 Sherbourne. #406
이영일 치과	233-9301	345 Wilson Ave. #202
임동순 치과	231-9163	150 Berry Rd. #24
이 억 치과	224-0483	121 Willowdale #303
최해경 치과	483-9515	586 Eglinton E. #208
윤종태 치과	925-2408	360 Bloor St. W.#307

가 구 점

에코시 가구점
21 Vaughan Rd.(1440 Bathurst St.)
전화 : 657-1785(김 만 구)

모드가구점 (MOD ADDITIONS FURNISHINGS)
2300 Yonge St. Tor.(Yonge & Eglinton Centre) 고급가구전문
전화 : B)486-0397 홍애연 (9:30am~9:00pm)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2-5754(R) 이 동환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960-6265 Mr. 김

제인·파 꽃집(Jane Park Plaza내)
◉각종 어레인지먼트, Plant, Gift.
◉주문배달함(토론토 전역 및 세계각국)
◉화환 특별할인 봉사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윤)
875 Jane St. Toronto. M6N 4C4

꽃집 욕-다운 (York Downs Florist)◉각종 어렌지와 Plant, 기타일체, 특히 분재(Bonsai)취급및 문의 환영. 배달함-이한균
◉3901 Bathurst St. Downsview 전화: (B)635-9794 (R)635-1283

Lotus Florist And Gifts(메트로 전역, 캐나다및 미국 주문당일 배달, 영국·유럽은 3일전, 한국·기타지역: 1주일전.)
792 Bathurst St.(at Bloor) 전화: 533-3884·533-0705 Mrs. 김

정손꽃집(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B)622-8516, (R)279-3719 허소피아

크리스탈 꽃집.
각종 어레인지먼트, 각종 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366 Bloor St. W. 전화:927-8730 Mr. 박

장미원(Rose Garden)일요일도 영업함(am10-pm5)
◉각종 플랜트·어렌지먼트 ◉Party Time Supplies
◉웨딩 & Special Day Cake 주문배달 ◉후룻바스켓
◉결혼·회갑·장례등 각종 예식 화환 염가판매
1117 O'Connor Dr. (Victoria Park W. & St.Clair E)
전화 : 757-1010(B), 757-0227(R) Mr. 김

페인트·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오.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 전화 : 731-4204 (Mr. 신)

SUN PAINT & WALLPAPER
각종 고급페인트(파라, 벤자민무어등)와 벽지취급. 페인트상담환영.
619 McCowan Rd & Lawrence Ave. 전화 : 438-6965 이광순

미 용

킴스미용실· ◉(일요일 휴무)
1)머리에 제일 중요한 정확한 헤어카트 시도
2)전파달리 기다리지 않게 해드림
3)헬퍼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해드림
4)저렴한 가격과 고급약 서비스(노인 25불)
5)신부화장하신 분에게 고급드레스 대여
668 Manning Ave. 전화 : 532-7094(B) 248-2437 Mrs. Kim

스타미용실(Mrs.김)◉남·녀커트 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전화 : 741-4410. 화~토: 9am~8pm. ◉매주 월요일만 동부영업
*1353 Danforth Rd. 전화 : 261-1533. 월 : 10am~7pm.

소피고 미용실
1133 Dundas St.E. Missi. Ont.
B)270-4684. R)277-8985. Mrs. 고.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우체국옆) Scarboro.
전화 : (B)759-8854, (R)755-2759 Mrs. 허

빵 집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6(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Pro Insurance Brokerages Inc. (강학수종합보험)
P.O.Box 126, Etobicoke, Ont. M9C 4V2
전화 : 622-5147

김 종 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석용 전화 : (B) 752-3111, (R)298-0398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B)497-0600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사업체 일체) (B)449-8644~6 (R)224-1967 ★이헌영 (R)686-0207 ★유웅복 (R)447-9395 ★임윤식 (R)636-7950 ★강정숙 (R)244-8918 ★임분옥 533-9061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순일 전화 :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CANADA PERMANENT TRUST CO.
주택·사업체등 부동산 취급. 몰게이지 상담.
김평(Paul Kim) 전화 : 497-9794(B) 491-5962(R)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CENTURY 21 복덕방
조준상(John Cho)
전화: 743-7722(B), 742-0260(R)

$15.(1주일간)로 만족한 결과를 얻으실 것 입니다. 광고국: 533-2361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지개 칼라-촬영전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JOA STUDIO(결혼사진및 비데오전문)
아름다운 순간을 영원히! 299-4223(Mr. 조)
499-3893(Mr. 정)
424-2082(Mr. 윤)

생 선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CANADIAN FISH MARKET
수십종류의 싱싱한 생선및 회감.
658 Bloor St. W. 전화 : 535-2431 박용곤

선 물 센 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60 Bloor St. W.
전화 : 533-7966 533-8110

T. V.

한국비데오센타 ◉각종비데오테프 대여전문
◉품질보장, 신용본위. ◉비데오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678 Bloor St. W. 손병헌

SONY Video, T.V., Stereo
Bayview Electronics, Bayview Village Centre
(Bayview & Sheppard) 전화 : 224-1622 김항섭

NIPPON VIDEO센타 ◉각종 일본테잎전문(4,000개이상)
◉비데오머신 판매. 1993 Danforth Ave.(덴휘스×우드바인)
Tel: 698-0633 Mr. 하마구찌 "일요일 Open"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ZENITH, R.C.A., PANASONIC, 각종제품. Mr. 박

크린톤에서 만납시다 CLINTON HOUSE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별실 있음.
○아늑하고 조용 —— 마이크시설 있음.
693 BLOOR ST. W.
535·9541 MR. 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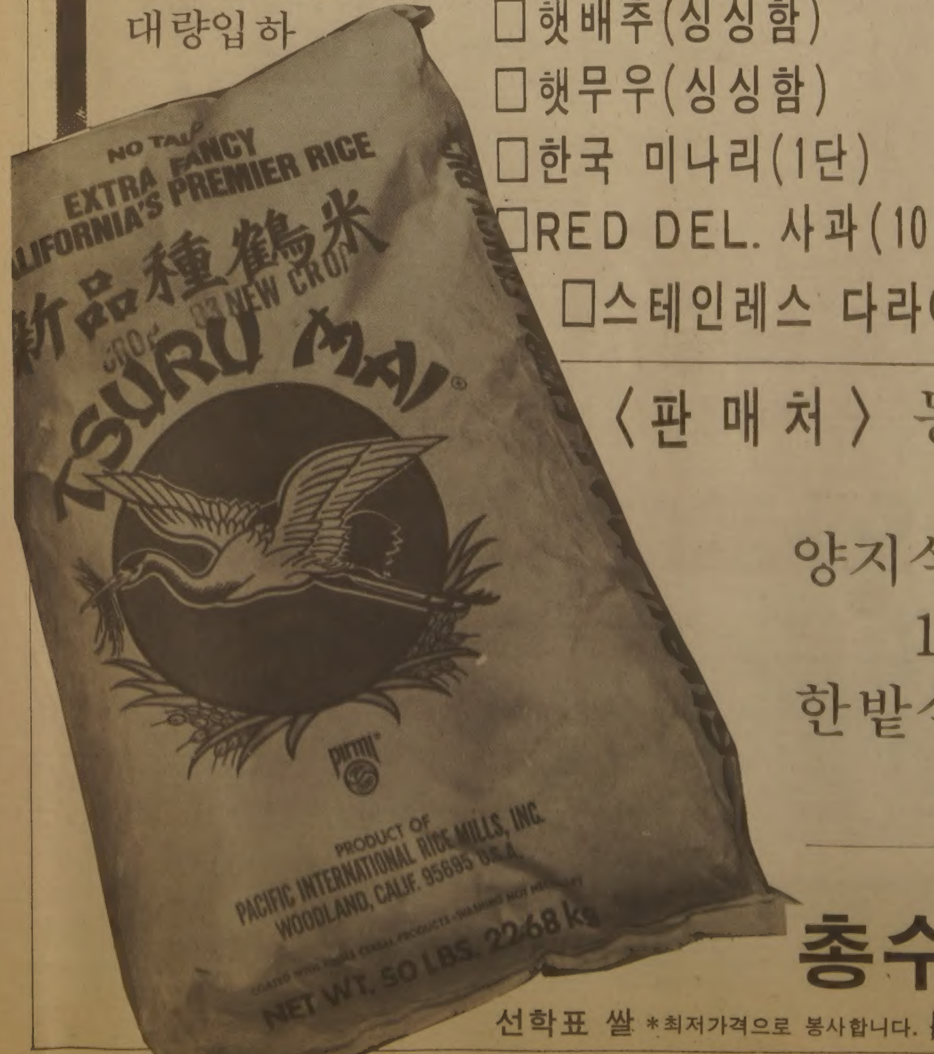
초여름 대매출

신록이 싱그러운 소망의 계절입니다.
교민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축원하면서 저희식품점들이 아래와 같이 대매출을 하오니 일차 왕림해 주시고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와 조언을 빕니다.

품 명	대매출가격	종전가격
□국보쌀(50Lb)	$.19.95	~~24.95~~
□냉면그릇	5.95	~~7.95~~
□사뽀로라면(24봉)	7.95	~~10.95~~
□가도야 참기름(캔)	7.95	~~10.95~~
□일본산 노랑태 햇조기(비늘벗긴것임)(22Lb)	34.95	~~39.95~~
□물오징어 특대형(13Lb Box)	11.75	~~17.95~~
□알배기동태(50Lb Box)	45.95	
□갈비(무제한 SALE)	1.49 Lb	~~1.79~~
□햇배추(싱싱함)	49₵ Lb	~~69₵~~
□햇무우(싱싱함)	49₵ Lb	~~69₵~~
□한국 미나리(1단)	99₵ Lb	~~1.29~~
□RED DEL. 사과(100개)	19.50	
□스테인레스 다라이(대형19인치)	29.95	~~39.95~~

청수냉면 <5인분·2인분> 대량직수입!

선학쌀(50Lb)
대량입하



〈판 매 처〉 동아식품 · 5568 YONGE ST. (222—8989)
양지식품 · (759—9331) 1738 LAWRENCE AVE. E.
한밭식품(미시사가) (274—5401) · 466 SOUTH SERVICE RD

총수입원 금성무역 CO., LTD.

선학표 쌀 *최저가격으로 봉사합니다.

《 축 》

협동조합탄생

온타리오 한인 실업인협회의 협동조합이 정식 발족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경하합니다.

협동조합의 탄생은 실업인협회 회원의 경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 3만 교민의 발전과 번영을 바라보는 역사적 거보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하오며 보다 착실하고 알찬 성장을 기원합니다.

1983년 6월

캐나다한국외환은행

임직원 일동

주식청약업무

협동조합 주식청약 업무를 저희 은행 불루어지점『협동조합창구』에서 전담토록 되었사오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현금청약 □6개월월부청약

신용구매여신

협동조합 설립후 신용구매를 위한 여신(CREDIT LINE) 신청을 저희 은행 본점이나 불루어지점에서 접수하고 있아오니 속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韓国을 代表하는 世界有数의 国際的 銀行

韓國外換銀行이 全額出資하고 保証 하는

캐나다 한국외환은행

KOREA EXCHANGE BANK OF CANADA

본점	불루어지점	뱅쿠버지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P.O.BOX 402, TOR., ONT. M5X 1E3	629 BLOOR STREET WEST TORONTO, ONTARIO M6G 1K8	ONE BENTALL CENTER #760 505 BURRARD ST. VANCOUVER
364-2890	533-8593	687-7322